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27차 임시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때 : 2015년 3월 9일(월) 오후 2시
- 곳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자료순서

● 자료 순서	1
● 회의순서	2
● 대 회 사	3
● 격 려 사	5
● 8기 2년차 대의원 명단	7
● 마 크	12
● 선 언	13
● 강 령	14
● 금속노조가	15

<보고자료>

1. 조직현황	16
2. 각종 회의 보고	18
3.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보고	28
3. 1/4분기 감사결과 보고	71

<안건자료>

안건 1. 경기지부 2015년 사업추진계획 승인 건	81
■ 경기지부 2015년 사업추진계획(안)	83
안건 2. 기타 안건	125
■ 기타안건을 상정해주십시오.	

<첨부자료>

2015년 금속노조 투쟁방침	129
경기지부 운영규칙	151
경기지역 사업장 연락처	153

회의순서

[사전행사]

- 민중의례
- 대회사
- 격려사
- 문화공연
- 투쟁사업장, 신규사업장 인사

[임시 대의원대회]

- 성원보고 및 대회성립 선포
- 대회 서기 및 사찰 임명
- 회순통과
- 안건 토론
 - . 안건 1. 경기지부 2015년 사업추진계획 승인 건
 - . 안건 2. 기타 안건

•폐회선언

대 회 사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8기 2년차 경기지부는 틀어진 노동자들 간의 관계를 진단하고 회복하기 위한 “관계진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노조의 향기 간담회”을 통해 이 시대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향기를 내면서 활동을 해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기지부의 발전전망을 만들기 위해 토론과 간담회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분명한 자기관점 속에서, 지침에 의한 영혼 없는 활동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이자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경기지부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 투쟁들이 많습니다.

신규 사업장인 오스람 분회와 이수엑사보드 분회 투쟁이 있고, 공장을 철수하고 특허권만 팔아 튀겠다며 정리해고를 통보한 하이디스와 한라 비스테온의 매각투쟁이 있습니다.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뭘 놔미 챙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외투자본 소유지분이 50%에 육박하고, 국내은행들은 60-70%대, 보험회사 또한 72.7%에 달하고, 손해보험 ‘빅4’에서도 약 40%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투자본에 의해 돈도 빼앗기고, 기술도 빼앗기고 고용마저 빼앗기는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멍청한 정부는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투자본의 수탈과 먹튀를 금속노조가 멈춰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을 선포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강화, 개별해고는 쉽게,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을 확대, 탄력근로제도 확대, 임금 체계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까지 자본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주게 되면, 노동자 서민의 삶이 어떻게 유린당할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 지금 노동자 서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박근혜 정권은 담배값을 인상하고 연말정산 폭탄을 때리더니, 주민세-주류세-건강보험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범칙금은 2년 동안 5배를 걷어 들이고 서민복지는 축소하면서 부자증세는 없다며 재벌에겐 희망, 시민에겐 절망의 사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해매고, 그나마 찾으면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젊은 이들의 이야기지요. 비정규직 평균연봉이 1800만원인데다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11%라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 빈곤아동은 120만 명, 하루 한 끼 먹는 아이가 40만 명입니다. 자살률 1위를 넘어, 절망한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극단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끼니조차 걱정하는 절망에 빠진 서민들과 경기지부가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위사업장 투쟁으로, 임단협 투쟁으로, 사안별 투쟁으로는 더 이상 적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자리를 통해 조합원들은 “노조가 변해야 한다. 성찰해야 한다. 우리만의 요구 말고 지역과 사회와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했습니다.

이런 경기지부의 조합원들이 누구보다 이 사회의 현실과 노동조합의 나아갈 바를 잘 아는 조합원들이라 생각합니다.

2015년 조합원들의 마음과 뜻을 원동력으로 나아갑시다.

노동자시민들이 절망사회를 바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비집고 터져 나올 ‘틈’을 만드는 투쟁,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이 새롭게 해나갑시다.

동지여러분!

우리 서로 동지를 믿고, 올해 제대로 한번 힘 있는 투쟁 만들어갑시다!

2015년 3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정규전

격려사

자랑스런 금속노조 지부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노동조합운동이 한발 전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굴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가름할 엄중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째, 언론조사에 따르면 이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무려 6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재벌에게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세금폭탄과 물가상승으로 파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인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비정규종합대책안은 정규직을 과보호해서 비정규직의 생존권이 어려운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반해고제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파견업종과 대상을 무제한 확장하는 정책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더욱 많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개살구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발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조마저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 취업규칙변경 요건을 개악하려하고,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변경, 삭제하려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지부대의원동지 여러분!

금속노조는 3월 3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법 개악안을 환노위에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민주노총의 선제파업에 복무할 것을 또한 결의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과의 피할수 없는 일대 격전에 맞서 지부대의원 동지들 또한 힘있는 총파업을

결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노조가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해나갈수 있느냐에 전체 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금속노조의 깃발이 공장에서, 지역 방방곡곡에서 세워지고 노동자 서민들의 분노와 요구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2015년 강고한 투쟁, 총파업 성사를 위해 여기 모이신 금속노조 지부 대의원동지들, 모두 힘차게 투쟁합시다!

2014년 12월 15일

금속노조 위원장 전규석

○ 8기 2년차 대의원 명단

번호	지회(사업장)	이름	비고
1	계양전기	이용열	당연직/노조대의원
2	계양전기	길재기	
3	계양전기	박대성	
4	계양전기	신동균	
5	계양전기	이덕화	
6	계양전기	이성일	
7	계양전기	조창식	
8	계양전기	지준웅	
9	대경티엘에스	최용준	당연직
10	대원안산	이승현	당연직
11	대원안산	김용래	노조대의원
12	대원안산	김진호	
13	대원안산	김현종	
14	대원안산	박주건	
15	대원안산	박허영	
16	대원안산	변명관	
17	대원안산	차유근	
18	대원평택	이지현	당연직
19	대원평택	여성현	
20	대원평택	이성범	
21	대원평택	최인호	
22	대원평택	현봉구	
23	대원평택	한재현	
24	두원정공	이용섭	당연직
25	두원정공	권영국	
26	두원정공	김규원	
27	두원정공	김도영	
28	두원정공	김병수	
29	두원정공	김용근	노조대의원
30	두원정공	김종웅	노조대의원
31	두원정공	노재석	
32	두원정공	문경철	

33	두원정공	박영규	
34	두원정공	박은양	
35	두원정공	박태봉	
36	두원정공	신정범	
37	두원정공	엄정흠	
38	두원정공	윤정식	
39	두원정공	이원태	
40	두원정공	이해선	
41	두원정공	이효민	
42	두원정공	이희철	
43	두원정공	정재호	
44	두원정공	홍성일	
45	르그랑코리아	문경복	당연직
46	삼성	박원우	당연직
47	에스제이엠	김영호	당연직
48	에스제이엠	김영종	
49	에스제이엠	김진국	
50	에스제이엠	김진태	
51	에스제이엠	문춘경	
52	에스제이엠	안덕길	
53	에스제이엠	이우길	
54	에스제이엠	장상민	
55	에스제이엠	전순재	
56	에스제이엠	정준위	노조대의원
57	에스제이엠	조희훈	
58	에스제이엠	최규덕	
59	우리	이준규	당연직
60	우리	한상훈	노조대의원
61	우창정기	윤상선	당연직
62	우창정기	김완수	
63	우창정기	고영진	
64	인지컨트롤스안산	김영훈	당연직/노조대의원
65	인지컨트롤스안산	이원용	
66	인지컨트롤스안산	최호진	
67	인지컨트롤스안산	한상욱	

68	주연테크	김영신	당연직/노조대의원
69	포레시아	송기웅	당연직
70	하이디스	이상목	당연직
71	하이디스	김지훈	
72	하이디스	김혜인	
73	하이디스	우부기	노조대의원
74	하이디스	윤영준	
75	하이디스	윤지인	
76	하이디스	이종훈	
77	하이디스	조기준	
78	하이디스	최지은	
79	한라평택	장태균	당연직
80	한라평택	이영선	노조대의원
81	한라평택	미선출	노조대의원
82	한라평택	구자현	
83	한라평택	김상진	
84	한라평택	김영배	
85	한라평택	김용직	
86	한라평택	배주열	
87	한라평택	서형기	
88	한라평택	양원모	
89	한라평택	양진모	
90	한라평택	이병헌	
91	한라평택	이선우	
92	한라평택	이용철	
93	한라평택	이재춘	
94	한라평택	이종철	
95	한라평택	조정우	
96	한라평택	미선출	
97	한라평택	미선출	
98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	서광수	당연직/노조대의원
99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	이청희	
100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	박대권	
101	현대케피코	진규형	당연직
102	현대케피코	강길택	

103	현대케피코	강석찬	노조대의원
104	현대케피코	강호진	
105	현대케피코	김경문	
106	현대케피코	김대훈	
107	현대케피코	김선희	
108	현대케피코	김유환	
109	현대케피코	김의선	
110	현대케피코	김준범	
111	현대케피코	남선우	노조대의원
112	현대케피코	박명규	
113	현대케피코	박미선	
114	현대케피코	박성철	
115	현대케피코	송한별	
116	현대케피코	신성표	
117	현대케피코	안진희	
118	현대케피코	염운일	
119	현대케피코	윤종일	노조대의원
120	현대케피코	이강훈	
121	현대케피코	이미정	
122	현대케피코	이승태	
123	현대케피코	이학규	
124	현대케피코	장혜경	노조대의원
125	현대케피코	전성복	
126	현대케피코	정종식	
127	현대케피코	정종준	
128	현대케피코	정주형	
129	현대케피코	진선진	
130	현대케피코	조미란	
131	현대케피코	조영선	
132	현대케피코	차재홍	
133	현대케피코	최덕현	
134	현대케피코	최승민	
135	현대케피코	최원일	
136	현대케피코	한형수	
137	현대케피코	현인길	

138	현대케피코	황태진	
139	현대케피코	황현택	
140	현대케피코	황호준	
141	한국쓰리엠(화성)	오형탁	당연직
142	한국쓰리엠(화성)	서장옥	
143	경기금속지역지회	이규선	당연직
144	대한솔루션	정민영	
145	대한솔루션	정재황	
146	동아공업	서원구	
147	승림카본	이중배	
148	시그네틱스	김양순	
149	시그네틱스	윤민례	노조대의원
150	신한발브	김경화	
151	신한발브	김동구	
152	신한발브	이영일	
153	신한발브	이지훈	
154	신한발브	최일호	
155	신한발브	하용수	
156	신흥	신우철	
157	안산시흥일반	정현철	노조대의원
158	안산시흥일반	진유진	
159	오스람코리아	박진수	
160	오스람코리아	박흥규	
161	오스람코리아	송정근	
162	오스람코리아	조동윤	
163	이젠텍	최상호	
164	중앙바이오텍	이복길	
165	지성테크	김종우	
166	파카한일유압	권오진	

○ 상징마크



-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질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 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 강 령

【조직】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 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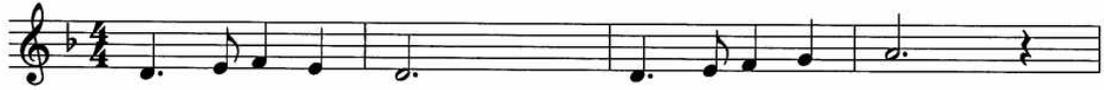
【국제연대】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측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김호철 글,곡



노깃 동 자 의 길 북 해 방 의 길 에
 누 를 수 북 더 북 강 하 게



당 당한 역 사의 함 성이 되어 우 리 는 간 다



피 로써 뭉 쳐진 강 철의 대오 아 금 속 노 조 여



나 가 자 성 벽을 깨고 죽 음의 사 선을 넘 어
 말 하 라 외 처 불 러라 민 중의 선 봉에 서 서



노 동 자 - 해 방의 나라 기 필 코 쟁 취하 리 라
 너 나 없 이 평 등한 나라 기 필 코 쟁 취하 리 라

보고 1.

조직 현황 보고

1. 지부 조합원 조직 현황 (2015년 2/28 현재)

■ 20개 지회(32개 사업장) 3,895명 기간 : 2014년 10월 1일 ~ 2015년 2월 28일 (단위: 명)

지회명	월 별	연도												비고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계양전기	186	186	186	189	201											
2	대경티엘에스	3	3	3	3	3											
3	대원안산시화	180	180	180	179	179											
4	대원평택	149	149	149	149	149											
5	두산인프라코어안산																
6	두원정공	466	466	466	460	460											
7	르그랑코리아	12	12	12	12	12											
8	삼성	8	8	8	8	8											
9	에스제이엠	270	270	271	271	271											
10	우리	16	16	16	16	16											
11	우창정기	54	54	54	54	54											
12	인지컨트롤스안산	95	95	95	95	95											
13	주연테크	11	11	11	11	11											
14	포레시아	20	20	20	20	20											
15	하이디스	194	194	193	193	193											
16	한라비스테온공조평택	391	391	391	391	391											
17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	96	97	98	98	98											
18	현대캐피코	893	892	889	889	889											
19	쓰리엠화성	37	37	37	37	37											
	카캐리어지회	40	40	40	-	-									15.1.5 해산승인		
20	경기 금속 지역 지회	개별조합원	15	15	15	15	15										
		대한솔루션	62	62	62	62	62										
		동아공업	6	6	6	6	6										
		승림카본	3	3	3	3	3										
		시그네틱스	51	51	51	51	51										
		신한발브	231	231	231	231	231										
		신흥	9	9	9	9	9										
		안산신흥일반	69	69	69	69	69										
		오스람코리아	109	109	110	110	110										14.10.13 편제승인
		이수엑사보드	-	-	-	-	168										15. 2.26 편제승인
		이젠텍	7	7	7	7	7										
		중앙바이오텍	13	13	13	13	13										
		지성테크	26	26	27	27	27										
파카한일유압	17	17	17	17	17												
	소계	618	618	620	620	788											
	지부 개별조합원	19	19	19	19	20											
	합 계	3,758	3,758	3,758	3,758	3,895											

2. 신규설립 및 해산·탈퇴 현황보고

1) 신규

사 업 장	조합원	가입일	유 형	조직편제	비 고
이수엑사보드분회	168	15.2.9	중소사업장	분회	15.2.26 67차 운영위 조직 편제 승인

2) 조직명 변경

- 없음.

3) 해산

사 업 장	조합원	가입일	유 형	조직편제	비 고
카캐리어지회	40	13.6.22	화물운송	지회	15.1.5. 60차 운영위 해산 승인

보고 2.

각종 회의 보고

1. 지부 대의원대회

일시	대의원대회	장소	참석	주요 결정사항
2014. 12.15	26차 정기 대의원대회	수원시민회관	성원 168명 미선출 4명 재적 164명 참석 119명	. 안건 1. 8기 1년차 사업평가 승인 건 . 안건 2. 8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 건 . 안건 3. 8기 2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 . 안건 4.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파견대의원 선출 건 . 안건 5.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 안건 6. 기타안건

○ 경기지부 26차 정기 대의원대회 결과

- 일시 : 2014년 12월 15일(월) 14시
- 장소 : 수원시민회관
- 참석 : 대의원 119명(참석명단 별첨)

● 성평등 의무교육(14:05-14:30)

- 강사 : 노조 최용숙 교육국장

●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14:30-15:15)

- 세월호 영상 상영
- 유가족 2인 발언
- 주연테크 안준민 사무장 격려사 및 선물 전달
- 경기지부 사업장 세월호 실천영상

1. 기념식(15:27)

- 사회: 유상기 사무국장
- 민중의례
- **대회사** 정규전 지부장
- **격려사**
 - 노조 강두순 부위원장
 -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상언 본부장
-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 상 시상**
 - 포레시아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남부권 6개 분회(분당, 성남, 이천, 평택, 서수원, 용인)
 - 두원정공지회 강석봉 조합원,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김경진 조합원, 대한솔루션분회 최호상 조합원, 시그네틱스분회 김양순 조합원
- **축하공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몸짓패 공구가방(이우식, 이병기)
- 금속노조가 부르며 마무리
(16:18 기념행사 끝)

2. 본 회의

< 26차 정기대의원대회 >

* 개회선언

* 성원보고 및 대회성립 선포(16:30)

- 대의원 성원 168명 중 미선출 4명, 재적 164명 과반 82명 중 119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함.

* 서기 및 사찰 임명

- 서기 : 김유진 총무부장, 사찰 : 지부 집행위원(김성학, 박동진, 조건준)으로 선출함.

* 회순통과

- 원안 통과

* 보고사항

- 보고1. 조직 현황보고(회의자료 대체)
- 보고2. 각종 회의보고(회의자료 대체)
- 보고3. 2014년 집단교섭 진행 보고(회의자료 대체)
- 보고4. 주요 투쟁 및 사업 집행 보고(회의자료 대체)
- 보고5. 결산감사 및 투쟁기금 보고(총무부장 보고)

● 2014년 사업 및 2015년 대의원 결의 영상 상영

안건1. 지부 8기 1년차 사업평가 승인 건(안건설명: 조건준 교선부장)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제출된 사업평가(안) 을 승인함.

안건2. 지부 8기 2년차 사업계획 확정 건(안건 설명 : 조건준 교선부장)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제출된 사업평가(안) 을 승인함.

안건3. 지부 8기 2년차 사업예산 확정 건(안건 설명 : 유상기 사무국장)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사업예산(안)을 확정함.

안건4.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함.

■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

일반명부 : 정규전 경기지부 지부장

여성명부 : 엄미야 경기지부 부지부장

■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

번호	구 분	이 름	사업장	비 고
1	일반	이용섭	두원정공지회	
2	일반	진규형	현대케피코지회	
3	일반	이승현	대원산업안산지회	
4	일반	김영호	에스제이엠지회	
5	일반	이용열	계양전기지회	
6	여성	신숙주	우창정기지회	
7	여성	변경선	하이디스지회	
8	여성	윤민례	경기금속지역지회	
후보 대의원				
1	일반	유상기	지부 사무국장	
2	일반	이준규	우리	

안건5.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결정사항] 당연직 지부장 외 에스제이엠지회 김영호 동지를 만장일치로 선출함.

안건6. 기타안건

- 없음.

17:31 폐회 선언

- 동지가 제창

<끝>

2. 경기지부 운영위 수련회(67차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

- 일시 : 2015년 2월 26일(월) 14시
- 장소 : 여주 토리샘
- 참석 : 운영위원 21명 / 참관 10명: 계양천안 조창식 수석, 대한솔루션 정재항 분회장, 동아공업서원구 분회장, 오스람코리아 부분회장, 지성테크 김종우 분회장, 파카한일유압분회 권오진 분회장, 지부 교선, 노안, 조직, 총무/ 뒤풀이에 하이디스간부 14명 참가
- 서기 : 김유진 총무부장

■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장소	비고	
26일 (목)	15:00	운영위원회 회의	카페	- 당면 안건 심의 및 결정
	16:30	2년차 사업계획 논의	카페	- 15년 구체 사업계획 논의 - 집단교섭 요구안 점검
	19:30	식사, 뒤풀이	식당	- 21:30 이후 숙소
27일 (금)	09:00	아침식사, 정리		
	11:00	여주 신록사 방문		

8기 2년차 사업계획 논의

[사업계획]

- 1. 올 해 사업의 초점은 무엇인가? 총파업 등으로 헛갈리지 않도록, 2. 지부 올 해 사업 컨셉, 3. 임단협 요구안, 4. 지부발전전망 관련 쟁점 중 의견. 순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틈이 되자는 기조로 정리가 잘 된 듯하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노조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노동운동방식이 필요한 때다. 현장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교섭과 투쟁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운동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방향이 좀 나와야 할 것 같다. 어떤 애긴지는 알겠는데 대대 끝나고 뭐가 달라져야 할지 감을 못 잡을 것 같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의 경우, 제출된 사업 내용은 다 조직된 노동자들 우리끼리 하는 일들인 것 같다.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역량을 쏟아야 할 것 같다.
-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모여야 한다. 권역별로 모여가며 타 산별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축적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다면 의견들을 내주길 바란다.
- 다른 지부 단협안에 보면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는데 경기지부는 많이 못 해온 것 같다. 설문조사 중 조합원들의 얘기 굉장히 충격적이다. 우리가 구성원이면서 스스로가 이기적이라고 인식하고 있

다는 것 심각한 문제다. 운동이 아니라 이익집단이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전체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갔으면 한다. SJM 투쟁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론이 용역강패 노조파괴 삶의 파괴였다. 세월호 1주기 기념식, 자식 죽고 1년을 1주기라고 기념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관심을 벗어나서 우리의 과제로 안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참고로 조합원들이 간담회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봉사활동이었다. 노동조합이 봉사활동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많았다. 조합원들이 얘기한 봉사활동은 딱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핵심은 지역과 밀착사업을 해야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사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로 나가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는 것 같다.
- 그래서 금속 경기지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집단교섭, 사업장 교섭, 당면 투쟁 등 과제가 있다. 노조와 민주노총의 결정사항에 최대한 복무해야 하고 그 속에서 지역운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고민이 권역별로 조직된 노동자를 모아서 가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는가.
- 그렇게 단계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조직되어 있고 힘이 있다. 나는 요즘 지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활동을 지역으로 배치한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그 동안 100의 힘을 우리를 위해서만 썼다면 30은 떼어놓자. 그런 마인드 안 가지면 변화가 없다. 원래 하던 거 다 하면 다른 무얼 할 수 있나. 그것만이 노동운동 아니라고 의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방향이 설정 안 되어 있으면 100의 힘을 우리를 위해서 결국 쓰게 되는 것이다.
- 권역별 실천에서 풍부하게 논의해서 방향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막연하니까 봉사활동 얘기하는데 그건 가장 낮은 단계다. 조직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 일단 기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낼 수 있겠나. 우리는 당장 그런 결의할 논의 수준 안 된다.
- 지부 임대를 앞두고 사업계획이나 공동요구안, 실천투쟁 큰 틀을 논의하는데, 무한정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첫째는 기초, 둘째는 지부의 구체 사업, 셋째는 실천 투쟁으로 제출된 안에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부 투쟁계획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부 사업도 큰 투쟁계획도 필요하고, 단위사업장에서 지부사업과 관련지어 현안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결합되면 매 주 매 월 뽀뽀한 일정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자료에 충실해서 압축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뜻은 빗발치는데 지부 자체가 사업 방향을 그렇게 안 잡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 설문 결과 분석도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 있을 것 같다. 계량화 된 통계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머지 항목들은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물음은 별로 없다. 노조의 이미지에 관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배부른 집단이라는 답변을 한 조합원들의 본뜻은 무엇일까? 금속노조에 관한 얘기인지, 지부 또는 지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조합활동 하는 간부들의 잘못된 활동에 대한 반감의 표현인지. 왜 이런 마음을 갖느냐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어야 한다. 밑에 보면 조합 활동방식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답변도 쉽게 이해해버릴 수도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고민 많이 된다. 시대에 맞는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단적으로만 분석하

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답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 조합원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논의하면 잘 안 될 것 같다.
- 노조가 이익집단이라는 이미지는 언론의 포장도 있겠지만 상당히 강한 인식이다. 집단교섭도 사업장 단협에서 하면서 1차 보호망을 쟁취하고, 집단교섭으로 한 번 더 강화하는 구조인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2중 3중으로 보호받는 사람들, 남의 얘기같은 이미지가 있다. 심지어 대각선 사업장도 집단교섭이 더 높은 단협을 따가는 과정에서 괴리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집단교섭이 너무 조직된 노동자 중심의 요구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과 함께하는 요구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공동지정병원같은 것도 정규직, 집단교섭 사업장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지역의 영세 사업장, 노인 등 취약계층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기금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힘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지역밀착 사업 어떻게 생각해본다.
-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이 맞다. 그 이익을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급의 이해로 어떻게 갈 거냐 고민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내 사업장, 나만 챙기는 건 안 되는 것이다.
- 기초는 잡았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김영호 지회장 의견을 받아서, 지부 예산의 30%, 단위사업장에서도 30%를 지역사업에 쓴다고 한다면? 아마 지부 사업비는 현재도 상당히 그런 상태일 것이다. 지역밀착사업을 뭐 할거냐 한다면. 화요실천, 신규사업장 지원 등 가장 낮은 수준의 선전전 봉사활동부터 신규사업장 지원투쟁,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예시를 두고 지부든 사업장이든 최대한 30%이상 쓰도록 하자. 구체 사업계획에 넣자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예산을 어디다 쓸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답답한 것이다. 예시를 주면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권역사업 할 때 우리끼리 뭉쳐서 노는 것 말고도 찾아보자. 안산의 경우 희망연대노조 사례 찾아보고 논의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 보자. 권역별로 선전전, 신규노조지원, 풀뿌리시민사회단체 연대, 봉사활동 등 중에서 한 가지 찾아서 하자. 3월 말까지 논의하고 찾아서 추진하자는 식으로 반영했으면 한다.
- 설문조사 관련. 올 해는 설문만 한 게 아니라 간담회도 했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동일하다. 내 노조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사회적으로 노조가 비치는 게 그렇다는 얘기가 많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 어려운 사람들의 이해를 담아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굉장히 중요한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그 속의 뜻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간부의 역할이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런 조합원들의 의견을 이견이 있다고 빼거나 참고만 하는 수준의 자료로 생각해선 안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노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SNS 활용 등 얘기하는데 지부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이동 중이다. 집회문화나 일상활동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케피코에서 등벽보에 엄청난 성토가 있었다. 공장을 멈춰 총반격. 그런 표현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냐. 디자인도 세련되게, 메시지가 담긴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집회 할 때도 차선같은 걸로 실갱이 하는 거 무의미한 지랄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억을 내는 것보다 그 돈으로 광고하는 게 낫다. 그런 집회를 할 바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인도에서 늘어서 조용히 피켓들고 서있는 게 더 효과 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문제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사업과 투쟁에서 받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간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단순화시키면, SJM 지회장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것 말고 그 외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

자.

- 미조직사업은 지역공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회의 전도는 교회 조직사업이지 지역사업이 아니지 않나.
-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사업 하나 한다든지 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에 인력을 배치하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역별 실천과 사업장에서 반드시 노조사업 넘어서 사업을, 미조직, 선전전 넘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자. 하나씩 그런 사업을 정해서 집행해보자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아직 얘기하지 못한 것이다.
- 올 해는 준비하는 해로 만들어보자. 조합원들은 의견 냈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고 준비 안 되어 있다. 금속노조 15년의 관행을 넘어서는 것, 설문 결과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
-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긴 무리다. 그럴만한 고민도 짧았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조합원의 의견 존중해야 하는데, 심층적 분석 필요하다. 지역밀착 얘기하면서 민감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 끝전폐기 해서 장학금 준다고 한다면 '왜 1등에게만 장학금을 주느냐?'하는 고민에서 다른 실천을 출발할 수 있다. 지역진보연론과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함께 해야 할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는 것. 관에 물어보면 장학금 줄 학생 금방 선택한다.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두원정공 자녀는 배제하는 걸로 잡았다. 조합원의 공감이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지부가 1년에 한 번 임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을 얻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꾸준히 운영과정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토론을 거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발전전망팀도 만든 거라고 본다. 올 해 사업에서는 그런 논의를 권역별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로 정리하고 임단협 논의로 가자.
- 임단협 논의와 이어지는 것 같다. 집단교섭에서 사회공헌기금 회사한테 요구하는데, 조합원들에게도 끝전폐기 등 결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기금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조성된 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역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논의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업계획 나오고 동의되면 돈 걷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돈 모아놓고 얘기하려고 하니 진전이 안 되는 것. 힘도 잘 안 받고.
- 권리함께 확산사업. 권역별 사업에 내용 많다. 그런데 사업들이 계속 겹친다. 경기지부도 공단조직화, 도본부도 하고, 일반노조도 하고, 사회단체도 있고. 반월시화 공단은 어마어마한데, 정말 많은 토론 필요할 듯하다. 각자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폭넓게 고민하고 길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다.
- 그래서 최대한 시지부와 결합할 수 있는 곳은 시지부와 같이 하고, 거기에 단체들도 붙고 그렇게. 미조직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운동 살리기 위한 자원을 모아내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 장학금 얼마 준다고 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할 사람을 모아내고 힘을 만들어가는 것에 의미 있다.
- 여러 단체들이 각자 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 10년 했는데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 24일에 반월시화공단 조직화사업단에 말씀하신 단위들이 다 모여서 3월부터 시작할 것을 논의했다. 아마 단위별로 흩어져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안 되는 데 탓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하자.

- 준비하는 해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수세적으로 하는 표현 아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무궁무진한 제안 거리 있지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실험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조합원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획을 만들어보자. 마음 가는데 돈도 간다. 돈만 있으면 은행도 만들 수 있다.

[집단교섭요구안]

- 1번 요구안. 사회공헌기금 만들어낸다면, 나중에 문구 하나 더 넣기 힘들다. 처음부터 안 잘 만들어야 한다. 노사협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한다.
- 1번 요구안 안 갖고 갔으면 한다.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들이 지부 채용간부에 주는 돈도 안 내는 사업장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논란만 많을 수 있다.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한다고 이미지가 개선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올 해 임금 집중하고, 하이디스 투쟁과 총파업 등 큰 투쟁이 기획되고 있는데 그에 집중해서 투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단협위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안인데.
- 임금만 가져가는데 찬성이다
- 집단교섭은 8개 사업장만 해당된다. 수준이 높아서 신규지회 만들어서 경기지부 집단교섭 받는 자본은 없을 거다. 거기에 더 계속 갖다 넣으면 확장될까. 더 많은 사업장들이 산별정신에 입각하면 포괄되어야 하는데 높고 축소되고 있다고 본다. 올 해는 임금밖에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여름 휴가 전에 끝내야 한다. 집행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요구보다 슬림하게 썬박하게 투쟁하는 게 낫다고 본다.
- 쉽게 생각했음 좋겠다. 안으로 낸다고 다 따는 것도 아닌데. 사무장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자르지 말자. 맡겼으면 결정적 결함 아니면 받아 안아야 한다. 열심히 싸워서 안 되면 우리 실력이고,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교섭과정 속에서 조율할 수 있다.
- 어렵다고 시도조차 안 하면 안 된다고 본다. 대각선 사업장도 요구 같이 하고, 못 따내면 지회에서 견어서 내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좋겠다.
- 사회공헌기금과 채용간부임금 결부는 맞지 않고, 임금을 양보했으면 한다. 솔직히 채용간부는 경기지부가 임금 줘야된다. 아예 그걸 양보하고 대신 사회공헌기금 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사용자가 당연히 내야할 돈이다. 조합활동도 회사 운영의 한 부분
- 지역에 나가서 뭘 할거냐. 정치와 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적인 단체나 정당들과 연대하고 정치세력화 그 방향으로 가서 힘을 키워야지 막연하게 이미지 정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헌기금 고민 많이 했지만 집단교섭의 발전과정이나 사업장 현황을 봤을 때, 올 해 과감하게 빼고 있는 투쟁에 집중했으면 한다.
- 어느 한 해 중요한 과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이유 없이 자르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한다.
- 절차상으로도 그렇다. 단협위에서 논의했으면 운영위는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다. 삭제하자고 한다면 대대가 있으니 대대에서 논쟁을 하는 게 옳다. 나도 이 안에 반대하지만 삭제하자는 의견은 아니다. 단협위원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면 수정 보완이 우리 역할이다. 대대에서 제대로 브리핑하고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그게 맞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솔직히 이 사항은 케피코도 상당히 거부감 표시할 것이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더 걸으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회사는 둘 중의 하나는 안 하자고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지부 공동요구안으로서 올라가는 것은 합당하다.
- 이왕 뜯어낼 거면 조합원만 말고 전 사원으로 하자.
- 단협위에서도 그런 의견 있었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적은 경우 자기 조합원 숫자도 강제하기 쉽지 않는데 전 직원으로 하면 반발이 클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했다.
- 1번 요구안의 3번 항, 노사합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요구안 논의를 마무리짓자.

보고 3.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결과

<첨부 자료>

- 2015 순회잡담 “노조의 향기”(안산권 1, 평택안성권, 안양권, 안산권2)
- 지부 발전전망을 위한 정책토론회(1~2차, 지역지회 간담회)
- 관계진단사업 보고

1. 2015 순회잡담 “노조의 향기”

○ 기획안

순회잡담 “노조의 향기”

1. 왜 하나구요?

-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노조의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노조조직물은 바닥인데 민주화시대에 탄생한 민주노조에 대한 지지도 낮습니다. 알바노동에 찢리기 일쑤고 취업도 힘든 상황에서 노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반노조정서를 확산시켜온 정권과 자본의 기획을 넘어 노조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노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30년 전의 민주화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점 필요한 노조, 우리가 만들 노조의 향기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 논의를 모아 경기지부가 만들 구체적인 노조의 향기를 찾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간부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개발, 진행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여름간부캠프로 까지 발전시켜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하려고요.

- 333 방식입니다.
 - 참가자가 셋 : 각 사업장 중책경험자+현재 젊은 간부+젊은 조합원 각 1명 이상씩 초청
 - 진행내용 셋 : 주제던지기, 말하기, 모으기 3단계로 세 가지에 대한 자유로운 잡담

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노조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느낄까요?

②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노조로부터 어떤 향기를 원하는가?

③ 좋은 향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 완료시점 셋 : 간담회를 1차로 종료하는 것이 올 3월 임시대의원 대회까지

○ 권역별로 잡담을 합니다.

1/20 : 안산권1(에스제이엠, 우창, 포레시아)

1/27 : 평택안성권(용인)

2/3 : 안양권

2/10 : 안산권2(대원산업안산, 계양, 인지, 화성+3M)

○ 잡담하기 좋은 자리에서 합니다.

- 회의실에서 하면 딱딱하고 그냥하면 싱숭생숭하니 밥과 반주 약간 곁들여서 합니다.

- 비용은 지부가 씁니다.

○ 잡담하기 좋은 시간에 합니다.

- 퇴근하고 6시쯤이 좋겠네요.(권역별로 사업장 조건에 따라 약간 조정 가능)

3. 이걸 미리 준비해 주세요.

○ 해당사업장은 참가자를 미리 섭외해 주세요.

○ 초청하는 조합원에게는 미리 내용을 알려주세요(지금 이 자료)

○ 초청받은 조합원과 간부는 미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위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꼭 미리 물어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 해당권역에서는 잡담하기 좋은 장소를 미리 생각하고 추천해 주세요.(필요시 시간 조정도)

○ 간담회 진행시 사업장 교선담당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간조정이나 장소확정, 기타 문의사항은 지부교선부장에게 연락주세요.(010-8992-9177)

“우주에게나 노조가 필요하다”

다만 노조의 매력속 모르거나 만들 흥기나 수단이 없속 뿐.

임의 노력이 노조의 향기를 만들어

개나 소나 노조하는

노동권 활짝 핀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잡담 2015 “노조의 향기” – 안산 1 결과



□ 일시 : 2015년 1월 20일(화) 18:00

□ 장소 : 안산 ‘오후8시 피그타임’

□ 참석 : 지부(수석, 교선, 총무), 우창정기(박종삼 대의원, 김완수 대의원, 박정호 조합원, 문오성 교선) 에스제이엠(조호준 교선, 임정석 정책, 유상근 조합원 외 추가 결합) 포레시아(구선희, 황수현) 등 15명 참가.

1. 진행

- 취지관련 설명자료 배포
- 참가자 인사
- 지부 수석 인사말
- 지부교선 진행 설명
- 각 테이블 논의
- 각 테이블 별 1인 핵심키워드 및 건배사
- 종료

2. 논의 내용

○ 여는 얘기

- 노조활동에 대해 가족에게 가장 지지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지받는 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포레시아의 황수현 동지가 아닐까. 어머니로부터의 지지가 상당했다. 관련해서 포레시아 사무국장 이 좀 설명을....
- 가족으로부터 가장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노동운동가 되려면 가정을 꾸리지 마라는 얘기를 선배들이 하던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누가 해 주시죠?
- 결혼도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할 텐데....누가 있을지...

- 생활에 부딪치고 가족과 부딪치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석하셨고 이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서서 말하는 것도 아닐 듯 하니 그럼 각 테이블 별로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해서 모으는 방식으로 하자.

○ 테이블 1

- 8년 전 노조 있는 회사에 들어오라 하니 싫었다.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서다. 그러다 다니던 회사가 안 좋게 되어서 들어왔다. 형이 있는 회사인데 와서 보니 모르는 거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인권이 생겼다. 형제들 4명이 노조활동을 한다. 내 경험이나 친구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노조는 느껴봐야 한다”는 것이다.
- 해고투쟁하면서 친구나 주변에 얘기하지 않았다. 승소하고 나서 주변에 얘기했다.
- 노조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 거냐
- 그건 아니다. 노조가 아니라 해고된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승소한 다음에 알렸다. 친구들이나 주변은 금속노조 하면 “강성”이라는 생각을 한다.
- 내가 노조하기 전에 나도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은 깡패라고 생각했다.
- 내 친구는 새누리당 지지다. 정치얘기하면 병 날아다닌다. 그래서 서로 정치얘기 하지말자고 한다. 그러나 노조에 대해 어려운 곳에서 외치는 그런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친구들에게 쟁차에 대해 얘기하면 무슨 일인지 모른다. 일단 모르니까 얘기하기 어렵다.
- 주변에 주 5일 근무얘기하면서 그거 노조가 시작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금속노조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생각한다.
- 사람들은 주5일 근무는 그냥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한다. 노조가 투쟁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우리 친구들 모임하면 내가 장소 준비한다. 내가 노조가 있어서 장시간 노동하지 않고 주5일 근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친구들에게 주5일 근무나 월차개념도 설명해 주고 그래야 친구들은 알게 된다.
- 그래도 이겼으니 얘기할 수 있다. 해고자 대법원에서 이겼으니까. 직장폐쇄에도 이겼으니까
- 이긴 효과가 좋다. 7.27 효과 30년 간다. 여친이 농성이나 뭐 할 때 “왜 하냐”고 물으면 7.27 영상 보지 않았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 해!”라고 하더라. ㅎㅎ
- 왜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노조 이미지 개선을 원했을까
- 시골어른들은 빨갱이 이미지를 떠올린다. 고향친구들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언론과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 “나는 노조 경험해보니 좋다. 주변은 언론교육 영향 받고 경험도 없어서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그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뭘 해야 하는 거냐. “노조 경험해 봤냐? 안해 봤으면 말을 하지 마!??”
- 나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겨내고 뭉쳐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 금속노조가 예쁜 배우 내세워 광고를 하면 이미지가 좋아질까?
- 자본방식으로 가면 딸리는 것 아니냐
- 해고투쟁하면서 서러움도 솔직히 있었다. 주목받는 투쟁도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을 경우 느낀다.
- 낮은 곳에, 낮은 목소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 에스제이엠의 노력도 좋지 않냐?
- 투쟁 후에 기금을 만들어 매노에 투자하고 유성, kec, 발레오, 골든브릿지 채권, 하이디스, 쌍차, 티브로드채권, 재능, 사회적 파업기금지원, 안산시민단체인 희망재단에 기부 등을 했다.
- 그런 노력도 노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향기를 만들어 내는 실천이 아니겠냐.
- 담을 넘어가야 한다.
- 산업을 넘어서면 노동자들끼리 제조, 교육, 금융, 공공업무 등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적 힘이 있다. 이런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같다.
- 담 안에서 막힌 곳도 있는 것 같다. 탈퇴하고 복수노조 만들어지고 소수 노조되고....
- 지부집단교섭 요구에 대해 사회공헌기금도 나오는 것 같더라
- 전에 탁아소 얘기하다가 합의해 놓고도 유아무야 된 것 아니냐
- 사회공헌도 광고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에서부터 노조의 이미지를 바꾸자는 취지 아니겠는가.
-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바뀔 거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
- 세월호등 실천을 했다.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노조가 아니라.
- 운동을 생각했다. 산업별로 모인다. 지역은 산업을 넘어야 한다.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업을 강화하자는 것은 바로 이웃들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예전에 먼 친척(산별)만이 아니라 이웃사촌(지역)에 신경쓰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 뭘 하더라도 민주노총 차원에서 “웅장하게 하자” 한번이라도 제대로 확 웅장하게 하면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바뀌지 않겠는가
- 노조의 향기는 연대의 향기가 아닐까. 나도 예전에 왜 우리사업장만 연대투쟁에 많이 가냐는 불만을 가졌다. 그런데 7.27 경험하니 연대를 많이 간 만큼 많이 오더라. 연대는 느끼는 것이다. 와 소중하구나 하고....신입조합원들은 느끼지 못하니 왜 우리만 많이 가는 거냐고 하더라.

○ 테이블 2

- 노조의 이미지 주변에서 어떻다고 생각하나.
- 우창에 최근 탈퇴한 조합원 생각에게 들었다. 처음에는 종교적 이유로 탈퇴한다고 했는데 더 들어보니 노조가 정치적이고 투쟁적이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교육 선전 잘 해야 한다.
- 우창에 노총각 조합원에게 물었다. 그의 누나는 필요성은 아니까 나쁘게는 안 본다고 한다. 그런데 연령에 따라 보는 시각 다르다. 부모님은 자식이 한다면 걱정부터 한다. 노총각 조합원은 집회 참석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노조가 독거노인 돕는 거 하면 그런 곳은 가고 싶다고 한다.
- 서울에서 닥트사업하는 친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생명인데 집회 간다고 길 막으면 이미 지 좋다가도 화가 난다고 한다. 왜 꼭 그런 방식으로 집회를 해야 하나, 누군가는 생계가 달려있는데.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필요한 건 알지만 불편 끼치면 싫어진다는 것이다.
- 그래도 집회하면서 박수 받은 경험 있지 않나. 사람들이 공감하는 투쟁을 하면 또 다른 것 같다.
- 삼성 다니는 고등학교 절친은 노조 얘기하면 ‘그러면 회사 망하지 않냐. 안 찢리냐’ 물어본다. 자영업 하는 친구 쪽은 보수적이다. 자기 위치에 따라 느끼는 것 다른 듯하다. 내 앞에서

노동조합 욕은 못 하고 노조 적당히 해라 한다. 그래도 많이 부러워한다. 친구들이 산재, 임금 등 많이 상담한다. 나는 친구들 밴드에 광고한다. 문제있으면 연락해 해결해줄게. 시골에 버스기사하는 친구가 최저임금 상담을 한 적도 있다.

-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 만하니까 그런다"고 한다. 자기랑 상관없어도 싫어한다.
- 노조나 진보 쪽은 내 거 빼앗아가는 사람 이미지가 있는 거 같다.
- 와이프가 이랜드 해고자다. 마트에서 최저임금받고 일 한다. 아내 앞에서 노조얘기 잘 안 해. 소외감 느낄까봐. 어찌다 얘기하면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비정규직 신경 써봤나 좀 써라 함
- 지엠하청 다니는 친구는 "너네는 노조가 있어 울타리가 있지만 우리는 없다. 니들은 니들 앞가림만 한다."고 한다. 자기 지회만 관심 있지 약자에 관심 없는 것 같다. 말로만 비정규직 얘기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 얘기 공감 어렵고 다 자기 잇속만 챙기지 않나.
- 노동조합이 보수화되는 현실이 있다. 먹고살기 힘들니까 더 그런 것 같다. 노동조합이 그 틀을 깨고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 조직율 10%도 안 된다. 있는 사업장 간부 조직도 힘들다.
- 노조에 대한 사람들 심정은 부러워하면서 만들지는 못 하고 감정은 나쁜 것 같다.
- 쉬는 날이 많다. 유급으로 쉰다. 그걸 제일 부러워한다.
- 강성 이미지 완전 썩다. 교육의 효과가 크다.
- 교섭위원이어서 선전전 많이 했다. 받기만 하고 보는 사람 거의 없다.
- 연대 집회나 노조가 만드는 모임이 많이 없어졌다. 집회가 재미있거나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가봐야 알고 느끼고 서로 어울리는데.
- 직장폐쇄 겪으며 느낀 것. 노조가 지역에서 고립되면 답이 없다.
- 대중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있으면 하면 좋을 거 같다. 노조가 이런 것도 하는 구나 느낄 수 있는
- 자본이 좀 돈이 되고 간부들이 희생만 할 수 있다면 독거노인 연탄 봉사 같은 것도 해 볼만 하다.
- 안산은 노조 많아 의기투합만 되면 할 수 있을 거 같다. 노동조합 살 길 그것밖에 없다.
- 봉사활동 같은 거는 자기 배부르니까 한다는 재수없는 느낌도 좀 있지 않나.
- 일회성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한다.
- 노조 이미지 바뀌면 에스제이엠처럼 치고 들어올 수 없을 거 같다.
- 노조 부정성보다 긍정성 많은 조직이다. 긍정성을 확대해야 한다. 긍정적 측면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요즘 노조법 개악 문제도 간부들만 안다.
- 우리가 직접 봉사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시청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 도 있다.
- 봉사 말고 지역 모임에 나가는 게 더 좋은 거 같다. 에스제이엠 사례처럼 자기 사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 회사선 간부지만 퇴근하면 다 일반 시민이다.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겠나. 세월호 실천에서 많이 느꼈다.
- 밖으로 나가야되는 건 적극 동의한다. 사회적 호응이 중요하다. 우리만의 리그 안 된다.
- 우리 간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규노조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 그것도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니 한다.
- 귀족노조라는 이미지 바꾸기 참 힘들다.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되니까 더 그렇다.
- 우창 한일이화 옆이니까 우창이 보기엔 한일이화 재네도 귀족노조야.
- 우리는 정말 특수계층이다. 돈만 만이 받는 귀족 아니고 다른 거로 귀족해야지. 클라스!!

- 자율방법대 전면 포진하면 어떨까. 간부들의 희생이 많이 필요하겠다. 자율방법대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
- 집안에 애경사가 있으면 내 손님이 제일 많다. 구성도 다양하다. 끝까지 남아 책임져준다. 품앗이만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 동지애와 정으로 같이 해준다. 형님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 칠순 때도 그에게 제일 큰 힘이였다. 우리에게 그런 남다른 게 있다.
- 입주자대표, 동대표 이런 활동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다. 노조 한 사람은 일도 잘 한다. 세월호 투쟁 때 많은 걸 할 수 있었다.
- 현대케피코가 회사와 군포시와 한다는 저소득층 자녀 오케스트라지원 사례 좋다.
-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이미지 세다. 노동조합의 정당성만 얘기하지 말고 감동이 필요하다. 우리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
- 미래세대를 위한 운동 어떨까. 자식이 노동조합 만들 수 있게 해본다면? 내가 권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다. 요즘 젊은이들 보수적 이기적이다.
- 젊은 사람들 느낌은 노조는 너무 거리가 멀어 잘 모른다. 모르니까 기대도 없다. 노조를 가까이 느끼기 위해 필요한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친근감과 자신감을 주는 노조의 활동이라고 한다.
- 자기가 안 겪어보면 알기 어려운 듯.
- 안전권 사업장은 자기 사업장만 말고 주변 사업장 많이 신경 썼음 좋겠다.
- 가정에 충실 못하니까 노조 이미지 안 좋다. ㅋㅋ

○ 테이블 3

- 민주노총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 노조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다
- 노조에 대한 인식에 언론 영향이 크다.
- 노조는 인정하되 내면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집회를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식이다.
- 노동절 집회의 방식을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해서 진행보았으면 좋겠다.
- 최저임금 투쟁 대차게 한번 하자. 비정규직 투쟁 이주노동자 투쟁 이런 것 대차게 하자.
- 노조의 집회나 선전전의 의미를 일반사회에게 쉽고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에서 힘들면 해외에서라도 알아보자
- 가족들이 처음에는 지원이 많이 해 주었다.
- 노동자 스스로가 필요할 때에 노동자의 역할을 해왔는가? 스스로의 역할이 부족했다.
- 노동자의 방송을 만들어 보자.
- 울산지역은 노동자 라디오 방송이 있다더라
- 지역노동자 신문을 만들자

- 조합원의 의식부터 정비를 하자
- 반월 시화공단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 화요일철을 토요일 주말에 진행해서 노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알리자.

○ 정리

- 오늘 나온 얘기들은 그대로 정리해서 공유하겠다.
- 이렇게 간담회 해서 나온 얘기들을 꼭 제대로 실천해 주었으면 한다.
- 처음 해보니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 같다. 장소도 옆에 손님들 있으니 좀 시끄럽고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걸 준비하면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다음은 평택지역인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 공식 일정 종료, 남은 분들 2차 뒤풀이 자체적으로 진행함.

<끝>

잡담 2015 “노조의 향기” - 평택안성(용인) 결과



□ 일시 : 2015년 1월 27일(화) 18:00

□ 장소 : 평택역 인근 식당 ‘축산대가’

□ 참석 : 지부(수석, 원부, 교선, 총무) 평택안성지역 지회분회 간부 및 조합원(계양천안 6, 두원정공 3, 대원평택3, 대한솔루션2, 르그랑코리아3, 우리지회3, 현대위아비정규직2) 민주노총 평안지부 등 총 27명

○ 진행 설명(지부교선부장)

- 예상보다 많은 인원 참가, 많은 분들 모인 걸 보니 집회를 해도 되겠다. 논의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먼저 배고픈데 좀 드시고, 각자 나눠드린 세 가지 주제(나 또는 우리 주변은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조에 원하는 향기는, 좋은 향기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에 대해 딱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 두셨다가 인사를 쪽 돌아가면서 할 때 간단히 인사하고 자신이 생각한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단어에 대한 그룹논의를 해서 가장 남기고 싶은 상징적 얘기나 단어를 정해서 소개하고 건배하면서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하자.

○ 박주문 지부수석 여는 말

- 평택안성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다. 노조의 향기를 위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면서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함께 고민하면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많이 참가해서 부담도 되지만 일단 다른 것을 떠나서 분위기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 서로 나누는 잡담들

-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참 노력한 분이 있다. 먼저 이 분의 건배제안에 이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자. 박수로 맞아 달라.

- 금속노조에 대한 주변 반응은 “부럽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신”해 달라고 주문한다. “자원봉사”를 많이 했으면 한다.

-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20대 있나요?
- 저요. 액면으로 전 20대
- 좋습니다. 속고 보죠. 계양 천안 동지.
- 저는 물음표, 그만, 혁신 세 가지 단어를 제시한다. 노조가 뭔지 요즘은 학생운동도 안하고 그래서 잘 모른다. 안하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물음표다. “그만”은 언론에서 하도 때리니까 정도껏 해라는 얘기다. 혁신은 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조가 있고 규모도 있으면 이기적인 것보다 홍보를 해서 이미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0대는 좀 아니고, 진짜 이 자리에서 가장 젊은 현대위아 비정규직 지회 동지 얘기를 듣자.
- 저는 과격폭력 빨갱이, 희망, 사회적 봉사활동이다. 친한 친구하고 노조얘기로 싸웠다. 노조+ 과격한 빨갱이라고 해서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절교했다. 우리 같은 비정규직이 살기위한 폭력을 불가피하게 쓸 때 있고 비정규직은 노조가 있어야 희망이다. 노조의 향기를 위해서는 사회적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제일 나이 많은 분은 누구일까? 르그랑코리아 지회....
- 이기주의, 홍보, 전담을 생각했다. 노조하면 자기밥그릇만 챙긴다는 이기적인 이미지다. 약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수언론 노조를 헐뜯는데 민주노총에서 홍보부서를 두어서 잘하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우리도 홍보전담을 두어서 노동자 방식의 언론플레이를 하자는 것이다.
- 질문이 있다. 선전하는데 보지 않으면 의미 없다. 힘줘서 써 봤자 안보면 끝이다. 어떻게 했으면 잘 보게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다.
- 음, 질문은 일단 나중에 하시고 진행하자.
- 저는 가족, 가족, 가족이다. 친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해서 부끄럽다. 가장 가까운데서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선배들 얘기와 경험들만 가지고 신규조합원 잘 안되더라, 신입조합원들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고 한다. 후배들은 관심이 없고 선배들은 후배들 눈 밖에 아는 행동과 얘기를 한다.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 간단히 얘기하겠다. 저는 식상, 따뜻함, 긍정의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싶다.
- 저는 첫 번째는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두 번째는 호응, 세 번째는 형식에 얽매지 말자는 것이다. 형식에 얽매니까 강성이란 얘기를 듣는다.
- 저는 패거리와 퇴폐라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했다.
- 노조가 왜 필요할까, 시청에 갔다가 노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미친놈”이라는 생각을 하는 반응을 보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호소하는 내용 필요하다. 알리는 내용이 필요하다.
- 이 자리에 오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자는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세 가지 주제로 딱 정해서 얘기하려니 어렵다. 주변에서 “귀족”소리를 듣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니 흔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 저는 깡패, 깡패에게 뭘 기대?, 그리고 ‘함께’를 생각했다. 함께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친구 중에 용역도 있는데 금속노조는 강해서 안가려 한다. 노조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 주변사람들은 노조에 “따뜻함”을 원하는 것 같다. 노조가 장을 열어 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요즘 서울 집회 가면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느꼈다. 나약한 노조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투쟁, 투쟁을 하되 공감할 수 있는 투쟁을 바라는 것 같다. 그리고 “생활밀착”을 얘기하고 싶다. 생활속에서 삶속에서 향기가 묻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끼입고 명찰차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같이 탄 아주머

니가 무서워하더라. 생활속에서 향기가 묻어나야 한다.

- 노조하면 우리 현장에서 회사는 “고소고발의 황제”다. 저는 “하나의 노조”를 기대한다. 복수노조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생활정치”가 필요하다. 아파트 동대표도 하면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저는 “내 밥그릇”, “동행”, “봉사”라는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싶다.

- 너는 왜 그렇게 사냐는 얘기도 들었다. 노조하면 종북=빨갱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나 대우받으려면 할 말 해야 한다. “대우받기 위해 할 말하는”노조를 원한다고 본다. “연대와 투쟁”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부담이 되지만 “주관적 환경”을 말하고 싶다. 주변에서 노조에 대해 부러움도 있고 자기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믿기 위해서 우리끼리는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 대변인, 가족, ING를 얘기하고 싶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C발, X갈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노조가 생기니 이젠 노조를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된다. 저는 노조가 가족 같아야 한다고 본다. ‘사랑냄새’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경사도 같이 챙기고, ING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우리 현장에서는 생일자 파티를 했다. 조직화를 하고 활발하게 노조활동을 진행 중이다.

- 친구하고 노조얘기하면 술 먹을 때 마다 싸웠다. 진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다. 그렇게 하던 친구 중에 노조 만든 사람도 있다. 두 번째로는 부드러움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부에서 커피도 나눠주고 지회장들 간부들 나와서 춤도 추지 않았나, 지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상을 심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주위에서 지인들에게 조합에서 하는 것, 정치사회적으로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를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인가 지부에서도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커피타임이나 간부들 춤추고 다가는 것이 제 주위 사람들에게겐 관심이 있었고 반응이 있더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저는 첫 번째로는 “지들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과 함께 “부럽다”는 주변 반응을 떠올린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변해야 한다. 친구를 보면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의식이 많다. 상품권 찢러주면 일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다. 세 번째로는 노동자와 서민 동료가 함께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널리 펼쳐야 한다.

- 첫째로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이미지”다. 둘째로는 울타리를 넘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두원정공지회에서도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을 고민하는데 사회봉사나 규칙적인 시민선전전을 해야 한다.

-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한다. 노조 없으니 고용불안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노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한다. 그러면 짜증난다. 노조가 있으니 우리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고용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음 생각이 만나서 노래를 하겠다. (근데 노래도 생각이 만나...ㅋ 일단 미루고)

- 남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 봤다. 일단 노조에 대해서는 모른다. 경험이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친근감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노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 세상 같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친근감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친도 노조를 만들고 싶어 한다.



- 자 다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제 두 테이블씩 묶어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노조의 향기를 위해 오늘 꼭 남기고 싶은 키워드 하나씩을 선정하는 논의를 해 달라, 그리고 한사람이 발표하고 건배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각 테이블 별 논의>

(신입조합원 교육은 옛날 고참들 무용담 얘기로 해선 안되더라 이젠 젊은 층과 호흡할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 신입조합원이 간부에게 얼마를 주면 친구를 입사시켜 줄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것 보니 노조에 대한 생각이 영 판판으로 박혀 있다는 얘기. 차기 경기지부장은 니가 해라 런닝메이트 짜자, 평택안성지역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자주 모이게 하자, 평택안성지역이 새로 뜨는 지역이니 푹푹 뭉치면 될 일 낼 수 있지 않냐. 노조의 향기를 얘기하려면 아예 이런 만남도 다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알콜 냄새나 노조하는 사람들만 담배냄새 풍긴다, 주제도 내용도 색다르게 가져가듯이 간부만이 아니라 사업장을 넘어서 이렇게 만나되 장소를 다르게 하는 것, 삼겹살 먹으면서 하니 약간 어수선 하니 색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만남을 이번만으로 끝내지 말고 쪽 이어가 달라, 고기냄새나 알콜냄새는 현장사람들에게 켈 익숙하다, 아니다 우리도 다른 자리에서 진짜 다른 향기를 풍기면서 만날 수 있으니 그런 것 고민해 달라...등)

- 자 이제 각 테이블별 키워드를 발표해 달라

- 우리는 “깨자”다. 재판기 노조가 되어서 임금이나 복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조합원들의 생각을 깨야 노조의 향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깨자는 것이다.

< ‘깨자’팀의 논의 내용>

(☆ 그냥 대중적인 거, 봉사활동이나 연예인 나오는 집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늘 외치는 우리 구호, 등에 붙이고 다니는 거. 그렇게 노조가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 노조가 노조답게 싸워야 인정받는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우리지회 앞에서 했던 지부 파업이 가장 우리답지 않았나 생각한다. 교육, 학습공간 만들지 못하니 조합원들이 노동에 찌들어 밀리는 것 같다. 교육과 학습, 토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전체 노동자의 공동사안, 최저임금 같은 걸로 판을 잘 짜는 고민이 필요하다. vs 최저임금, 전체 요구 되기 힘들다. 노동시간이나 고용형태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포승공단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업장 있는지 모르겠다.

☆ 생활정치, 나가서 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아주머니와 인사하고 관계맺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 연말정산 같은 이슈에서 금속도 떠들었으면 좋았을텐데.

☆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

☆ 노조의 원래 목적은 고용보장이나 차별에 대한 반대, 인간답게 사는 것 그런 건데 요즘 조합원들은 이익과 요구 외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향기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깨트려야 향기나는 사업 할 수 있다.

☆ 대한솔루션은 조합원 늘어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노동자들이 더 잘 하는 노조를 원했고, 손해 볼 거 같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용의 비린내가 싫어서 온 것 같다.)

- 우린 “피부로 느끼는 운명적 관계”다. 노조는 피부로 느껴야 한다. 주변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활동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우리의 운명이다. 운명처럼 다가왔고 노조를 통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노조를 하면서 경험자는 관계를 통해 조직해야 한다. 그래서 피부, 운명, 관계를 얘기한 것이다.

- 우린 “만남”이다. 투쟁이든 뭐든 만남에서 시작한다. 오늘처럼 이렇게 만나야 시작된다. (얼큰한 모



지회 문화부장 노래는 못 듣고 같은 테이블 네 명이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다 가사 몰라 중단)

- 간부중심의 대빵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대빵이 아니어도 만나게 하는 자리가 참 좋다. 이렇게 만나니 다음에 집회 가더라도 여기서 만난 이 친구보고 인사도 다르게 하지 않겠냐, 이런 자리 참 좋다. 이것이 지역, 조직, 연대 뭐 그런 것을 강화하는 만남이 아니겠는가.

- 전체가 노래 한 곡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구호?

- 노조의 향기를 얘기한 마당에 그런 냄새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하자.

- 그러자. (마무리)

잡담 2015 “노조의 향기” - 안양 결과



- 일시 : 2015. 2. 3일 18:00
- 장소 : 케피코 지회 인근 식당 “아리랑”
- 참석 : 주연테크지회(2명), 현대케피코지회(8명), 지부(수석, 교선)

○ 논의 내용

- 오늘은 세 번째 향기잡담입니다. 그동안 안산과 평택안성을 진행했는데 오늘 이곳은 두 개 지회가 참석하고 조출해서 오붓하게 얘기 할 수 있겠다.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단어를 떠올리고 지부수석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함께 자신이 떠올린 단어를 얘기합니다.

(식사)

- 지부수석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진행합니다. 노조의 향기를 얘기하는 취지는 아실 겁니다. 지부발전 전망같은 복잡한 토론은 아니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얘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 저는 권력, 믿음 혹은 귀기울임, 그리고 솔선을 떠올렸습니다. 권력은 노조에 대해 간부를 하게 되면 권력으로 다가서면 안될 것 같아요. 노조는 민주적이라 했습니다. 결정은 윗사람이 하면 안되고 권력으로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수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혹은 ‘귀기울임’이라고 하고 싶은데 친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들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선은 상대성이 있잖아요, 노조는 정부나 사측에게 무조건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노조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경기나 금속노조나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주간연속2교대도 하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노조가 저렇게 하는데 아닌 것 같다. 좋다고 생각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세 번째도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쌍차관련 그렇게 얘기 듣는데 강하다는 것이죠. 언론 영향도 있고 부모도 지인들도 친구들도 그래요. 제 또하는 언론이 노조를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이미지가 안좋죠. 쌍차투쟁을 보면서 그런 얘기 많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두 번째는 전국민 총파업 얘기하는데 저 조차 공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노조나 집행단위니까 그러겠지

만 평조합원이나 젊은 층은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세 번째는 소통을 많이 하고 나이를 떠나서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조직력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한데 상집회의서 미리 얘기하고 나오셨나요? 확실히 주제별로 잘 얘기를 해주셔서 미리 짜고 나왔던 심을 정도군요. 평상시에 회의를 충실히 하셨나 봅니다.)

- 노조 이미지와 관련해서 “저 사람들 왜그래”하는 과격한 이미지가 있어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케피코 10~20년 되면서 주변인식은 바뀌었어요. 처우와 조건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가족이나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니 바뀌었어요. 둘째로 뭘 기대하냐 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해 주겠지”미루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얻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늦게 대의원을 했었는데 나이먹고 소속대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생각하다가 대의원회의 끝날 때 마다 맨투맨으로 사람들을 봤어요. 처음에서는 “왜 이래”하다가 바뀌더라구요. 그게 소통의 일부죠. 대의원들이 그런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노조의 향기는 대의원활동과 문화적인 접근들입니다.

- 저는 앞에서 말씀 하신 분과 같아요. 소통하자고 했잖아요. 소통그거요. 조합원들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그런거요.

-(주연은 조합원이 많지 않아서 소통은 쉬울 거 같아요)

- 사소한 얘기들은 하죠. 그런데 스케줄, 노조의 스케줄은 간부중심으로 공유하죠. 물 밑까지 물 밑 얘기까지는 잘 안되죠.

- 저는 세 가지로 나누지 않고 얘기 할게요. 저조차도 이기주의가 있어요. 개인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닐까요. 자기 살기 바쁘지만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둘째로는 소통문제입니다. 저조차 옆상집간부하고 소통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공감이 중요한 거 같아요. 집회할 때, 조합원과 간부, 대의원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죠. 조합원은 “내가 왜 나가” 이런단 겁니다. 친한 친구에게 노조간



부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반응은 귀족노조라고 하죠. 저도 친구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인데 노숙농성하러가면 와이프가 이해안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 저는 일반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파업집회하면 다 현대차로 나오니까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잘 안나오니까 현대기아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뭘 또 요구하냐는 거죠. 제 어머니도 집회장면 텔레비전 보면 전화를 해요. 친구들은 언론 나오는 것 노조가 정부 까는 것만 나오니까 떼스면 주는 줄로 안다. 주변에서 뭘 원하는 거냐는 것이 두 번째인데 솔직히 원하는 것 없다. 노조 가입 안한 사람들은 노조가 ‘별 세계’다. 현대나 기아차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언론매체 안되면 지역사회에 나가야죠. 알바생들 전에 왔던데 편의점 알바들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다른 곳에서 이런 사람들 요구 안받는다고 해요. 알리자는 겁니다. 사회공헌이든 어려운 회사들 문제들 알리자는 겁니다. 까버리고 월급 못받는 것 알리자는 거죠. 언론에서는 너무 큰 회사들에 대해서만 떠들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회사들 얘기 알려야죠.

-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임자나 간부들은 사조직을 만들면 안됩니다. 통진당이 해산되었어요. 열명 국회의원 낼 때는 좋았는데 파벌싸움으로 분당되고 욕먹고 헌법재판소 결정나오고 했잖아요. 사조직 활동부터 없애야 합니다. 본인희생으로 노조하는 거죠. 권력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되고 자기 기득권을 버려야죠. 조합원들 위해 희생하는 것 아닌가요. 세 규합 말고 동부연합인가? 이런

조직 있는 것 문젠입니다. 통하면서 같이해야죠. 파벌싸움으로 노조가 욕을 먹는 것 같아요.

- 노조 솔직히 좋은 이미지 아니죠. 와이프도 조합활동 솔직히 싫어해요.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죠. 케피코 임금이 어느 정도 받으니까 더 요구하고 싸우면 “이제 적당히 해라” “그만 좀 하지” 그래요. 조합활동도 와이프 동의를 있어야죠. 가장 가까운 와이프부터 동의를 만들어야 해요. 현대 계열사 되면 솔직히 어느 정도 받아요. 그러니 주변에서 “그만해라” “적당히해라”고 해요.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향기를 원하나구요. 저는 처음에 노조도 향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노조 내부 조직싸움을 보면서 향기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통합 힘들고 하나가 안됩니다. 안에서 서로 싸우니까 멀리하고 싶고 했던 사람도 떠나고 싶고, 도망 다녀요. 어린 간부들 활동하면 서포트 해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모습을 배워야 하는데 아닌 거죠. 어느 정도 노조 활동 경험했던 고참들이 그런 모습 보여야 하는데 이쪽 발 담그면 저쪽에서 나쁘게 말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노조활동 도와달라고 하면 “이쪽 저쪽 다 못하겠다”고 해요. 한 때 나도 중립위치서 그런 적 있어요. 1세대 조합했던 분들 모범을 보여야죠. 좋은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향기가 날 수 있겠냐는 거죠. 선배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간절하다. 파벌싸움에 민주노총에서 안되면 소화기 뿌리고 민주노동당 찢어지고 현재 조합원들 설득하기 힘들어요. 민주노동당 처음 하나 되었을 때 하자고 하면 했는데 이제는 많이 떠났어요. 1세대가 한 목소리 내고 동생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 간부활동을 처음부터 해서 평조합원인 적이 없어요. 가족들이 다 조합활동을 해서 조합에 대해 좋게 얘기하죠. 왜 노조가 필요한지 설득하는 사람들이죠. 창원에 있을 때는 당연히 노조를 생각했는데 서울에 오니 서울이 노조활동 활발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더 열악한 곳 많아서 결속력 강한 줄 알았는데 “필요성 인식은 하지만 나는 하기 싫어”라는 거죠. 하면 피해자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서는 것을 싫어해요. 나서야 변하는데 나서기 싫고 하기 힘들어서 안하죠. 간부하면서 나도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데 안식년 있으면 나도 쉬고 싶죠. 이건 왜 그럴까? 조직에 문제 있는게 아닌가, 밑에서 받쳐줘야 하는데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것 같아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소통이 필요한데 한쪽 방향 소통인거죠. 필요한 부분만 듣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은 없지만 노조 이미지 변신 위해 노력을 많이 했으면... 지부에서 장미도 씌우고 향기도 얘기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건 조합원 내부이고 조합 벗어나 더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한다는 마음으로 노조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입히기 위해 노력해야죠. 경쟁사회를 살아가는데 경쟁에 물든 사람들에게 믿고 가자고 하면 안되죠. 신입사원 교육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하려고 하면 안되죠.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죠.

- (자 다들 얘기하신 것 같으니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담배한대 피우고)

(휴식)

- (이 대목에서 노조활동 하면서 좋았던 때와 나쁜 때에 대해 한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 현대케피코는 좋은 것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부침은 있었지만 크게 조직적 타격이 없이 성장해 왔고 그것에 일조했다는 것에서 좋은 느낌이다. 조금씩 나아져 왔다. 안 좋은 것은 예전 일 등(아마 성폭력 내부 논쟁 등) 지혜롭게 해소했어야 했는데 나도 그 격랑에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잘 될 거라 믿고 그렇게 가고 있다.

- 더 얘기하면 노조활동이 과거에는 큰 틀의 얘기였다. 노동해방이나 세상을 바꾸자는 얘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좋은 사례, 동화같은 좋은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미담들을 만들어야 한다. 목숨을 불사하는 노조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것 현

신은 옛날 방식이다.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노조가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남들 도울 때 행복할 수 있다.

- 아, 정리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지금 총파업 한다고 뺏지하고 등벽보 이게 뭐냐. 왜 이러냐. 이거 달고 다닐 수 있겠냐.

- 맞다. 이게 뭐냐. 총반격? 이 등벽보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냐. 아무 내용도 없다.

- 정세에 맞게 29% 대통령 물러나라고 차라리 하든지, 요즘 증세문제 같은 거 얘기하든지 사회적인 제 사회적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디자인도 이게 도대체

- 누가 이런 것에서 향기를 느끼겠느냐. 지부에서는 장미도 얘기하고 향기도 얘기하는데

- 차라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그래를 살리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쌍차 복직 얘기를 쓰든지 이런 디자인으로 하려면



- 누가 이런 등벽보 뺏지하고 지하철 타겠냐.

- 나는 하는데

- 혼자 이런 벽보하고 지하철 타겠냐고

- 이러니 과격, 빨갱이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냐고

- 하이디스지방문 갔을 때 우리지회장님도 좀 바꾸자고 제안하던데 왜 안바꾸는 건지

-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 까인다. 왜 이런 것부터 안바꾸냐. 경기지부는 그럼 따로 하든지 아니면 지부장이 금속노조에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

- (네 마지막에 열변들을 토하셨는데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강력히...이런 거침없는 의견 바로 향기 잡담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부수석의 마무리 발언을)

- (집회고 벌금 맞고, 집회는 계획적으로 하고 홍보도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발언하나 잘못해서 엄청 돈 날아갑니다. 금속노조 한 달에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으로 9천만원 1억이 날아갑니다. 차선 약간 비틀어서 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 돈 들일 바에는 차라리 시민들에게 좋은 접근 홍보를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붙을 거면 제대로 붙어서 뚫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들이죠. 효과는 없고 이미지는 까이고 벌금만 맞는 것, 이런 문제들 많이 고쳐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체계적으로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지막 건배를 하고 마치자.)

- 위아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높은 목표보다 낮은 목표를 잡아서 낮은 승리를 쌓으면 큰 승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낮은 승리를 위하여”

<끝>

잡담 2015 “노조의 향기” - 안산2 결과



- 일시 : 2015.2.10. 18:00
- 장소 : 안산 선부동 모 식당
- 참석 : 계양전기(3), 대원산업안산시화(4), 신한발브(3), 인지컨트롤스(3), 지부(2)

○ 잡담 내용

- 지부교선 : 취지와 진행방식 설명(세 가지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 두었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하자)
- 지부수석 : 우리는 벽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이디스도 우리의 가족이다. 하이디스 투쟁을 잘 하고 있다. 경기를 떠나, 금속과 전국차원에서 대만원정투쟁까지 확대하고 있다. 하이디스 관심 많다. 이잉크 자본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재 대만원론3개 라인 미래 전망을 고민한다고 하면서 흘리고 있고 그럼 공장폐쇄 풀어라고 얘기한다. 두가지 언론보도로 이중 플레이 한다. 국내에서 주체가 단결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이디스 가서 뭔가 하나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지원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노조의 향기, 노조 이미지 변신에 대한 의견일 많다. 금속바라보는 시각을 비롯해 우리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노동자까지 함께 하려 고민, 운영위에서 논의를 모아 사업계획으로 잡고 갈 것이다. 편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한다.
- 저는 대동에 1년 다니다가 다니는 사람들 보니 생활이 힘든 것으로 보여 그만 뒀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 머리도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대원 왔는데 한달 있다가 정규직이 되었다.
- 그럼 처음 시작으로 대원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직 했다가 정규직이 된, 이 자리에서 가장 젊은 조합원의 첫 건배를 하도록 하자
- 2개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이 되었어요. 건배 하겠습니다. 경기지부 발전을 위하여!
- 아따 신입조합원이 신입조합원 같지가 않는 건배사를 하는 구만
- 나는 친구에게 물어 봤는데 노조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 언론에서 본 것들을 얘기한다. 폭력노조 폭력경찰은 안보는데 언론에서는 이런 것 보여준다. 귀족노조라고 하더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식상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한다. 독일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업에 노조 얘 기한다고 들었다. 실제 취업과 교섭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다.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았다는 친구의 얘기를 들었다. 개인적으로 기사를 쓸 때, 첫 제목을 고민해서 첫 머리부터 확 끄는 것을 노 력한다. 노조도 우리만 아는 얘기보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보여준 울동하는 동지, 백댄서출신 절도 있는 울도과 가요도 좋은데 관심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대중적 음악과 춤에 관심을 가지더라. 대중 들이 이해하는 얘기 가지고 일단 이목을 끌어야 한다.

- 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는 못했다. 평소에 주변에서 느낀 것들인데 과격이다. 언론에 비 침진 게 그런 것이고 처음 회사 들어오기 전 노조가 있다고 하니까 멀게 느껴졌는데 들어와 부딪쳐 보니까 틀리더라. 집회기도 작년 삼성 전자서비스 집회가서 대중가요하고 울동을 보 니 주위사람들 반응 좋더라 앞으로 밝게 집회 만이라도 한번 쳐다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사무장이 편한 자리라고 하더니 부담스럽네.

노조를 몸으로 배웠다. 노조의 향기를 이해 못한다. 몸으로 터득해서 살려고 하니 세월 지나서 상황 이 바뀌어 있다. 부드럽게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갈 땐 강하게 나가고 강약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게 보여줄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저로서는 애매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좀 오바인 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 조합원이 서로 얼굴보고 얘기하는 자리들을 원한다. 남 생각 말고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한다. 지금은 솔직히 강성노조 없다. 현실에 맞게 가야 한다. 시대가 변하니까 얼굴보고 소통하면서 가자. 끝으로 젤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 질문이 있는데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 92년에 들어왔다.

- 그전에는 다른 직장에? 좋은 얘기를 하셨다. 사람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종합선물세트가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다.

- 아니 지부교선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리가

- 지부교선부장 속 좁은 사람이여, 뒷 끝 썰니까

- 나중에 그건 따로 풀고.... 다른 분 얘기를

- 마흔 돌입니다. 저는 화목, 봉사, 단결을 떠올렸다. 화목은 가정사가 중요하다. 노조활동 하다 보니 술 좋아하고 노조 핑계로 술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하다. 봉사는 딱딱한 분위기나 이미 지를 꾸준히 봉사하고 신경을 써야 정치적인 투쟁과 이런 것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결은 내부적으 로 중요한 것이 현장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는 “아름답다”는 단어를 떠올렸다. 새벽에 조합원들이 전화하면 다 받는다. 와이프도 사람이 바 꾸었다고 한다. 주변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러니 아름답다고 한다. 87년 대투쟁하신 분들에게 물어보 니 할 때 똑바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미지 변화를 위해 제 생각은 “나눔”이 필요하다. 지역과 함 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소외계층과 고아원과 뭐 이런 것, 물질적인 것 보다는 몸으로 봉사해야 하 는 것이 아니냐.

- 진짜 아름다운 거 맞는 거요? 진짜로?

- 아 진짜예요. 전 현장조합원 연애 상담도 한다니까요. 이주 노동자도 있고 그런 분들과 결혼도 하

는데 이런 상담도 해요

-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일반직들이 많은데 올바른 일 하는데 참여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요즘 박근혜 정권 X같다. 불만 많다. sns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많이 활용해야 한다. 세월호 이런 일에 같이 하나는 일반인도 많다. “우리는 지역에서 그런 거 봉사한다”고 답한다. 이런 거 많이 퍼뜨린다. 언론 장악을 못해도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퍼뜨려야 한다.

- 평소에 듣는 말을 그냥 하겠다. 한번은 집회하고 조끼입고 등벽보 달고 와이프 직장에 데리러 갔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 주변사람들 일반인들 강성이라고 종북, 빨갱이, 이기주의, 돈만 안다는 얘기들이 파다하다. 와이프의 응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친구들 sns하면 언론 정치 비판하면 친구들 정치색 가지지 말라고 한다. 두 번째는 주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모부도 관리직인데 그런 거 하면 찍힌다고 한다. 내가 생각나는 거 향기는 편집부장하다 사무차장으로 처음 교섭에 올라갔는데 임금 올리는 거 맞지만 너무 그런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 돈보다 주변 사업장과 향기를 풍겼으면 울타를 넘어서 하자.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쉼게 주장하다가 교섭에서는 임금을 맞추고 나머지는 알아서 털어버리는 것 같다. 임금만이 아니라 포커스를 넓혀서 지역활동 활발하게 했으면 한다. 우리 것만 하지 말고 오스람도 노조 생겼다 이런 거 하자.

- 금속노조, 노조의 향기,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 창피했다. 부모도 모른다 노조 하는 거, 금속노조도 모른다. 관심 없고 그냥 불쌍하다 안쓰럽다는 반응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나 부모도 노동자다. 생각을 고쳐줘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다 떠나 개인적 생각은 선입견 버려야 한다. 노조의 향기 바꾸는 것 보다 여기 계신 분들 간부도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선입견 버리고 봐야 한다. 지부에서 노조에서 시작한다 해서 지회에서 현장에서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실행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금속을 생각하는가 그것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많이 노력하고 희생해야 한다. 지부의 노력을 알겠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지 의구심이 있다. 단기간에 바뀔까. 아닌 거 같다. 집회가다 보면 행진 꼭 한다. 흡연하고 또 나도 이탈해서 담배피우고 피해도 주변에 준다. 이거부터 없애야 대중의 호응이 있다. 의식? 선입견? 이거부터 버려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주변을 바꾼다. 획기적 계획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길게 봐야할 사업이 아닌가. 잡담 이거 참석하신 분들 돌아가서 고민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주노총에서 장그래 살리기 얘기하는데, 우리 논의하다 보니 장그래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 어제 여친을 만나 노조가 뭔지 아냐고 물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삼성계열 알고 일반인 민간인에게 그런 거 답 듣기 힘들다. 그래서 역으로 질문했다. 근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 노조에 대해 배워가는 단계이다. 많은 활동이 있었으면 한다. 노사간 파업참가는 하겠다. 그 외 활동 노조간부만 참여한다. 신입조합원 데리고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이 시점에 건배를 한분에게 부탁한다

- 앞에 말한 친구 10월에 결혼한다. 결혼 축하한다. 자 모두 잘 먹고 잘살자는 거니 잘 먹고 잘살자!

- 333원칙으로 오늘 진행한다고 해서 지난주에 받아 보고 생각을 해봤다. 나는 전경출신이다. 서울 촛불시위, 쌍용차, 용산참사, 많이 갔다. 근본적인 게 위압감이다. 폭력적이다. 언론 보도에서 왜 그런지 파업을 왜 하는지 얘기 안한다. 폭력만 보도하니 대중들은 티비보고 폭력, 귀족 요구 많고 이기적이라고 한다. 제가 봐도 딱딱하다. 글씨도 빨간색 위주다. 노래도 80년대 음성이고 딱딱하다. 시민들 보기에 딱딱하다. 작년 대규모 노동자 대회 갔는데 중간에 담배피고 버리고 선전물 버리고 “무질서한 집단”으로 보일 것이다. 경기는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조끼입고 술먹고 언성높이고 길에서 욕

하고 그것도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보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기초질서부터 밖에서 사복으로 제복이면 조기도 제복인데 노조 옷 입고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 45세입니다. 친구들 보면 사업들 하고 직장 생활도 한다. 노조에 대해 얘기하면 무지하게 싸운다. 하청에 하청 사장도 있다. 이새끼 금속노조 욱하고 개지랄 하는데 술 췌고 이빨

췌서 설득이 안된다. 가하고 나하고는 입장이 달라 그럴 수 밖에 없다. “니가 사람이면 개새끼야 직원들 잘 챙겨라”라고 하는데 지는 한다고 한다는데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노조에 대해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 금속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 친구 한둘이든 노조 설명하면 퍼진다. 왜 싸우는지 한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가 열, 백을 만든다. 왜 노조가 그러는지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부터 내 주변 친구부터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갈 것이다. 와이프 회사 다니는데 노조 없다. 와이프는 노조 좋은 거라고 이해한다. 노조를 이해를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노조에게 바라는 게 없다. 술 먹고 얘기하면 왜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것인지 아냐, 회사 버는 것에 비해 우리가 받는 것은 ‘새 발의 피’라고 얘기한다.

- 일어서는 게 어렵지만 꼭 말씀 드리고 싶다. 제 친구도 그런 사업장, 사진 찍는데, 기룡찾아서 찍어서 가게에 붙여 놓는 친구다. 와이프도 이해 못한다. 니들 힘 없어서 정부 못 이긴다고 한다. 그러나 직장 다니며 당하니까 이해한다.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뭉치자. 우리가 단결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 처음 얘기할 때, 간부입장에서 해야 하나, 조합원 입장에서 얘기해야 하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할지 고민했다. 학교 다닐 때 88년 티비에 맨날 데모하고 왜 과격하게 하나,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고 했다. 지금 와서 시민들에게 똑 같이 보일 것이다. 2~30년 투쟁했지만 앞만 보고 갔다. 뒤돌아 보아야 한다. 주변 원하는 향기가 뭐냐. 수긍하고 인정할 줄 아는 노조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면 쏘이라도 내 관점에서 안맞으면 까고 이해 시키려 한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식지 보면서 췌면 췌다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저부터 바뀌어야지만 노조도 인정하고 수긍해야 한다. 노조의 향기를 위한 아이디어는 어려운 얘기인데, 노동절 집회가 크고 11월 노동자대회도 대한민국 성인이라고 하는 줄 안다. 개인적 만약에 길 막고 행진하지 말고 인도에서 피켓 들고 서있는 게 낫지 않냐. 길 막으로 짜증 나지 않느냐. 행진 한두시간 보다 만명이 인도에 췌 서서 피켓 들고 서있는 게 더 낫다. 아 재들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 중책을 경험한 사람이라 여기에 참가 하라고 했나보다. 와서 그냥 듣고 싶었다. 지회장이 이거 한다고 자료 줘서 읽고 넣어 뒀다가 다시 봤는데 주관적 생각보다 주변 객관적 얘기를 듣고 싶었다. 마누라에게 노조 어떡냐고 물어보니 “다 맘시롱” 그러더라. 뭘 알아? 결국은 주위에 있는 분에게 들어야 하는데 주관적 얘기를 하게 된다. 여기 와서 얘기 들으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와 같은 많은 경험을 하는구나. 자본의 주입들, 알게 모르게 몸에 벤 게 있구나 하는 생각, 지부에서 조합원 얘기 듣고 싶은 거 같은데 오신 분들 많이 준비해 온 것 같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다. 간부가 던지기 보다 조합원 의견을 반영하는 게 낫겠다.

세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근데 동지들 노조에 대해 “폭력, 야만” “전노협 정신” “지역사업” 세 가지를 생각했다. 노조가 강성으로 갈 수 밖에 땅에서 안되니까 굴뚝으로 올라간다.

인지가 하고 싶어서 하나, 자본의 폭력과 야만 때문이다. 그것을 넘어서려 그런 게 자본주의가 폭력과 야만으로 가니까 그걸 넘어서려다 보니까 그런다. 보수언론은 빨갱이 폭력 각색해서 국민이 그렇게 느껴지게 한다. 우리 책임도 있지만 우리 책임보다 우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전노협 때는 국민이 지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냉대하지는 않았다. 요구나 투쟁이 조직된 노동자 아닌 노동자가 2천만이라고 하는데 2천만 요구와 투쟁을 하면 달라질 것이다. 전노협정신은 자주적으로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연대하고, 자본이 폭력을 쓰니 전투적으로 오히려 전투성과 연대성을 잃는 게 아니냐. 변혁지향성이 있었다. 과거에는 노동해방이 희망이었다. 언젠가부터 당면 문제에 몰려서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 조합원들도 현실 안주하는 것 아니냐.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한겨레 보니 동작구 구의회에서 생활임금을 통과했다. 최저임금을 넘어서 이런 것처럼 지역사업을 해야 한다. 첫째로는 요구를 지역, 안산의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하라는 이런 요구를 걸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둘째로는 지역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노조 만들어 지던데, 화학 섬유 등.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집중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살려야 한다. 힘 안살리면 또 깨져 이제라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같이 잘 해야 상승효과가 있다. 셋째로 인지 세월호 열심히 했다. 지역사업 세월호 열심히 해서 안산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어제는 300일 촛불 문화제, 노동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거부터 바뀌야 한다. 이런 것에서 지역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지역시민 전국 노동자 시각을 바꿀 수 있다.

-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셨다. 이젠 좀 더 자유롭게 더 얘기를 나누시기를
- 다른 거 뭐 있나. 사실은 노조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노조가 뭐야 사람 만드는 거지. 나도 노조 때문에 사람 된 거야. 우리 마누라도 그렇게 얘기해.
-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좋네요. 딱딱하게 회의하는 것 보다 말들을 더 많이 하네요.
- 이게 실은 쉽지 않아요. 회의하면 딱 자세 잡고 하는데 이거 먹고 얘기하고 마시고 얘기하고 또 들으면서 먹고 나온 얘기 적고, 나중에 정리하고...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다니까
- 자 여기서 이쯤에서 정리하죠.

(결국 안산2의 향기잡담팀은 또 2차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 끝 >

2. 지부 발전전망을 위한 기획토론

경기지부발전전망을 위한 1차 논의 결과

□ 일시 : 2015년 1월 30일 15시

□ 장소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회의실

□ 참석 : 계양지회 수석 조창식, 두원정공 수석 이기만, 대한솔루션 수석 김종석, 대원산업 조통 정연국, 신한발브 수석, 총무, 우창정기 부지회장 최우섭, 에스제이엠 수석 정준위, 정책 임정섭, 인지컨트롤수 수석 차병식, 주연테크 사무장 안준민, 지역지회 부지회장 윤민례, 경기지부(수석, 교선, 총무)

1. 논의결과

① 정책단위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한다.

이 논의단위는 의결단위나 집행단위는 아니며 지부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렴, 논의, 제시하는 단위로서 역할한다.

② 지속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활동한다.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논의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③ 구성원은 결의를 가지고 책임 있게 참여한다.

구성은 운영위 결정에 따라 각 사업장 수석(없을 시 임원)과 정책기획담당자로 하되 책임을 가지고 참여한다. 해당 사업장은 참여 성원의 역할과 활동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단, 참가성원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신한발브, 우창, 대원, 인지 등은 분명하게 분회 및 지회 논의를 통해 참가 성원을 확정하도록 한다)

④ 논의가 가능하도록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공유한다.

지부발전전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유된 기초가 없는 감정적 논쟁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기초인식을 공유하고 학습하면서 논의하도록 한다.

⑤ 차기 회의는 첫째,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의 역사에서 지역지부의 역할과 전망 둘째, 산별운동과 지역지부활동에서 지역지회의 설립의미, 과정, 전망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적절한 강사(또는 토론자)를 섭외하여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차기회의는 2월 11일(수) 오후 2시에 진행한다.

2. 논의 내용

* 지부 발언은 괄호로 처리

- 이 토론단위의 목적과 지속 여부가 궁금하다. 정책제안 단위인가? 집행단위인가? 사업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 발제하는 것인가?

(집행단위는 아니고 지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 방안들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

- 주제들이 무겁다. 현장의 관심이 많지 않은 이슈이기도 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개인적 입장도 강할 수 있다. 조합원의 입장을 먼저 들었으면 한다.

(고정된 모임은 아니다. 잘 갈 수도 있고 하다보니 안 되겠다 때려치우자 하면 때려치울 수도 있다. 이 모임만 진행되는 것 아니고, 조합원 설문도 있고 순회간담회도 진행 중인데 일회성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권역별 현장 조합원 순회 간담회 식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가 어려우니 논의가 무거운 듯 하다.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해야 사회적 역할하는 노조 될지, 예를 들면 6,7기 화요실천 같은 고민 여기서 해볼 수 있다. 노조 조강특위 논의 있지만 14년 결론은 내지 못했다. 기업지부 해소 등 의견 접근 전혀 안 된다.)

- 운영위원들이 며칠을 논의해도 어려운 문제들인데.. 여기서 잔가지를 쳐내고 논의할 수 있는 안으로 운영위에서 올리라는 얘기같다. 지역마다 활동 스타일도 다르고 다양한 여건들이 있는데.. 시일이 걸릴 것 같다. 무언가 내놓으라고 하면 갑갑하다.

(갑갑하니까 이런 자리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이 내내 정책논의를 할 수는 없으니.)

- 다 궁금하고 어렵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다. 지역지회 문제 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뭇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수석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간담회 열고 술 마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 운영위원들이 뒤풀이를 하면 늘 얘기하다 결국 싸운다고 하더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회장이 현장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이 되는 건데 여기 논의한 안이 아무리 잘 나와도 운영위 결정 없으면 사업 추진 어렵다. 운영위도 시끄러울텐데 여기서도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경우가 걱정이다.

(지회장들이 싸운 건 지역지회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다. 긴장타고 있는데, 다들 옛날에 당사자로서 걸쳤던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 같다. 그러나 지역지회 문제는 미조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신규조직 편제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불거진 쟁점이지 지부 발전전망 토론의 일부일 뿐이다. 전체 목표는 지부 전체의 발전전망과 집행력의 강화다. 지역지회 간담회 26일에 진행했다. 서로 거리가 멀었다. 몇 차례 진행하면서 오해도 풀고 이해하면서 풀어갈 문제다. 수석들도 운영위원 겁내는데^^ 정책담당자 등 부서장들 모여서 할 수 있는 논의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 잠깐 휴식

- 수석들이 고민 안 하면 누가 하나. 짱들 머리 아픈데. 얘기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
- 지회장이 가보라 해서 왔는데. 지속적으로 할 건지, 지금 제안된 구성으로 갈 건지 얘기하자.

- 발전전망 토론하는 것으로 듣고 왔다. 말하기 조심스러운 게 지역지회 이슈 때문인 듯 하지만 이런 논의 필요하고 수석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안된 정책 논의에 충실하면 될 것 같다. 운영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 논의 안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일단 1) 성격 - 결정이나 집행단위가 아니라 지부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하는 곳이다. 2) 지속성 - 누가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3) 구성 -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운영위 결정으로 추진한 것인데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얘기해보자. 4) 논의방법도 이어서 논의해보자.)

- 조합원과 논의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겠다. 의견을 들어와서 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 기간은?

(1차는 임대까지 2회 정도 진행하고 상반기 이내 6월 전까지 충실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책임있게 결합할 사람을 확정하고, 추가로 경험자 등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보충할 수는 있을 것 같다.)

- 지금으로 봐서는 구성 상 운영위의 하부단위 느낌이지 정책단위는 아닌 것 같다. 비슷하게 난상토론을 하다가 방향을 못 잡을 수 있다. 운영위원들도 문제의식 있으나 말은 아끼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정책단위 아니라 운영위 논의의 회피수단 정도라면 주요 쟁점들에서 아무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단위로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민주노조 운동과 지부의 핵심 문제들을 학습하고 방향을 잡는 집중 논의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은 모인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부의 집중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지향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결정하고 지침내려 동원하는 방식 아니라 풍부하게 고민하는 단위를 많이 만드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실제 의미있는 논의가 되게 하려면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될 듯. 느낌 상 그렇다. 의견을 나누는 정도의 의미 있지만 정책까지는 무리라고 본다.

지역지회 관련해 운영위원들이 이 정도까지 논의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서로 그만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나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하고 반응했을 것이다. 노조운동의 발전전략 속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끼리 오합지졸처럼 굴다가 망하면 안 된다. 잘 하게 하려면 운영위가 많은 시간 갖고 토론할 문제인데 시간 부족하고 어렵다면 전문적으로 깊이있게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책단위로 만들기 위한 조직화과정을 갖고 제대로 구축하자는 의견인 것 같다.)

-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은 의견이 운영위원회의 논의와 부딪히고 끼이면 그건 또 어떻게 하나. 의견 잘 모을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 모인 사람들을 시작으로 기반을 만들자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 지금이 시발점이라고 보면 동의한다.

- 필요성과 구성원에 동의한다. 빠진 것이 있다. 지부 전망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회장, 운영위원 없는 채로 논의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운영위수련회에 같이 가는 등 방법을 찾아보자.)

- 수석들로도 가능하다. 역사와 쟁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 과정이 본인에게도 자기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조전망, 지역지회 브리핑 등으로 교육하고 이해하고 같이 각각에 대해 차분하게 토론해갈 수 있다.

- 운영위원들과 모여서 공유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을 뛰어넘어도 된다.
 - 지회장 포함하는 게 좋을 듯 하다.
- (전직 지부임원, 지역지회 고민을 잘 아는 사람들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다.)
- 인원 많아지면 회의 잘 안 된다. 20명 이내가 좋을 것 같고, 오늘 참가 못 한 사업장 담당자까지 하면 적정 인원이 될 것 같다. 다만 논의 시작 전에 운영위원 고민 같이 듣는 집담회 등이 필요하다.
 - 노조 전망, 지역지회 등 브리핑 들을 때는 지회장도 같이 있어야 한다.
 - 운영위에서 시간을 갖고 고민 못하는 문제를 정책단위가 고민하자는 게 운영위 결정이다. 운영위원 들은 이미 깊이있게 고민하고 입장도 있을 것. 만나서 얘기하는 건 확인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 없다. 운영위원들의 고민방향 열어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 그 수준까지 같거나 말거나를 논의하고, 간다면 결의를 갖고 학습도 하고 실질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 (그렇다. 운영위원들은 판단을 갖고 과제를 준 것이라고 봐야할 것)
- 공유는 필요하다.
 - 지회장들은 안 한다고 할 듯.
 - 깊이를 가지기 위한 기본 작업 있어야 한다. 초안 논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소수로 하는 게 좋고,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구성도 명확히 해야할 것 같다.
- (구성에 관해 각자 의견 들어보자)
- 운영위는 판단을 갖고 수석들에 맡겼는데 수석들은 모여서 우리가 왜 해야하나? 분위기? 지금은 핵심 문제들에 대한 이해 부족하지만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해나가면 될 것 같다.
 - 현장에서 수석보다 역량있고 경험있는 사람 활동시간 뺄 수 있으면 대체해도 되나?
- (책임있게 결합할 수 있어야)
- 정책팀 소수정예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듯. 기획팀과 전체회의 방식.
 - 수석과 정책담당자가 책임있게 결합.
 - 주야 하면서 힘든 측면 있지만 계속 사람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게 필요하니 공부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
 - 장기적 브레인집단 형성 필요.
 - 확실하게 담당을 정하고 가자. 천천히 가도 같이 가자.
 - 대한솔루션은 수석, 신한은 결합할 사람 선정, 우창은 논의 필요, 에스에이엠은 수석&정책, 대원은 논의 필요(분회장 추천), 인지는 수석, 주연은 사무장, 두원은 수석&정책, 계양은 수석, 지역지회 수석&부지회장.

경기지부발전전망을 위한 2차 논의 결과

- 일시와 장소 : 2월 11일(수) 14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
- 참가 : 계양전기 조창식 수석, 에스제이엠 정준위 수석, 임정석 정책, 두원정공 이기만 수석, 강민구 정책, 주연테크 안준민 사무장, 신한발브 하용수 분회장, 유정환 총무부장, 지역지회 이규선 지회장, 우창정기 최우섭 부지회장, 지부 수석, 교선, 총무 총 13명

○ 진행 내용

1. 1차 논의 결과 공유

- 자료집 참고

2. 발제

- 노조의 미래(지부 교선부장)
- 지역지회 진행경과(이규선 지회장)

3. 토론결과

첫째, 지부발전 전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토론되었음.

(① 지역지회 관련 갈등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애초에는 영세중소사업장 조직강화대책에서 지역지회가 고민되다가 미조직 사업을 위한 역할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점, ③ 소수노조인 분회들의 자기운동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재정·인력·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야 하고 이를 지부가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금속노조나 지역지부의 역할은 과거의 산별교섭 중심에서 미조직사업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후 이런 활동은 더 강화되어 갈 것이라는 점, ⑤ 권역별 실천과 활동, 삼성-위아비정규직 미조직사업 등 지부의 미조직사업이 확장되면서 미조직사업의 거점이 지역지부와 지역지회로 겹치게 되고 이것이 신규사업장 편제의 논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 ⑥ 미조직 사업이라는 역할이 없다면 지역지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 지역지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 미조직사업 단위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⑦ 지부가 미조직사업에 대해 각 사업장 미조직사업 담당을 배치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미조직 사업을 사람배치하고 특정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넘어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⑧ 지부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지역운동의 구심으로서 미조직 사업을 더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교섭중심에서 조직화 중심으로 나가되 이를 위해 집단교섭을 비롯한 세부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 ⑨ 지역지회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단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논의단위가 없고 운영위도 이를 위해 정책사업과 정책토론을 하게 된 점도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점 등)

둘째, 지역지부의 역할과 전망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지회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셋째, 차기 회의에서는 지부의 활동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넷째, 3차 논의는 3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함.

4. 질의응답과 논의 내용

- 지역지회는 중소기업사업장 관리에서 해당지역 미조직사업 활성화로 그 역할과 위상이 변화해왔다. 여전히 상근자 적은 문제 있지만 재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 2015년 하반기부터 권역 분화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추진되었는가?
- 안산, 화성, 평택 등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평택은 지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 지부와도 집행위에서 논의, 비슷한 논쟁 이어지면서 올 해 건설은 보류했다. 묵은 과제 자꾸 안고 가니 지부와 역할 갈등 생긴다.
- 기업지부, 기업지회. 노조 자체에서 해소 못 하는데서 문제가 출발한 거 아닌가? 지역운동 하려면 큰 틀에서 지역편제가 맞다고 본다. 해소로 가야 한다.
- 기업지회를 지역으로 편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돈, 사람, 현장대응 문제 등. 우리도 기존 지회 해소하고 지역지회로 오라고 강요 못한다. 시공단지지역지회로의 분화는 현재로는 다소 어렵다. 노조 전체가 정돈도 안 되니 편재문제가 계속 논란되고 계속 토론해야 되는 상황인 듯 하다.
-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노조의 구상은 지역운동의 중심으로 지역지부를 상정하고 교섭과 투쟁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것. 그래서 재정도 집중되는 것. 그런데 기업지부 해체와 지역지부로의 재편은 실패했고 그 후의 노조와 지역지부, 지역지부와 지역지회의 관계 또한 재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지회가 자체 활동역량이 없는 사업장들을 관리하는 애초 구상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역지회가 지역운동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보니 계속 이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미조직사업의 특화된 단위라고 하는데, 이런 설정이 지역지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미조직 사업의 확대 위해서는 더 많은 힘, 큰 공간에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역지회는 구조적으로 그런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 경기의 경우야 신한이 있어서 받쳐주니까 지역지회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망가지고 있다. 서울의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해야 문제 풀린다. 미조직사업이 주요 역할이고 강화해야 하니 지역지회 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있다.
- 지역지회가 지역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역량 안 되는 사업장 관리라기 보다는 중소기업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라는 목표를 표방했다.
- 미조직사업 관련한 얘기가 왜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신한도 의문이 많다. 산별전환 전에도 서울 남부지역지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조직강화사업은 전혀 없었다. 신규조직사업이 전체 사업이었다.

신한이 경기도에 왔을 때는 오히려 지부에서 지역지회로 갈 것을 제안했다. 처음 올 때 신한은 지역지회가 중소기업사업장 조직관리 역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조직 사업을 지부가 하려다보니 지역지회라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본다. 지역운동의 중심은 지역지부일 수밖에 없다. 사업장 교섭하면서 미조직사업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역지회에서도 처음에 상담도 전혀 없었고 신규사업장 받은 적도 없었다. 미조직사업 위해 지역지회 만들었으나 지부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 틀 없어지고 교섭권, 사업장 편재문제 등 자꾸 문제 되었다. 현재로서는 지역지회가 미조직사업 단위라는 건 이미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논쟁은 접고 미조직사업을 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부가 미조직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 추진하면 된다고 본다. 지역지회 내의 사업장들도 불만 많다. 활동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퇴근 후에 선전전을 결합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지역지회가 미조직사업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부의 권역별 사업도 모두 미조직사업의 일환이라고 본다. 건방질 수도 있지만, 지부 주도로 권역별 지역지회 만든다든지, 공단중심의 미조직사업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지역지회를 둘러싼 문제의식들이 소통 잘 안 된 건 사실이다. 지부가 그 논의를 잘 풀어가고, 지역지회 스스로도 다른 고민 필요하다고 본다.

- 금속노조 조직자체가 현재 딜레마에 빠진 수준이다. 노조가 교섭과 재정을 집중시킨하고 했으나 교섭은 개별화되었는데 사업장들은 개별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지역지회를 만든 노조의 애초 고민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계속 확인시켜 주다보니 지역지회가 무슨 전망을 갖고 활동할건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 오해다. 지역지회는 애초에 영세사업장 묶어서 관리하는 단위라고 생각한 적 없다.
- 지역지회에서 애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다. 그대로라면 의미있는 조직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적인 조건에서 어려움이 있다. 타임오프 때문에 지부에도 파견자 못 내는데 권역별로 조직 만들자고 하면 그 조직의 운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려면 까놓고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 지부는 미조직사업을 어떻게 해왔는가 평가가 필요하다. 2004년 미조직사업 단위로 지역지회 건설하고 지원 많이 해줬다. 그 평가가 필요하다. 지부 미조직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 금속 중앙위(106차)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 지역지회 편재를 결정했었다. 그 때만 해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
- 그런 요구가 강했지만 문제는 지역지회 문제가 조직 내 갈등으로 자꾸 드러난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의미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매우 갈등요소가 된다고 다들 평가한다고 들었다. 애초 구상이 다 틀어진다는 얘기다. 평가하고 향후 전망 고민해야 한다. 안 그러면 조직노동자 살아남는 구조 안 된다. 여기서 논의 되어야 한다.
- 지역지회 건설에 영향을 미친 3가지 요소가 있었다. ①중소영세조직관리 ②기업지부 해체와 지역지부 편재 문제 ③미조직사업. 이 3가지 중 ②번은 불가능하다는 분위기. 지부 내 기업지회도 마찬가지. ③ 미조직사업은 대다수 지역지부 사업의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남은 요소는 ① 중소기업조직관리다. 이것도 가능한 조건인지 따져봐야 한다. 경기지부의 미조직사업 평가와 전망은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본다. 6기 7기 동안 권역 선전전을 수원에서 시작해 권역으로 확산, 지부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권역별 모임, 권역별 실천, 문화제도 진행했고 권역별로 자발적인 계획도 논의하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 해도 권역별 체육대회 등 확대하는 계획 논의 중이다. 이런 지향으로 지부는 가는 측면이 크다. 지역지회 논의 왜 여기서 해야하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서 역할이 겹치면서 논의가 떠오르고, 이미 긴장이 걸린 상황에서 논의 안 할 수가 없다. 당분간 덮어두자는 결론을 내리면 몰라도...

-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정리 좀 하라고 해라. 신한만 봐도 지역지회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도 답답하다. 회사 지분문제로 투쟁해야 되는데, 기금 더 걷는 것도 부담이 된다.
- 신한 입장에서는 지역지회 활동을 '짐'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운동정신, 자부심'으로 느끼는 바가 있지 않나.
- 자존심 없다. 하하하하하 지역지부가 금속노조의 골간이다. 처음엔 미조직사업 하라고 하고 이제와서 이런 얘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논의의 시기적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평가가 계속 안 좋게 되니까..... 미조직 사업 잘 하려면?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다.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모여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처음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노조의 사업방향, 방식이 전환점에 있다. 지역지회 한 물 갔다. 노조의 미조직사업은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으로 지역의 미조직사업과는 달랐다.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은 지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서울은 자기 조건이 있는 것이다. 안산에 지역지회 사무실 있는데 복잡하다. 안산권 내에도 파고들 수 있는 미조직 사업 딱히 없다.
- 재정에 관한 얘기는 중요한 평가다. 오스람이나 엑사보드 등 규모있는 사업장들도 잘 조직해서 활동해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조합비를 근거로 자체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건 자기 운동이 상실되는 구조를 늘 갖고 있다는 거다. 현재 노조가 살아남는 방식이 자기 사업장 자기가 지키는 거다. 아무도 못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비 문제는 그 사업장의 자체활동이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신한의 노력 대단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조합운동의 새로운 방식을 찾고 발전전망을 찾는 것 지부가 총괄하고, 지역지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자기운동성을 형성하는데 주력하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장이 추가로 거출해서 자기를 유지하는 방식 아니라.
- 그걸 원한다. 지역지회 구조는 분리된 느낌.
- 회계적 분리는 조합활동의 큰 조건이다. 미조직사업 지부가 총괄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서로 얘기 안 하고 자기 입장만 있다보니 접근하기가 어렵다.
- 조합비 얘기는 활동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비로 지역지회가 미조직사업 하고 지역선전전하고 그런 거 다 안다. 공감하고 원래 우리의 운동정신이고 방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있다. 지부 사업장 전체가 다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좋다고 본다.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도. 안산에도 미조직사업장 많은데, 지역지회의 역량으로는 조직화에 한계가 있다. 지역사업장들이 그렇게 같이 몰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쿨하게 가면 안 되나. 복잡한 과거가 얽혀 있으니 논의 참가 어렵다. 당장 풀 수 없는 문제는 좀 재껴놓고, 우리가 미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지를 논의하고, 그 가운데 지역지회나 현재 사업의 필요와 불필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지?
- 오해의 요소 다. 조직편제 문제. 지역지회는 조직편제가 사활이다. 확대해야 발전적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돈 문제 사람문제 다 매우 고민스럽다.
- 왜 그렇게 어려운 짐을 지역지회가 지고 가려고 하나?하는 얘기도 있었다. 편제가 예민한 건 집행위원장들, 간부들이다. 조합원들에게 문제인가? 노조가 잘 만들어지고 잘 지켜지면 장땡이다. 지부 미조직사업 꽤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 위아 등. 이게 다 미조직사업이다. 이미 미조직사업은

지역지회의 독특한 역할이 아니다. 신규사업장 생기면 지부가 엄청 지원한다. 기분나쁠 수 있지만, 내가 삼성 담당하면 별 말 없다. 그런데 왜 지역지회의 신규 사업장 만들면 긴장이 발생하는가? 신규사업장 생길 때 지부가 몰빵하면 지역지회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미조직사업 자체 열심히 하고, 재정지원도 많이 하고, 권역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화스텍 최근 가스누출 등에서도 권역 사업장들이 몰빵해줬다. 지금 지부 사업장들이 그렇게 이뤄지게 하고 있는 것. 사실 지역지회를 시공단지회로 분화하자고 하면 안산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체되는 수순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그럼 거꾸로 지부는? 권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지부는 이미 그런 포즈를 취하고 가고 있다.

- 지부 활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 인정한다.
- 미조직사업에 관한 비판적 평가는 지역지회의 활동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조직의 역량이 집중되기 보다는 돈 모아서 사람 뽑아서 캠페인사업 하다가 별 성과 없고, 미조직사업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지 못하는 과정 전체에 관한 평가다. 그런데 지역지회가 미조직사업 중심을 주장하니까 이런 전체적인 평가를 덤탕이 쓰는 것 같다.
- 연관된 쟁점과 효과 면에서 굉장히 구조적이고 무거운 문제다. 지부 자체가 구심이 되어 미조직사업 제대로 하고 그 안에서 지역지회 역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 앞으로의 고민은 다를 것 같다. 다음의 노조로 어떻게 갈 건지 사업장별로도 고민이 많다. 우리는 공장을 넘어 지역활동으로 가는 것 고민 중인데 상이 잘 안 잡힌다. 지부가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편제 문제든 뭐든 까놓고 정리해야 장기적으로 지부의 발전전망과 구상 만들 수 있다.
- 지역지회 문제를 이렇게 차분하게 논의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매번 상당히 긴장 걸리고 흥분된 반응들이 있었는데.
- 우리도 서울남부에서 왔다. 처음 109명 조합원이었는데 조합비가 한 푼도 없었다. 생일자 축하라도 해 주게 조합비 달라고 요구해서 월 46,000원 받았었다. 이중구조는 분회 자체 사업을 못하게 한다. 서울남부지역지회는 여전히 미조직사업을 계속 중점적으로 한다. 그런데 남는 곳이 별로 없다.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문제다. 지금 지부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미조직사업 어려운 것 같다. 같이 소통해서 해갔으면 한다. 미조직사업은 비밀스러운 무언가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같이 하고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중적 구조 하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명하게 소통하고 투명하게 해야 활성화될 수 있고 신규사업장도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다.
- 진행관련 의견 있다. 지역지회 사업의 잘잘못 여부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고, 해소가 가능한지. 그게 구조적 문제 아니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지역지회 평가자리 아닌데. 지역지회 사업장 전부 지부가 와서 투쟁하고 교섭하고 다 했다. 우리만의 투쟁 아니었다. 집행위 운영위 보고 다 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하다는 지적 있을 수 있지만.
- 지역지부 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다. 실질적으로 산별교섭이 불가능하다. 교섭 중심의 운동과 투쟁의 한계가 계속 조직의 유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진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운동방식 고민할 때 됐다고 생각한다. 조직확대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망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 가운데 지역지회는 애초 구상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지회가 살아남기 위한 조직확대라는 구상을 가지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 논의의 우선순위를 바꾸자. 긴장이 걸려 있어서 자꾸 다른 얘기 하려고 해도 지역지회 얘기로 돌아오는데... 지부 전망을 우선순위로 놓고 얘기했으면 한다. 그 안에서 지역지회의 영역 찾으면 될 것 같다.

- 큰 틀은 그런데, 지역지회 문제있고 꺾그러워서 자꾸 문제제기 되니까 정리하려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이런 자리 만든 것 아닌가? 정리하고 가야하지 않는가?
- 지역지회가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다. 시공단 전망 관련해 지부 집행위에 제출하면서... 사업장에서 미조직사업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지역지회 사업장 먼 산 보듯 하는 문제. 지역지회의 수공업적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어디선가 꾸준히 해야하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단위는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여러 평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지회 운동 모색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재문제 나올 때마다 민감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이런 조직은 필요하다. 시공단으로의 발전을 활발하게 했으면 한다. 광역단위 지역지회도 교섭, 교육, 중복 등 현실적인 문제 있지만.
- 논의가 촉진된 것은 시공단 전망 제출이 아니라 사실 편재문제였다. 6-7기 되도록 미조직사업이 전면화되지 않았다. 갈등을 처리할 역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덮어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점점 신규 조직 늘어나고 있다보니 이 과정에서 편재가 갈등이 되고 과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역지회 전망 가지고 논의했으면 그렇게 갈등적으로 붙을 일은 아니었다.
- 그러면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인가? 그럼 문제는 뭐고 해결방법은 뭔가?
- 미조직사업 중첩이 문제인데, 대안이 지역지회 해체인가? 그러면 해결되나. 결국 지역중심, 공단중심 활동이 대안이다.
- 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 내 생각은 공단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 지역지회 관련 해체부터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역할조정론이 가장 많은 것 같다.
- 지부나 사업장들이 지역지회는 한 단계 더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대한솔루션 등 지부가 직접 챙길 수 있다. 분회장들을 운영위 성원으로 배정해 참가하도록 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절반 정도가 참가할 수 있다.
- 그렇게 운영하면 지역지회의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논란이 되는 방식이다.
- 지부 개입력 높이면 되지 않겠나. 지부가 안 한 건 아니지만.
-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물리적 조건은 지역지회 소속 사업장들이 독자적인 자기 사업력이 없고 노조 지침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큰 단위는 살아남지 못한다. 조직력 유지가 어려운 구조다.
- 돈 문제는 아니다. 돈 없어서 사업 못하지 않는다. 새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2%를 걷게 한다. 지역지회 조합비로 사업장에도 많이 내린다.
- 물리적 조건이 중요한 요인이다. 지회들도 마찬가지다. 지회도 노조에 돈 많이 올린다. 노조 돈 나오니까 지침에 따른 사업, 노조 중심의 사업만 강화된다. 가까운 지역 투쟁 못 한다. 똑같다. 분회는 한 단계 더 거치니 더 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지는 것이다. 경기지역지회의 특수성은 또 광역단위라는 것. 잠재하는 갈등이 단결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미조직사업은 힘을 가지고 가야하는 시기다. 지역지회 어려운 조건, 헌신성으로 유지하는 조건 넘어야 한다.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지회의 역할은 그렇다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유의 활동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에 필요한 역량과 지원을 지부가 집중해주면 된다.
- 소규모 사업장 유지, 미조직사업 중첩, 편재문제 등 얘기가 계속 되는데, 지역지회가 미조직사업 목표로 할 것 아니면 할 필요 없다고 본다. 중소기업사업장 관리는 애초에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었다.
- 2006년 이전의 얘기다. 지역지회는 미조직사업의 특수한 거점이 될 수 없다면 그 역할은? 완결적

조합활동 어려운 단위들이 성장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들이 뭉쳐서 공동체운동이나 지역운동을 만들어가는 단위가 될 수도 있다. 미조직사업 거점이라는 자기 규정을 유지하면 지금과 같은 충돌은 늘 유지될 것이다.

- 우리는 미조직사업의 선봉부대를 자임했다. 중소기업사업장 얘기는 미조직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소규모사업장 관리는 아니었다. 다른 역할을 하라고 한다면 지역지회 유지의 근거 없다.
- 지부가 미조직사업을 강화하면서 거점의 역할을 가져갈수록 미조직 사업의 거점이 지부와 지역지회 2개가 생기고 그게 충돌하니 편재문제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규사업장 편재를 지부가 틀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지역지부가 미조직사업 중심에 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010년 이후 6기 들면서 노조의 조건도 미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역으로 확대되는 운동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조건이 되기도 했다.
- 지금은 전환기다. 산별의 구상이 실패한 후, 2010년 지부는 자기 운동에 대해 성찰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변화시켜오기 시작했다.
- 지역지회에 관한 관점은 부정적이고 유지하기 힘들다는 인식 있다. 하지만 미조직사업은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10년은 걸린다. 지역지회가 미조직 단위 아니라고 하면 안될 것 같다. 지부 개입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 금속산별은 교섭중심일 때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산별교섭이 중심이니 미조직 사업을 따로 하는 곳을 두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상황이다. 미조직 조직사업을 지부와 따로 하는 게 가능할까? 노조가 조직화모델로 간다면 미조직을 담당하는 특수단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조직의 골간이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 한다 만다 떠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실정이다. 나는 교섭부장인데 작년에 미조직사업만 1년 내내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만들고 지키는데 전력투구했다. 그래서 욕 많이 먹었다. 미조직 사업은 지부의 중요한 사업이고 다룰 하는 활동영역이다. 그게 특정한 누군가의 영역인가? 그렇게 말 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오늘 얘기를 그대로 신는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반응이 많을 것 같다. 다음에는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① 미조직사업에서 지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②구조적 문제의 실체에 관해 얘기해봤으면 하는데 어떤가.
- 미조직사업, 지회들은 별로 없다. 담당자 있는 사업장도 없을 것. 지부의 발전전망이 미조직사업 확대, 조직확대라면 사업장들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지회에서 미조직사업 담당자를 두는 방식 등 구체적 고민을 해야 한다.
-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진척시켜보자. 두원은 미조직사업을 위해 계열사 갔고, 권역별 실천 등 그런 노력들이 진행중이다.
- 미조직사업은 사람 놓고 돈 갖다가 선전전하고, 상담받고, 그런 거라는 틀을 아예 깨야 한다고 본다. 2012년 에스제이엠 투쟁 승리는 그 쪽 공단에 미조직사업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베이스 만드는 가장 큰 역할 했다고 생각한다. 에스제이엠 가까운 곳에 얼마 전에 '전라도 사람 안 뽑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남양공업 있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가서 사람들 마음에 남는 실천을 한다면 그 게 선전전보다 훨씬 효과 있는 미조직실천이라고 생각한다. 방식에서부터 틀을 깨야 진전이 있을 것 같다.
- 요즘 향기 간담회 하다보면 노조이미지 개선 얘기 엄청나게 나온다. 봉사활동 얘기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뭐겠는가. 정치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들을 미조직사업과 연동시키면 효과 있는 사업 할 수 있을 것.

- 지역지회의 위상은 미조직단위다. 노조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게 아닌 지역지회는 상상할 수 없다. 미조직단위로서의 자기역할 있다. 지부 대대 등 편제 결정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룰 없다. 우리 지회는 소규모지만 지회가 되었고, 오스람은 크지만 분회가 됐다. 모든 사업장 지역지회 편제는 모순이다. 00전자 500여 명 지역지회 못 받는다고 우리도 생각한다. 일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지회의 분회 편제는 지부의 승인 받는 등 규약 없지만 룰에 따라 하고 있다. 그런 변화 있었음을 이해해줘야 한다. 지역지회가 유일한 미조직사업 단위라고 표현한 적 없다. 여러 단위 중 하나이고 여기저기 많았으면 좋겠다. 지부는 사업장 수 많고 집행위원 적다. 세심하게 살피기 어렵다. 중간에 지역지회가 있어서 세심하지 않는 느낌도 있을 것이다. 세심하게 챙겼으면 한다.
- 에스제이엠에도 1,2,3공장 있지만 지회라고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부 구체 사업방향에 관해 그 다음 얘기로 가보자.
- 지부 사업계획과 방향, 내용 좋고 공감한다. 사업계획 같이 논의해서 방향 잡아나가면 지역지회 관련 얘기는 여기서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
- 그 얘기를 빼냐 마냐를 두고 여기저기서 자꾸 걸린다. 운영위원회의 재결정이 필요한 듯 하다. 지역지회 소속 사업장들과의 간담회도 몇 차례 더 진행하면서 정리해 가보자.
- 지역지회에 너무 긴장이 걸려서 그런데, 지부의 교섭과 투쟁, 중심사업에 관한 얘기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
- 26~27 운영위 수련회 같이 참가해서 얘기해보겠는가.
- 갈 필요 없을 것 같다.
- 다음 회의는 3월 6일 2시에 하자.

<끝>

지역지회 1차 간담회 결과

□ 2015.1.26. 19:00~

□ 지역지회사무실

□ 지부(수석, 교선, 노안, 조직, 업무), 지역지회 이규선 지회장, 정현철 수석, 권오진 사무장, 신우철 신흥, 정재항 대한솔루션, 서원구 동아공업, 문하용 신한 사무장, 이종배 승림카본, 이복길 중앙바이오텍, 김종우 지성테크, 오스람 수석, 일반분회 조합원 2명 총 18명

○ 지부수석 인사말

○ 취지 설명 (자료 배포, 지부 교선부장 설명)

1. 간담회 배경

○ 지역지회 관련한 논의는 두 방향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규지회와 관련하여 기존 미조직사업의 평가와 신규지회의 편재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2014년 보우데이프의 편재, 보우데이프의 탈퇴에 대한 평가, 오스람의 편재 등으로 이어진 논의가 그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쟁점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지역지회전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지부집행 위에는 지역지회에서 시군지회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지부집행위 논의 과정에서는 ① 논란이 되니 지역지회와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자는 의견 ② 중단하려 해도 신규사업장 편재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기회에 제대로 논의해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 ③ 전망에 대한 논의는 장기과제로 하고 신규사업장 편재는 케바케(case-by-case : 케이스바이케이스의 줄임말)로 판단하면서 가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12월 1일 지부운영위 수련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지회문제를 포함해 지부발전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하자고 하여 새로 관련 예산편성을 하고 지부발전전망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지역지회의 전망과 관련한 문제는 지부의 과제로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의는 한편으로 무수한 판단들이 잠복해 있는 오래된 쟁점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1) 산별노조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대안으로 만든 것인데 그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 2) 지부에서 평소에 별로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니냐. 3) 작은 노조는 어렵지만 지역지회라는 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군분투하는데 그 마지막 근거도 빼앗는 것 아니냐 4) 신규사업장 미조직사업의 실패 이유가 지역지회로 편재해서 그렇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는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1) 기업지부해체도 안되듯 지역지회를 통한 산별노조 발전도 다 어긋난 것인데

지금 와서 또 안되는 주장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2) 지역지회가 사실상 특정 의견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3) 지부가 관심과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지역지회가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니냐 4) 신규사업장 지역지회가 담당하면서 다 실패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 이런 연장선에서 지역지회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 지부발전전망 토론회 기획안(1.26 운영위 안건) 중

- 현재 지역지회 전망과 관련한 의견을 모두 종합하면 다양함.

- ① 강화의견(기업지회 지역지회로 재편, 시군지회로 재편)
- ② 역할변경의견 (인큐베이터역할, 일반지회역할)
- ③ 유지의견(당분간 논의 보류)
- ④ 해체의견 (점진적 해체론, 즉각 해체론)

* 지역지회 전망에 대해서는 지역지회와 몇 차례 간담회 진행하여 충분한 논의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지역지회간담회를 병행하면서 지부발전전망 논의에 반영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1차 간담회 - 1/26)

○ 자칫하면 지역지회 발전전망에 대한 논의는 경기지부에서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논란만 커지고 해결방향은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지회전망 논의는 지부의 단결만 깨는 ‘분열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 그렇기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해를 없애고, 정확하게 판단을 공유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개별적, 비공식적 논의가 아니라 지부차원에서 사업계획으로, “①공식적 ②집단적 ③정확한 단계”를 거쳐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지부는 지부발전전망을 다루는 의제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되 해당주체들인 지역지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지역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논의된 내용은 세세히 기록하여 과정과 절차를 통해 공유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지역지회 발전전망 문제를 지부전체 차원에서 지금 다룰 것인지 장기적 과제로 다뤄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지역지회의 지부결합력 높이는 걸 우선하자 의견도 있음) 둘째는 당면 과제로 다룬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맺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이를 위하여 지역지회 1차 간담회에서는 지역지회전망에 대한 논의에 대해 분회장들과 지역지회간부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차 간담회에서는 개괄적으로 지역지회전망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느낌이나 제안을 비롯한 격의 없는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1차 논의를 기반으로 2차 간담회는 결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간담회 진행

○ 지부 임원 인사 ⇨ 취지공유 ⇨ 장소 이동(근처 식당)

○ 의견교류 - 첫째, 지역지회운영과정에서의 고충, 고민, 문제의식들(지부와 관계를 포함) 둘째, 향후 전망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 셋째, 이후 지역지회전망 논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들

3. 이후 계획

- 논의결과 정리, 내용검토 - 지부정리, 지역지회발송, 정리결과 검토
- 논의결과 1/30일 1차 정책논의, 집행위, 운영위 공유
- 2차 간담회 기획(1/30 집행위, 정책논의, 2 첫 운영위)

○ 간담회 논의 내용

* 아래 내용 중 괄호로 표시된 것은 지부간부의 발언임.

- 설명 내용 잘 정리한 것 같다.
- 지부나 지회 한 형제나 다름없다. 그러나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바뀌면 나아질 것이다.
- (그걸 위해 만든 자리다.)
- 의식 자체가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인 거 같다
- 예전에 지역지회 초반에 신규노조 중심으로 만들었다. 태생이 투쟁으로 시작하는 오랜 장투사업장들이 있었다. 지부나 지회나 많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소수화 될수록 지역주변에서 일상적인 도움들이 절실했다. 미조직 사업도 그 일환의 하나지만 정파를 잘 모를 때는 왜 에스제이엠 대원들은 지역 밀착하는 사업은 없었을까 생각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지역지회라 생각한다. 지역지회에도 기업 지회와 밀착력 높이는 것을 주문했었다. 그런데 잘 안되었다. 지역지회가 필요없는 게 아니라 소수화 될수록 필요하다. 시공단지회 얘기하는 것은 지역밀착이 필요해서 경기지부나 지역지회에서 이걸 하지만 그것을 시공단지회지회가 할 수 있지 않냐, 안산시화 다 하나의 지역지회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 (그게 앞서 설명한 산별노조 최초 설계할 때의 발상인데 10년이 넘었지만 안되는 현실에 있는 것이고 지역지회강화론에서 기업지회해산 후 지역지회로 편재 주장이 있다는 것)
-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먼저다. 기업지회를 없애지 못하는 것,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 이것을 풀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질문인데 결합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부와 결합력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 (간단한 것부터 말하면 지부운영위원들은 회의를 하니까 최소한 일주에 한번은 얼굴 보면서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지역지회 분회장들은 한 번도 보기 어렵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지역지회는 한다리 건너라는 것)
- 산별건설시 외친 것이 울타리를 넘어서자는 것인데 변화된 것이 없다. 지부와 결합력을 얘기했는데 지부 운영위 회의 참석이 어렵다. 지역지회를 해산하면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여전히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사업장은 지역지회로 갈 수 밖에 없다. 결론은 시공단지회지회로 다 전환해야 한다. 전노협은 지역단위로 운영했다. 특히 안산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지 않느냐, 기업지회는 해산하고 지역지회로 오려면 예산도 걸릴 것이다. 금속노조 기업지부해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냐, 산별의 완성으로 갈려면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행정구역이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

- 앞서 말한 것처럼 의견이 다양한데 지부집행위에서 정리된 것은 있는 것인가?
-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없다'는 것은 의견이 다양하기에 하나로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의미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간담회하고 토론계획을 추진해서 정리해 가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 의견이 분분하다. 해체의견도 가진 분이 있다. 분회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해 한다. 그러나 저희끼리도 논의를 한 적이 없어서 조심스럽다. 애초에 지역지회를 만든 산별발전전망 가지고 논의할 거냐? 아니면 지부결합력 높이는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런 상들을 갖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왜 지역지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고 정반대 의견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끝까지 가서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나 노조를 많이 해 보지 않았냐. 아무리 이견이 있어도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아닌가)
- 권역별 모임을 요즘 한다. 권역별 모임의 역할도 있고 지부가 권역별 모임으로 지역지회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
- 시공단지지역지회를 지부에서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지역지회에서 시공단지지역지회 나온 것이 7~8년 되었다. 지부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약간은 분란요소가 될 수 있어 못했는데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과정에서 시공단지지역지회를 위해 각자 다른 지역으로 편재되었을 때 지역지회가 어려우니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옥상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권역별로 찢는 것이 우선 고민되어야 한다. 지부 집행위에서도 지회 고민을 파악하면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
- (지역지회 전망과 관련해서 다들 긴장타고 있다. 지부집행위원들도 만만치 않게 긴장 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미 시공단지회로 가자는 안은 지역지회장이 지부집행위 수련회에서 제출한 바 있다. 이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었던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단지지역지회 안은 지역지회의 해체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때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다)
- 현장의 조합원들이 노조이미지 개선을 얘기했다고 한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역에서 노조이미지 개선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 (지회전망관련 얘기하니 어렵게 반복된다. 당장의 지부운영위원들의 고민은 지역지회간부들이 당장 지부운영위원들과 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 지역지회는 시간문제, 활동문제들이 있다. 시간이 있는 지부운영위원들이 퇴근 후에 회의를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지부에 결합력을 높일 수 있지 않냐.
- 지역지회 전환시 대대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중소영세 사업장부터 가고 다 오기로 했는데 집행부 바뀌고 안되었다. 왜 안오냐?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다. 일단 “교부금 안내려 오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 집행부 바뀌니까 “나는 결의한 적이 없다” 지부운영위 가면 지회가 아니라 분회니까 “결정권도 없고 뒷전에 앉아 있어야 하니 참가하기 싫더라. 참가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다.
- (지부 온지 5년째인데 예전 얘기 저도 잘 모른다. 지부노안 부장에게 과거 얘기 많이 들었다. 과거의 얘기를 다시 다 꺼내 놓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 월 1회 정도는 안산지역이 저녁에 모이는 정도로 하면 저녁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 사업결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집회를 위해 휴가 내는 것도 힘들다.
- 지역지회 길이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지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틀렸다면 날려야겠지만

신한도 지회로 가면 재정도 많다. 그러나 조합원을 설득시켜 왔다.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지도록 하면 안된다.

- 지부의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 지부가 더 다가서면 좋겠다.

- 지역지회가 폐쇄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지역지회 조직 점검만 해도 어렵다. 12개 사업장 현안도 점검하기 어렵다. 월요일 아침에 점검해서 쪽 올린다. 지부는 지역지회를 통해 점검한다. 지부가 직접 분회 상황 점검하면 안되냐. 결례라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면 기존의 긴장관계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폐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결례나 기존의 긴장관계라기 보다 지부는 운영위원들을 통해 다 현장상황 점검이 가능한데 지역지회는 지회장을 통해 하는 것이 조직체계이고 만약 지부가 직접 분회들 점검하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역지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근거로 되지 않겠냐)

- 형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퇴근 후에 회의하는 것? 운영위를 퇴근 후에 하자는 것인가?

- 소통의 문제인 것이냐, 지역지회의 고민이 뭐냐를 생각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운영위 수련회 때) 지역지회 백전백패라는 얘기도 나왔다. 뭔가 지역지회가 문제가 있고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 두 가지를 느꼈다. 숨쉬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지역지회 해산하는 순간 숨이 끊긴다. 시공단 지역지회 논의하면서 예산 사업문제가 크게 다가 설 것이다. 신규사업장 편제가 또 하나의 핵심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 열어 놓고 충분히 토론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한달에 한번 모임하는 방식이라면 할 수 있다.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통하는 자리 자주 만들 수 있다. 신규사업장 편제 문제 간단하다 기존 결의대로 지역지회로 편제하면 된다.

- 지역지회로 편제해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편견 아닌가?

- 신규사업장 사업하면 항상 지부가 붙었다. 임원과 담당자가 같이 했다. 전술회의도 하고

- 지역지회가 신규사업장 해서 깨진 것이 몇 개나 되는 것인가?

- 지역지회 사업장 투쟁은 지부투쟁이었다. 지부편제되면 지부가 많이 도와주고 지역지회 편제되면 지부지원이 덜했다는 꼴이 아니냐?

- (그렇다. 그렇게 된 현실이 있다)

- 신규사업장 + 소수사업장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투쟁하다가 소수화 된 사업장이 많이 나온 것이다. 착시현상이 있다. 지역지회로 가면 망한다는 생각

- 지회가 역할을 하기 어려우니 지부도 지원했던 것이다.

- (그러니까 오해와 진실이 있다. 다른 지회장들이 지역지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근거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지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보우테이프 왜 안 된 것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근거를 공유하도록 하면서 가야 그런 편견들이 사라진다. 그냥 “편견이다”고 하면 해소되지 않는다)

- 다른 지부들의 지역지회 고민이 뭔지 경기만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도 같이 있어야 한다.

- 지역지회 해체를 전제로 간담회 한다는 느낌이다. 신규사업장 편제논란이 계속되면 해체될 것이다.

-(해체를 전제로 간담회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개인적 의견을 말하면 나는 최초에는 산별원리와 원칙에 따라 기업지회 해체를 찬성했다. 그러나 나중에 지부에 와보고 지역지회 해체 입장이었다. 지금은 강화론도 해체론도 아니다. 지금여기어나 지부에서 각자의 다양한 입장이 있다. 아직 정확하게 통일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중이다)

- 노조나 금속 전체를 놓고 볼 때 현명한 것이 뭐냐를 판단해야 한다.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한다. 부

분적인 판단이 아니라.

- 지역지회 5기에서 시공단지회로 가는 것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지역지회도 결의가 확고하지 못하고 거지풀이라도 가자는 생각을 했다. 지역지회 대대에서는 “논의를 더 하자”고 결정했다. 노조에서도 지역지회를 지원하고 있다. 미조직위원회에서 노조는 지역지회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다. 분회에서는 분회사정에 근거해서 존재를 주장하지만 지역지회의 간부입장에서는 미조직 사업을 중심에 두고 존립을 주장하는 면이 크다. 기업지회 해체는 논의를 붙이나 마나 안된다. 지금 지역지회 확산을 위해서 시공단지지역지회를 만들어야 한다.

- (첫 논의인데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다. 노조에 캐나다 사례나 지역활동 사례도 있던데 간극이 이렇게 벌어질 때 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인정돼선 안된다.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부가 의사소통노력을 해 주었으면 한다.

<종료 후 저녁 식사 및 뒷풀이로 이동 함>

3. 관계진단사업

관계진단사업 보고

1. 취지(우창지회 간부교육- ppt그림참조)

관계
關係
relationship



간부의 역할?

관계를 살피는 사람

왜 태어났니? **부부 관계**
 왜 노동자야? **근로계약 관계**
 왜 부품사야? **납품계열 관계**
 왜 투쟁하죠? **계급 관계**
 왜 SJM, 두원 이겼죠? **튼튼한 관계**
 그럼 노조란? **노동자들의 관계**
 노조 역할은? **나쁜 관계 -> 좋은 관계**
 강한 노조란? **넓고 좋은 관계**

관계토양

태어나면서 부모형제친척 혈연관계 핏줄
 자라면서 고향사람들과 지연관계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자라면서 학업관계 학교
 성인이 되어 직장에 취직 직업관계 회사
 관계를 맺는 데는 같이 공유하는 뭔가가 있다.

우리관계는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직장에서 노사간 계급관계에서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
 이해관계를 넘어 권리를 공유하려 한다는 것
 직장을 넘어 사회적 계급관계에서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

자본주의의 기본 관계



시민들의 관계
 소비자-생산자 - 중간에 자본
 분업관계 - 이해관계로 돌변

좋은 관계



자존감

단체협약
 (노사관계)
 권리주체



열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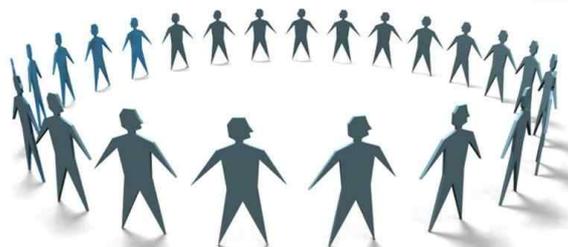
근로계약
 (갑을관계)
 상하중속

노조는 삼각관계를
 연대 호혜 관계로 만드는 역할



실패하면
 복수 노조
 소수 노조

우리 관계는?



우리관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까요?
 관계 점검 사업을 제안합니다.

2. 진행경과

○ 12월 정대 사업결의

○ 우창정기지회

- 간부교육 (2014년 말) → 사전간부논의(2015년 1월) → 간부면담(2월초) → 전 조합원 그룹면담 완료(2월말) → 설문 및 면담결과 분석사업 진행(3월초) → 분석결과 간부논의(3/17 예정)

○ 주연테크

- 사전 간부논의(2월 중순) → 조사항목 설문작성(2월말) → 간부설문 및 그룹면담(3/2) → 조합원 그룹면담(3/12~13)

○ 삼성지회

- 4월 현장특성 고려한 별도 계획 준비

3. 추진개요

○ 추진방식 : 간부관계/간부-조합원관계/조합원-비조합원관계/노사관계/그룹관계 중 각 사업장별 집중진단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설문과 동시에 그룹면담을 진행

○ 추진주체 : 지부와 지회가 공동논의, 면담 및 결과분석 및 관계강화를 위한 교육-선전을 고려한 지역활동가 결합(온다 1인, 삼성경기남부권 선전위원)

○ 사업예산 : 지부사업예산으로 진행(세부항목 생략- 집행위논의, 운영위보고 예정)

4. 향후 계획

○ 각 사업장별 진단결과 도출 - 구체적 실천사업결의

○ 결의한 현장관계강화를 위한 실천사업은 지회와 함께 지부가 예산 등 지원 상반기 집중실천

* 각 사업장 설문결과 및 조합원그룹면담내용은 사업장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보고생략(해당 사업장간부 및 지부집행위 공유) 향후 최종결과를 별도로 운영위 등에 보고 예정입니다.

보고 4.

결산감사 및 기금 보고

경기지부 8기 2년차 1/4분기 감사결과 보고서

1. 감사일자 : 2015년 1월 29일(화)

2. 감사장소 : 경기지부 사무실

3. 수건자 : 지부장 정 규 전 (인)
사무국장 유 상 기 (인)
총무부장 김 유 진 (인)

2015년 1월 29일

지부 감사위원회 : 정 상 철 (인)

이 재 근 (인)

임 무 철 (인)

조합 감사위원회 : 원 대 연 (인)

전 경 호 (인)

박 재 근 (인)

■ 8기 2년차 1/4분기 감사보고서 업무부문 감사결과 ■

부서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공 통	1	- 없음.	-

■ 8기 2년차 1/4분기 감사보고서 재정부문 감사결과 ■

순번	전표 NO	지적사항	집행부 답변
1		- 없음.	

경기지방 8기 2년차 1/4분기 결산보고

1. 조합원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 명)

지회명	월 별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비고	
계양전기		186	186	186											
대경티엘에스		3	3	3											
대원안산시화		180	180	180											
대원평택		149	149	149											
두산인프라코어안산															
두원정공		466	466	466											
르그랑코리아		12	12	12											
삼성		8	8	8											
에스제이엠		270	270	270											
우리		16	16	16											
우창정기		54	54	53											
인지컨트롤스안산		97	97	97											
주연테크		11	11	11											
포레시아		20	20	20											
하이디스		198	198	198											
한라비스테온공조평택		392	392	392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		96	97	98											
현대캐피코		897	897	897											
쓰리엠화성		37	37	37											
카캐리어지회		40	40	40											
경기 금속 지역 지회	개별조합원	15	15	15											
	대한솔루션	53	53	53											
	동아공업	6	6	6											
	승림카본	6	6	6											
	시그네틱스	51	51	51											
	신한발브	231	231	231											
	신흥	12	12	12											
	안산시흥일반	65	65	65											
	오스람코리아	115	115	115											14.10.13 편재승인
	이젠택	7	7	7											
	중앙바이오텍	12	12	12											
	지성테크	26	26	26											
	파카한일유압	16	16	16											
	소계		615	615	615										
지부 개별조합원		19	19	19											
합 계		3,766	3,767	3,767											

2. 일반회계 수입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수 입 액												합계	예산대비잔액	수입율(%)	
관	항	목	당초예산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142,714,278	11,489,155	11,893,127	12,194,556											35,576,838	107,137,440	24.93
기타 수입	기타 수입	잡수입	1,500,000	0	0	1,500,000											1,500,000	0	100
		은행이자	20,000	0	0	2,071											2,071	17,929	10.36
합 계			144,234,278	11,489,155	11,893,127	13,696,627											37,078,909	107,155,369	25.71

3. 특별회계 수입 현황

3-1. 특별회계 1(투쟁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수 입 액												합계	예산대비잔액	수입율(%)		
관	항	목	당초예산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투쟁기금	투쟁기금	이월금	798,597	798,597	0	0											798,597	0	100.00	
		투쟁기금	30,914,719	30,914,719	0	0												30,914,719	0	100.00
		기타수입	15,000	0	0	5,918												5,918	9,082	39.45
		소계	31,728,316	31,713,316	0	5,918												31,719,234	9,082	99.97
	지부결의금	이월금	40,758,403	40,758,403	0	0												40,758,403	0	100.00
		지부결의금	0	0	0	0												0	0	0.00
		기타수입	20,000	0	0	8,601												8,601	11,399	43.01
		소계	40,778,403	40,758,403	0	8,601												40,767,004	11,399	99.97
합 계			72,506,719	72,471,719	0	14,519											72,486,238	20,481	99.97	

3-2. 특별회계 2(미조직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수 입 액												합계	예산대비잔액	수입율(%)	
관	항	목	당초예산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미조 직 기금	미조 직기 금	이월금	2,752,204	2,752,204	0	0											2,752,204	0	100.00
		미조직기금	0	0	1,200,000	10,800,000											12,000,000	-12,000,000	0.00
		기타수입	20,000	0	0	618											618	19,382	3.09
합 계			2,772,204	2,752,204	1,200,000	10,800,618										14,752,822	-11,980,618	532.17	

3-3. 특별회계 3(지역공동사업비) 수입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수 입 액												합계	예산대비잔액	수입율(%)	
관	항	목	당초예산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지역 공동	지역 공동	이월금	46,471,123	46,471,123	0	0											46,471,123	0	100.00
		지역공동사업비	68,671,170	5,625,353	0	10,387,557											16,012,910	52,658,260	23.32
		기타수입	40,000	0	0	8,654											8,654	31,346	21.64
합 계			115,182,293	52,096,476	0	10,396,211										62,492,687	52,689,606	54.26	

3-4. 특별회계 4(해고자활동기금) 수입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수 입 액												합계	예산대비잔액	수입율(%)	
관	항	목	당초예산	14년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활동 기금	활동 기금	이월금	33,914,937	33,914,937	0	0											33,914,937	0	100.00
		지부결의금	0	0	0	0											0	0	0.00
		기타수입	10,000	0	0	6,969											6,969	3,031	69.69
합 계			33,924,937	33,914,937	0	6,969										33,921,906	3,031	99.99	

4. 일반회계 지출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단위: 원)

관	항	과목	예산액		전용후 최종예산	지출액											누계	예산대비 잔액	집행율(%)		
			최초예산	전용예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과 외 기 타 부 속 기 관	유 지 비	관리비	11,000,000			725,228	785,658	747,328										2,258,214	8,741,786	20.53	
		신문도서비	1,200,000			66,000	66,000	218,000											350,000	850,000	29.17
		소모품비	3,000,000			144,000	9,000	144,000											297,000	2,703,000	9.90
		통신비	2,400,000			140,930	154,870	169,350											465,150	1,934,850	19.38
		인쇄비	500,000			0	38,000	344,000											382,000	118,000	76.40
		비품비	5,000,000			0	0	450,000											450,000	4,550,000	9.00
		기타유지비	1,500,000			43,990	105,680	84,160											233,830	1,266,170	15.59
		차량 유지비	7,000,000			184,900	1,358,000	712,660											2,255,560	4,744,440	32.22
		복리후생비	13,000,000			1,082,369	1,003,569	1,073,000											3,158,938	9,841,062	24.30
			항 소계	44,600,000			2,387,417	3,520,777	3,942,498											9,850,692	34,749,308
업 무	추 진	직무활동비	1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9,000,000	25.00	
		항 소계	1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9,000,000	25.00	
		관 소계	56,600,000			3,387,417	4,520,777	4,942,498										12,850,692	43,749,308	22.70	

관	항	과목	예산액		전용후 최종예산	지출액									누 계	예산대비 잔액	집행율(%)			
			최초예산	전용예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1,000,000			1,014,100	611,500	978,200									2,603,800	8,396,200	23.67	
		항소계	11,000,000			1,014,100	611,500	978,200										2,603,800	8,396,200	23.67
	회의비	총회	1,500,000			0	0	0										0	1,500,000	0.00
		대의원대회	5,000,000			0	0	3,009,590										3,009,590	1,990,410	60.19
		운영위원회	3,000,000			106,000	120,000	893,180										1,119,180	1,880,820	37.31
		집행위원회	1,200,000			0	0	0										0	1,200,000	0.00
		기타회의	1,500,000			0	0	22,900										22,900	1,477,100	1.53
		사무장단회의	1,000,000			0	135,000	0										135,000	865,000	13.50
		항소계	13,200,000			106,000	255,000	3,925,670										4,286,670	8,913,330	32.47
	수련회비	교섭위원 수련회	1,500,000			0	0	0										0	1,500,000	0.00
		간부수련회	7,000,000			0	674,900	983,640										1,658,540	5,341,460	23.69
		기타수련회	1,000,000			0	0	319,990										319,990	680,010	32.00
		항소계	9,500,000			0	674,900	1,303,630										1,978,530	7,521,470	20.83
	부서 사업비	총무사업비	1,000,000			50,000	50,000	50,000										150,000	850,000	15.00
		조직사업비	13,000,000			993,600	89,650	1,444,000										2,527,250	10,472,750	19.44
		미.비사업	3,500,000			123,000	21,000	15,000										159,000	3,341,000	4.54
		교육사업비	3,500,000			0	0	450,000										450,000	3,050,000	12.86
		선전사업비	5,000,000			52,500	585,000	0										637,500	4,362,500	12.75
		정책사업비	2,000,000			0	0	0										0	2,000,000	0.00
		노안사업비	3,000,000			40,000	201,000	0										241,000	2,759,000	8.03
		법규사업비	400,000			0	0	0										0	400,000	0.00
		문체사업비	2,000,000			59,000	0	45,000										104,000	1,896,000	5.20
		항소계	33,400,000			1,318,100	946,650	2,004,000										4,268,750	29,131,250	12.78
	위원회 사업비	정치위원회	500,000			0	0	0										0	500,000	0.00
		여성위원회	1,200,000			0	75,500	0										75,500	1,124,500	6.29
		통일위원회	500,000			0	0	0										0	500,000	0.00
		선거관리위	500,000			131,000	0	132,500										263,500	236,500	52.70
		감사위원회	3,700,000			950,100	0	58,700										1,008,800	2,691,200	27.26
		항소계	6,400,000			1,081,100	75,500	191,200										1,347,800	5,052,200	21.06
	집회 연대 사업비	대외협력	1,000,000			200,000	43,000	200,000										443,000	557,000	44.30
		추모사업비	300,000			0	0	0										0	300,000	0.00
		집회행사비	12,000,000			4,000	740,910	634,000										1,378,910	10,621,090	11.49
항소계		13,300,000			204,000	783,910	834,000										1,821,910	11,478,090	13.70	
관소계	86,800,000			3,723,300	3,347,460	9,236,700										16,307,460	70,492,540	18.79		
예비 비	예비비	834,278			0	0	0										0	834,278	0.00	
	관소계	834,278			0	0	0										0	834,278	0.00	
합 계		144,234,2780			7,110,717	7,868,237	14,179,198										29,158,152	115,076,126	20.22	

5. 특별회계 지출 현황

5-1. 특별회계 1(투쟁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대비 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투쟁기금	투쟁기금	투쟁기금	31,728,316	1,793,800	2,055,000	0											3,848,800	27,879,516	12.13
	지부결의금	지부결의금	40,778,403	0	0	0											0	40,778,403	0.00
합 계			72,506,719	1,793,800	2,055,000	0											3,848,800	68,657,919	5.31

5-2. 특별회계 2(미조직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대비 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미조직기금	미조직기금	미조직기금	2,772,204	0	1,200,000	10,800,000											12,000,000	-9,227,796	432.87

5-3 특별회계 3(지역공동사업비) 지출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대비 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지역공동사업비	지역공동사업비	지역공동사업비	115,182,293	13,075,440	767,770	3,916,840											17,760,050	97,422,243	15.42

5-4. 특별회계 4(해고자활동기금) 지출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대비 잔액	지출율 (%)	
관	항	목	당초예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활동기금	활동기금	해고자지원	33,924,937	600,000	600,000	600,000											1,800,000	32,124,937	5.31

6. 총수입, 총지출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단위: 원)

항목	총수입	총지출	잔액	지출율(%)	비고	
일반회계	37,078,909	29,158,152	7,920,757	78.64		
특별회계 1.	투쟁기금	31,719,234	3,848,800	27,870,434	12.13	
	지부결의금	40,767,004	0	40,767,004	000	
	소계	72,486,238	3,848,800	68,637,438	5.31	
특별회계 2.	미조직기금	14,752,822	12,000,000	2,752,822	81.34	
특별회계 3.	지역공동사업비	62,492,687	17,760,050	44,732,637	28.42	
특별회계 4.	해고자활동기금	33,921,906	1,800,000	32,121,906	5.31	
합계	220,732,562	64,567,002	156,165,560	29.25		

7. 총수입, 총지출, 시재 현황

기간: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2월 31일(단위: 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총잔액	통장번호	통장잔액	통장용도	비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37,078,909	29,158,152	7,920,757	1. 132-077-725100	7,698,737	일반회계-교부금	교부금 수입 및 일반회계 지출
					현금보유	222,020		
	소계	37,078,909	29,158,152	7,920,757	소계	7,920,757		
특별회계1	투쟁기금	31,719,234	3,848,800	27,870,434	2. 132-077-725011	27,870,434	노조지원금	일반회계 잔여금, 노조 지원금 등 수입 및 지출
	지부결의금	40,767,004	0	40,767,004	3. 132-077-725244	40,767,004	지부투쟁기금	지부 별도 결의한 지부투쟁기금 수입 및 지출
	소계	72,486,238	3,848,800	68,637,438	소계	68,637,438		
특별회계2	미조직기금	14,752,822	12,000,000	2,752,822	4. 132-077-725162	2,752,822	미조직기금	미조직기금 교부 및 지출 통장
특별회계3	지역공동사업비	62,492,687	17,760,050	44,732,637	5. 132-077-725193	44,732,637	지역공동사업비	지역공동사업비 교부 및 지출
특별회계4	해고자활동기금	33,921,906	1,800,000	32,121,906	6. 132-077-724698	32,121,906	해고자활동기금	활동기금 수입 및 지출
합계	220,732,562	64,567,002	156,165,560		156,165,560			

안 건 1

8기 2년차 사업추진계획 승인 건

- 의결주문

제출된 경기지부 8기 2년차 사업추진계획(안)을 심의하여
승인해 주십시오.

틈을 열자

- 경기지부 2015년 세부사업계획 -

1. 지금 우리

- 지금 우리 현실을 본다는 것은 사업계획 맨 앞에 붙이는 상투적 얘기가 아니라 올 해 우리 모두가 외치며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 2011년 복지이슈부각과 함께 ‘복지국가’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게 국가냐”는 한탄이 나왔죠. 복지국가는커녕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보살펴줄 ‘국가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 국가만이 아니라 ‘무너진 사회’를 확인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걸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통해 확인했죠. 한집건너면 청년 장미족(장기미취업), 연애-결혼-출산포기 등 3포를 넘어 내집마련-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세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포세대를 떠안고 가는 부모와 청년들의 알바노동이 수두룩하죠. ‘노인을 위한 복지’ 약속은 사라지고 대책 없는 노년층이 늘어가요. 단지 5년 임기 박근혜정권 지지율이나 정권찬반 수준을 넘어선 훨씬 근본적 문제죠.
- 무너진 사회는 ‘혐오사회’로 돌변하고 있죠. 팍팍한 삶을 사는 시민의 삶의 아픔은 삭제되고 분노를 드러내지 못해 ‘삭제된 갈등’을 안고 살죠. 분노와 갈등을 삭제하고 경쟁만 강요하죠. 용이 날 개천 자체가 없어요. ‘민주-평등사회’ 꿈은 사라지고 ‘수직경쟁사회’에서 삶이 나아질 희망이 사라졌어요. 좌절한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 자살을 세계최고죠. 이젠 자살을 넘어 ‘혐오’가 튀어나와요. 일베청년들의 세월호 가족에 대한 혐오, 민주화에 대한 혐오, ‘김치녀’를 비롯한 여성혐오 등과 엮이게 사건들이 벌어지죠. 강남의 40대 가정이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고 세종시 편의점 업종살인 후 자살 등 아픔과 분노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하는데 ‘억압된 욕망’은 ‘절망자살’을 넘어 ‘혐오’가 되어 나타나요.
- 군사독재시대, 민주화시대, IMF환란의 시대에도 쭉쭉 커온 재벌과 자본은 경제살리기, 기업살리기를 앞세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하기 옛 같은 나라’를 만들었죠. 2008년 금융위기도 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침체와 저성장의 시대가 오면서 그들의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무능한 자본가계급은 함께 살림을 늘려 나누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비정규직과 영세중소사업자들을 착취하는 ‘갑질’을 해왔죠. 딱 이쪽으로 ‘노동시장구조개혁’을 통해 그나마 쥐꼬리같은 노동자의 권리도 빼앗아 불안정 노동의 전면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언론이 깃발 있는 대학교수를 앞세워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한국기업을 다시 뛰게 하자”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해서 비난이 일어났어요.

- 한 설문결과 청년들은 “한국자본주의가 확 망해야 그 다음이 보인다”고 했죠. 세계금융위기 후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과 같았던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는 사라지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죠. 한국 금리도 오를 텐데 엄청난 가계부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암울하죠. 돈벌이가 없으니 전셋집 대신 월세로 서로를 돈벌이를 하다 보니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택마련을 포기당한 청년들은 월세로 착취당하고 도시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고시원들에 의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 영망국가에 찌질한 자본가에 맞서 사회를 바꾸려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운동’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설픈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는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헛소리가 되었죠. 노동운동의 위기 진단은 이젠 한가한 소리죠. “왕년에 이랬다”를 내세우기보다 “망했다”는 뼈저린 현실인정을 해야 쿨~하게 다시 설 수 있대요.
- 깍소리도 못하고 잘리는 사람들은 그나마 굴뚝에 올라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투쟁도 권력”이라 느낀대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저지하려 민주노총이 총파업 결의를 했어요. 파업은 노조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죠. 총파업이 되냐 마냐를 떠나 다수 노동시민들에게 탄 나라 얘기처럼 들린답니다. 훨씬 더 낮은 자세로, 먹고사느라 진보보수 생각할 겨를이 없고 삭제된 갈등과 억압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꿈틀 댈 수 있는 틈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소중히 여겨야죠.
- 정권에 맞선 ‘큰 투쟁’인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선 총파업 전선에 기꺼이 나섭시다. 이와 함께 “낮은 승리”를 위한 노력도 소중해요. 우리가 만들 ‘노조의 향기’는 바로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울 틈, 혐오사회를 되돌린 희망의 틈, 무너진 지역사회운동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2.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 8기 지부는 활력확산을 내걸고 작년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2015년 사업방향으로 “활력확산 한 발 더”를 결의했죠. 크게는 첫째는 단결불패를 위한 활력사업, 둘째는 ‘권리함께’를 위한 확산사업으로 잡았죠.
- 단결불패를 위한 활력사업으로서 ①소수노조의 관계진단 : 1월부터 현장관계진단사업을 진행하고 주연테크도 시작했어요. 삼성지회는 4월에 본격 시작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관계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구조조정 위험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및 즉각 대응 : 하이디스 먹튀, 정리해고에 맞서 대만원정투쟁까지 진행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 중입니다. ③ 단결불패의 현장노동문화강화 : 새롭게 문화담당자 모임을 정례화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④ 노조의 향기를 위한 순회잡담 : 1~2월에 안산1, 평택포승용인, 안양, 안산(화성)2로 권역별로 모여 함께 먹으며 마시고 잡담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혀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쪽팔리는 등벽보에서부터 교통불편만 끼치는 거리행진에 대한 강한 성토와 함께 시대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어요.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것을 함께 챙겨야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느끼고 희망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

다.(별첨보고)

- ‘권리함께’를 위한 확산사업은 ① 끼리 넘어 함께 : 권역별로 모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의 향기잡담도 권역별로 하고 세부실천을 이번 사업에 담았어요. ② 때로 세우는 권리 :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의 화스택, 오스람, 이수엑사보드 등에서 신규노조가 생겼고 본격적인 투쟁기에 돌입하면 현장과 함께 지부가 집단적 행동을 시작합니다. ③ 곁따라 권리 함께 : 두원정공 계열사 조직사업은 광주,충남의 조건에 따라 휴지기, 다른 사업장은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④ 전략적 권리공유사업 : 안산에서 공단조직화사업, 도본부와 지역단체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단투 준비는 12월부터 지부 단체협약위원회 논의를 진행해 이번 임대사업계획에 담았습니다. 2월 전조합원 설문조사(결과별첨)를 진행해 문제는 간부들이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받아 안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만큼 조합원의 변화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지부운영과 관련해서 새롭게 정책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2회에 걸친 지부발전전망 정책토론을 진행했습니다.(별첨보고) 지역지회 전망을 위한 간담회도 지역지회간부들과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 이런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3. 2015년 ‘노조의 향기’를 향해 나갑시다

가. 틈을 만듭시다.

무너진 사회의 숨쉬 틈, 희망의 틈을 만드는 2015년을 만듭시다. 모든 노동을 알바노동으로 만들고 모든 노동을 불안정상태로 빠뜨리려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을 막아내고 밀리고 밀려온 노동자들이 다시 희망을 꿈꿀 틈을 엮시다.

나. 지역밀착 사업을 강화합시다.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모이고 얘기하고 노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야 뭉치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희망의 틈을 열어 갑시다.

다. 낮은 승리를 같이 경험합시다

무권리의 노동시민들이 권리를 경험하고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권리함께운동’을 벌입시다. 미조직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시다.

4. 이런 활동을 합니다

가. 4대투쟁을 합니다.

- 2015년 상반기에 노동시장개악 저지 투쟁, 구조조정사업장 투쟁, 신규노조투쟁, 임단협투쟁을 합니다.
-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선 전국총파업에 함께 모이면서 지부는 각 투쟁을 진행하면서 전조합원 체육대회, 투쟁기의 파업문화축제로 핵심 활동줄기를 잡아갑니다.

나. 2015년 지역밀착활동을 더 강화합니다

- 조합원 설문결과 노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포함한 노조의 활동들을 개발합니다.
- 6년째인 화요일실천을 발전시켜 작년부터 시작한 권역별실천을 더 강화합니다.
 - 지역선전전, 신규노조집중지원, 지역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천, 지역사회와 관계망을 만들어 지역사회운동 촉진, 풀뿌리단체들과의 지역사업들, 탁아-육아-교육-청년들의 삶-고령층 등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낮은 실천 등 각 권역에 맞게 집중 활동을 논의, 결정, 실천합니다.(3월말까지 권역별 논의, 4월부터 본격실행)
 - 조합원설문과 '노조의 향기'잡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밀착사업의 비중을 높이도록 합니다. 지부와 사업장 모두 예산, 인력, 활동 등에서 지역밀착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밀착사업 1실천 방안'을 찾아 집중활동을 벌입니다.

다. 승리의 사례들을 만듭시다.

- '단결불패'의 교훈을 깊이 새기며 현장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입니다. 의미와 재미가 함께할 때 현장조직력은 강화됩니다. 소집단놀이, 소체육대회 등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깨알같은 현장놀이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활력을 높이고 더 넓고 깊은 관계를 맺어 노조고립을 돌파해 나갑니다.(우창, 주연, 삼성지회 등 관계진단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장실천사업을 확정 지부가 인적물적지원을 통해 진행)
- 신규사업장 하나하나가 노동권이 바닥인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함께 세우고 지킵시다. (오스람, 이수엑사보드, 현대위아비정규직 포승공장, 삼성지회, 삼성서비스 경기남부 등)
- 경기지부는 노조기획파괴, 직장폐쇄에 맞서 승리의 사례들을 쌓아 왔습니다. 올해도 하이디스 등

투쟁사업장의 승리사례를 만들고 전파합시다. (하이디스 각 사업장 지원연대방문 진행, 정리하고 강행 시 긴급대대, 특별결의)

5. 2015년 임단협

가. 기초

- 그동안 경기지부 전통으로 세워온 것 처럼 집단교섭을 조직적 단결의 전술적 중심으로 세워 나갑시다.
- 요구안의 관철 자체만이 아니라 임투 공간을 활용하여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노동권의 확산을 위한 사업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나갑시다.

나. 요구안

2015년 경기지부 공동요구안

1. 임금인상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159,9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2. 공동요구안

1) 사회공헌기금

- ① 회사는 사회적 책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 ② 회사는 소외계층 지원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해당 사업장 조합원 1인당 (3만원)의 금액을 부담한다. - 매년 1회
- ③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운영한다.

2) 취업규칙 및 제 규정 개정 절차

- ①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 변경시 기존합의(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 및 집 단교섭 합의서 등)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합의하여야 하며, 개별동의 를 통해 변경 할 수 없다.

3) 확대간부 수련회

경기지부 관계사용자는 년1회(1박2일) 확대간부 수련회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 요구안 해설 - 별첨자료 참고

6. 2015년 경기지부 투쟁계획

가. 추진 흐름

- 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4월, 6월말 7초 총파업 총력 투쟁에 적극적으로 복무한다.
- ② 2~3월 현장에 활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관계진단, 구조조정 대응, 현장노동문화 강화사업을 완강 하게 진행하면서, 경기지부 임대이후 지역 모든 역량이 함께 하는 권역별 화요공동실천과 권역별 문화제를 계승 발전 시켜 나간다.
- ③ 3~6월은 하이디스 구조조정 정리하고 분쇄 투쟁과 오스람 등 신규투쟁을 승리로 만들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여 승리해야 한다.
 - 3월부터 예견되는 하이디스지회 구조조정 정리하고 분쇄 투쟁과 오스람, 이수엑사보드투쟁을 승리 로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지부가 때로 세우는 신규노조 설립투쟁에 집중한다.
- ④ 현장조직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 5월말 경기지역 금속노동자 체육대회(노동자시민한마당)을 조 직하고, 7월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총궐기 및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 권역별 단합대회, 소체육대회, 동호회 교류사업을 통해 현장을 조직하고 5월말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체육대회(노동자시민한마당)를 조직하고 7월 초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켜 내야 한다.
- ⑤ 7월 경기지역금속노동자 및 총파업 투쟁을 통해 2015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낸다.
 - 현장 임·단협 투쟁과 권역별 활동을 기반으로 7월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한

다.

- 7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15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쟁취와 임·단협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한다.

나. 기획선전

※ 대의원대회, 간부수련회, 현장간담회 등도 적극 활용하여 2015년 투쟁을 결의 한다.

1) 선전방식

- 격주 1회 진행
- 전사업장 동시
- 중식선전전

2) 선전내용

- 총파업 총력투쟁,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 하이디스 구조조정 저지! 신규설립 투쟁 승리 등
- 체육행사, 체육대회 및 노동시민한마당, 총파업

다. 세부추진 일정

1) 권역별 공동실천

- 2년차 공동실천 관련 권역별 기획안을 3월 말까지 권역별로 논의하고 4월부터 본격 실행하도록 한다.

권역별 공동실천 예시>

1. 지역선전전
2. 신규노조집중지원 (권역에 따라 공단조직화사업)
3. 지역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실천 - 청소년 오케스트라지원, 재래시장활성화 노력 등
4. 지속적 지역사회와 관계망을 만들어 지역사회운동 촉진
5. 풀뿌리단체들과의 지역사업들 : 여성, 환경, 교육, 지역자치운동 등 1실천 지원연대
6. 탁아-육아-교육-청년들의 삶-고령층-이주노동자-여성 등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낮은 실천

7. 권역별 모임과 단결강화를 위한 소체육대회

① 볼링대회

- 일시: 권역별
- 장소: 추후섭외
- 방식: 3인 1조 복식 진행,
- 시상: 팀별로 3명 1팀 우승, 준우승 시상,
개인 남녀 우승, 준우승 시상.

② 탁구대회

- 일시: 권역별
- 장소: 추후논의
- 방식: 사업장별 예선전 진행하여 개인전, 복식 선수 선발하고 5월초 경기지부 탁구대회 진행.
- 시상: 개인, 복식 우승 준우승 시상

③ 당구대회(사업장별 또는 권역별)

- 일시: 권역별
- 방식: 사업장별 또는 권역별로 진행하고, 권역별 진행시 경기지역공동사업비로 지출한다.
- 시상: 사업장 또는 권역별 조건에 맞게 자체 예산으로

④ 사업장 소체육행사

- 일시: 사업장별
- 방식: 사업장별로 공동체놀이(웃놀이, 현장볼링대회,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경기 지부 소속사업장에 결합(초대) 요청하여 진행하는 방식, 간단한 다과회 및 단합대회 진행 가능.

2) 구조조정 신규사업장 집중 투쟁

- 하이디스, 오스람, 이수엑사보드 등 투쟁 집중

① 3/8일 또는 16일 주간 하이디스 대만 2차 원정투쟁

- 대상: 경기지부, 하이디스 조합원 및 경기지부 소속 사업장 참가단위
- 방식: 하이디스자본의 정리해고 철회와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2차 대만원정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상주하는 대만원정투쟁단에 소속사업장이 순환하여 결합한다.

② 3/중하순 오스람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 대상: 오스람 전체조합원 및 경기지부 확대간부
- 내용: 교섭상황을 보면서 집중투쟁을 배치한다.

③ 4/초 하이디스 금속노조 결의대회

- 대상: 하이디스전체 조합원 및 경기지부 확대간부, 금속노조 집중(상황판단 필요)
- 내용: 하이디스 자본이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 차원의 집중집회를 요청하여 전개한다.

※ 하이디스, 오스람, 이수엑사보드의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매일 집중투쟁을 배치한다. 신규설립투쟁 중인 오스람과 엑사보드는 사전투쟁을 배치하여 6월중 타결국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3) 소규모 체육행사

- 지난해 까지 지부차원에서 진행. 올해는 권역별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시 지부차원에서 진행. 권역별 진행시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4) 세월호 1주기 관련 사업

① 일시: 2015년 4월 16일 전후

5)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체육대회(노동자시민 한마당)

① 일시: 2015년 5월 30일(토), 10시

② 장소: 추후

③ 주최: 경기지역공동운영위

④ 참가조직 목표: 1,500명이상(가족포함)

⑤ 프로그램

- 거리대행진(퍼포먼스 판단필요)
- 어린이 참가프로그램
- 가족 체험부스
- 체육행사
- 문화공연 프로그램

6) 권역단합대회

- 시기: 6월 중

- 경기지역 총궐기 진행 후, 파업투쟁 결의를 위한 각 권역별로 간부 및 조합원 단합대회를 공동 기획하고 경기지역 금속노동자 총궐기 파업투쟁 승리를 힘차게 결의한다.

- 프로그램은 권역사업장들이 별도 논의

7) 권역 문화제

① 일시: 2015년 6월 중 퇴근 후

② 장소: 안산, 평택포승, 이천, 안양권 등 가능한 지역 진행(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

-다양한 지역단위와 함께 문화제를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한다.

-부스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8)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총파업 투쟁

① 일시: 2015년 7월 초

② 장소: 투쟁사업장 또는 수원도심.

③ 주최: 경기지역공동운영위

③ 참가조직 목표: 1,500명이상(가족포함)

투쟁일정표

	총연맹, 금속노조	지부	지회(분회)
2월	-투본전환, 실천단조직	-지회장 결의대회 조직, 조합원 교육 집중 -하이디스지회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관계진단사업, 정책토론, 투쟁계획 수립 -2/8일 하이디스 대만원정투쟁 -2/27일경 하이디스 정리해고대상자 통보 예상 -2/28일 이수엑사보드설립총회	-지회장 결의대회 조직, 조합원 교육 집중 -임단협 요구안 확정
3월	-임대(3.3) 제조연대 대응, 노사정위 대응, 대국민 집중선전, 지회장 결의대회 (3/20)	-3/초 경기지부 하이디스 정리해고 규탄 집중집회 -3/9일 경기지부 임대 -3/9일 주간 사업장 임단협요구안 발송 -3/8일 또는 16일 주간 하이디스 대만 2차 원정투쟁 조직 -3/16일부터 권역별 실천 기획회의 -3/중순 오스람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3월/말 하이디스 정리해고 철회 집중투쟁 ※사업장 조합원교육 집중	-3/9일 경기지부 임대 -3/9일 주간 사업장 임단협 요구안 발송 -3/8일 또는 16일 주간 하이디스 대만 2차 원정투쟁 조직 -3/16일 권역별 공동실천 기획회의 -3/중하순 오스람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3월/말 하이디스 정리해고 철회 집중투쟁 ※사업장 조합원교육 배치
4월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 -중앙교섭돌입(4월7일) -4/24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파업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조직 -권역별 실천 시작 -4/초 지부확간수련회 -4/초 하이디스 금속노조 결의대회 -4/16일 전후 세월호 1주기 -4/17일(토) 탁구대회 -4/24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하이디스, 오스람, 이수엑사보드 투쟁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조직 -4/초 지부확간 수련회 -4/초 하이디스 금속노조 결의대회 -4/16일 전후 세월호 1주기 -4/24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파업
5월	-5/1일 노동절 투쟁 집중, 유연화 저지 대정부 대자본투쟁	- 5/1일(금) 노동절 투쟁 - 5/30일(토)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체육대회(노동자시민한마당) -하이디스, 오스람, 이수엑사보드 투쟁	-5/1일(금)노동절 투쟁 조직 - 5/30일(토)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체육대회(노동자시민한마당) -사업장 또는 권역별 당구대회 -사업장 소체육행사 -지부지회 집중교섭

6월	-영역별 집중투쟁(최저임금, 비정규, 제조업), 조정신청(6월10일)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신청(6월10일)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권역별 단합대회 -권역별 문화제 -오스람,이수엑사보드 신규 집중투쟁(타결국면 조성) -하이디스, 오스람, 이수엑사보드 투쟁	-조정신청(6월10일)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권역별 단합대회 -사업장 소체육행사 -권역별 문화제 -오스람,이수엑사보드 신규 집중투쟁(타결국면 조성)
7월	-노동법 개정 시기집중 총력투쟁	-노동법 개정 시기집중 총력투쟁 -7/초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총파업 투쟁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노동법 개정 시기집중 총력투쟁 -7/초 경기지역금속노동자 총파업 투쟁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8월	- 투쟁마무리	- 투쟁마무리 - 간부여름캠프	- 투쟁마무리 - 간부여름캠프 참가
9월	-금속노조 9기 임원선거(9월)	-지부,지회 임원선거(9월)	-지부,지회 임원선거(9월)

7. 지부발전전망을 함께 열자

가. 무너진 사회, 실패한 사회운동을 세우는 지역운동의 중심으로서 경기지부의 전망을 분명히 하자.

첫째, 현장의 요구

노조의 향기간담회를 통해 노조에 대한 주변의 강성과격.이기적.빨갱이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내 것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동시민 등 우리 것을 챙겨야 하고 공장을 넘어 아픔을 함께하자는 얘기였다. 좌우, 보수진보, 세대를 넘어 구체적 생활에서 밀착과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익숙한 방식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들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무의미한 행진보다 거리 도열 시위, 집회문화 성찰, 시대와 호흡하는 문화형태 등)

둘째. 새로운 노조를 세우려는 절박한 노력

지부발전전망 논의를 통해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는 더욱더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 이제는 신규사업장에서 승리를 위한 미조직사업에 제한된 담당자배치-선전전-조직화등을 넘어서 개별담당자를 넘어서 전 부서와 전 사업장이 함께 하는 입체적 노력, 노조활동자체가 향기를 퍼뜨림으로서 노조하고 싶은 마인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셋째, 지부의 지속적 경험의 축적

경기지부는 6기 이래 화요실천에서부터 8기의 권력별 실천으로 발전, 에스제이엠에서 공포를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 여론에서의 우위를 통한 노조기획파괴의 저지, 두원정공에서 단결불패의 사례를 만들어 왔다. 세월호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아픔에 함께 하는 노력들을 진행해 왔다. 이런 노력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희망의 씨앗을 만들고 이 시대 노조의 역할을 열어가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해 왔다.

넷째, 전국적 지향

금속노조에서는 어용 대 민주의 프레임이 중심이던 시대를 지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사회운동노조의 지향을 얘기하고 있다. 이는 삭제된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세대들의 유니온 운동,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위한 희망연대노조의 실천 등 대안적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들과 함께 다시 민주노조운동을 시대정신에 맞게 부활시키려는 소중한 노력들이다.

다섯째, 사회적 신호

삼포세대를 넘어 오폭세대로 표현되는 청년층, 비정규직의 상징이 된 장그래로 살아가는 밑바닥 노동시장의 노동자들, 엄청난 가계부채를 떠안고 살아가는 시민들, 팽개쳐진 캄캄한 노후를 살아가는 세대등 무수한 갈등들은 삭제되어 있다. 갈등은 삭제되고 경쟁만이 부각된 사회에서 절망은 크다. 분노는 제대로 드러낼 틈을 찾지 못하고 민주화 혐오, 여성혐오, 아동학대, 중복혐오, 가족살인 등 엽기적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다.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모이면 희망이 생긴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시대 노조의 역할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현실과 호흡하는 노조의 모습을 세우자.

나. 권리함께 운동을 지부의 중심사업으로 확고히 만들어 갑시다.

- 조직된 노동자들만을 위한 교섭, 한계에 이른 산별교섭중심의 활동인 “교섭중심모델”에서 미조직 사업을 전면으로 세우는 “조직화중심의 모델”로 나가는 것이 산별운동의 추세다.
- 조직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이 있는 한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에 놓여 있다. 소수의 잘나가는 회사의 강한 노조를 제외한 모든 노조는 언제나 공격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을 끌어 올려 떨어질 위험을 없애 나가지 않는 한 ‘민주노조사수’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운명이다. 따라서 2차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상태의 노동시민들이 저항하고 반란하며 함께 노조를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조가 구린데 노조로 올까? 노조 전면적 성찰과 변화만이 “나도 노조 하겠다”는 대중적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노조이미지부터 개선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정한 단위, 특정한 부서, 특정 담당자의 문제를 넘어서 신규노조가 생기면 지부임원, 각 부서가 함께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미조직사업을 전면화 하자.
- 지역지회 전망과 관련해서 지부의 미조직사업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그 역할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수노조로서 각 분회의 고민 등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역지회 전망을 함께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갑시다.

- 신규노조 편재는 누가 담당하고 어디로 편재할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 함께 세우고, 함께 지키는 지부의 공동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편재보다 중요한 것은 신규노조의 승리와 성공입니다.

다. 2015년 상반기 실천을 통해, 미래를 여는 경기지부 주체를 만들자

- 설문조사, 노조의 향기 잡담 등 현장의 요구들을 그대로 현장과 공유합니다.(3월 9일 임대 직후부터 해방누리 특별호 신문형태로 발간 공유, 전 조합원 교육실시)
- 3말 4초 - 확산수련회를 통해 지부의 사업과 발전방향을 더 깊이 공유합니다.
- 4월부터 집단교섭 시작되면 간부기획교육을 통해 '시대와 호흡하는 노조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부적 기획교육을 진행합니다.
- 상반기 사업을 모아 '여름간부캠프'를 진행합니다.
- 이를 통해 9기 지도부를 힘차게 출범시킵시다.

라. 지부발전전망을 위한 토론

- 이미 진행한 2차의 토론에 이어, 3월6일 3차 토론진행,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 진행.

별첨> 경기도지부 공동요구안 해설

1. 임금인상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9,9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 금속노조는 2015년 기본급 인상요구액을 제시하기 위해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금속노조 조합원 기초·임금현황을 기본 자료로 하고, 조합원들의 요구수준과 2015년 예상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을 개선치 등을 고려하였다.

1) 금속노조 2014년 조합원 기초·임금현황

- 금속노조 2014년 조합원 평균연령과 평균 부양가족수(본인 포함)는 각각 44.02세과 3.7명이다. 또한 2014년 기본급 월 평균은 1,981,726원이며, 월 임금평균(고정급여)은 4,291,443원으로 나타났다.
- 금속노조는 올 1월 금속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4년 조합원 임금기초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 이 조사에 따르면 △평균연령 44.02세 △근속년수 평균 18.31년 △평균 부양가족수(본인 포함) 3.7명이다.
- 또한 2014년 기본급 월 평균은 1,981,726원이며, 월 임금평균(고정급여)은 4,291,443원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평균(고정급여)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46.18%다. 참고로 금속노조는 '임금평균(고정급여)'을 기본급·통상수당·비통상수당과 고정상여월할금액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다.

[표 1] 금속노조 2014년 조합원 기초·임금현황 1)

평균			월할 평균 (단위 : 원, %)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	임금평균	기본급	통상수당	비통상수당	고정상여
44.02세	18.31년	3.7명	4,291,443 (100.0)	1,981,726 (46.18)	507,203 (11.82)	73,994 (1.72)	1,728,520 (40.28)
					제수당 581,198 (13.54)		

* ()는 임금평균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

2)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3.7인 가구)는 5,816,430원이며, 금속노조 2014년 임금평균은 2015

1) 금속노조 2014년 조합원 임금기초실태조사 : 2015년 1월 한 달 간 진행한 본 조사에 금속노조 소속 134개 사업장(조합원 133,748명) 참여. 조합원 실태를 파악하고 2015년 임금요구안을 산출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평균연령·근속년수·부양가족수, 임금항목별 평균금액 등 사업장별 2014년 조합원 기초·임금현황을 조사함.

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의 73.78%에 해당한다.

- 앞서 언급했듯이 금속노조 2014년 조합원 평균연령은 44.02세, 부양가족수(본인 포함)는 3.7명이다. [표 2]의 민주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와 4인 가구② 표준생계비를 사용하여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표 2] 민주노총 가구규모별 2015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①	4인 가구②	4인 가구③
식료품비	379,866	762,242	930,550	1,133,016	1,244,252	1,392,124
주거비	511,919	1,206,993	1,206,993	1,207,790	1,207,790	1,207,790
광열수도비	82,060	112,910	123,490	151,810	151,810	151,810
가구가사집기비	122,726	184,962	220,578	235,269	245,100	248,309
피복비	95,099	190,199	213,972	242,787	269,376	297,907
교육비	-	-	-	460,000	495,000	649,292
교양오락비	543,208	649,833	579,333	675,667	681,833	691,833
교통통신비	175,492	563,099	588,125	626,902	667,702	713,302
보건위생비	130,649	245,740	249,180	253,772	265,772	265,772
조세공과금	235,722	703,464	671,683	960,650	1,030,307	1,196,265
표준생계비(총계)	2,276,742	4,619,442	4,783,903	5,947,662	6,258,942	6,814,404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가구표본 기준

- (1) 1인 가구 : 단신남자(28세), 단신여자(25세) 표준생계비 평균
- (2) 2인 가구 : 가구주(31세), 배우자(28세)
- (3) 3인 가구 :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 (4) 4인가구①: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8세, 초등학생), 남아(6세, 유치원생)
- (5) 4인가구②: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아(13세, 중학생), 남아(11세, 초등학생)
- (6) 4인가구③: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아(17세, 고등학생), 남아(15세, 중학생)

*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 2015년 민주노총 3인가구 표준생계비 4,783,903원 + (4인가구 ② 표준생계비 6,258,942원 - 3인 가구 표준생계비 4,783,903원) × 0.7 = 5,816,430원

- 즉, 금속노조 2014년 임금평균(4,291,443원)은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5,816,430원)의 73.78%이며, 금속노조 2015년 표준생계비와 2014년 임금평균의 차액은 1,524,987원이다([표 3])

[표 3] 금속노조 표준생계비(2015)와 임금평균(2014) 비교

부양 가족수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가)	2014년 조합원 임금평균 (나)	표준생계비와 임금평균 차액 [(가)-(나)]	표준생계비대비 임금평균 비중 [(나)÷(가)×100]
3.7인	5,816,430원	4,291,443원	1,524,987원	73.78%

3) 2015년 표준생계비 충족률 기준사항

- 금속노조는 임금요구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조합원들의 요구수준과 금년 예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예상치, 소득분배율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다.

- 한국은행은 올 1월 16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전망』을 통해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각각 1.9%와 3.4%로 예측했다.
-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중에서 노동에 분배된 소득의 비율로 생산요소 간의 소득분배 실태를 반영한다. 임금요구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이 중에서도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 즉 ‘피용자보수’의 현황 및 추이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 <표 4>에 나와 있듯 한국의 피용자보수율(피용자보수/국민총소득*100)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된 거의 모든 연도의 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²⁾ 또한, 2000년대 들어 가계의 소득 증가율(2001~12년 5.7%)이 기업의 소득증가율(9.8%)을 크게 밀돌면서 기업/가계소득 비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기업부문에서 부가가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용자보수의 인상이 저조하고 가계부문에서 임금이 부진한데 주로 기인한다.³⁾

[표 4] OECD 회원국 피용자보수율

	1990	2000	2010	2011	2012
호주	50.0	49.1	47.4	48.1	48.7
오스트리아	50.3	48.5	47.2	46.8	47.4
벨기에	49.8	49.8	50.1	50.4	51.0
캐나다	53.4	49.8	50.5	50.2	50.7
칠레		39.8	36.1	37.2	38.9
체코		38.6	40.2	40.4	40.9
덴마크	52.2	49.9	53.0	52.7	52.4
에스토니아		45.2	47.3	45.5	45.6
핀란드	54.0	46.6	49.4	49.2	50.4
프랑스	50.5	50.6	52.1	51.9	52.2
독일	52.9	53.0	49.8	49.5	50.5
그리스	31.9	31.0	35.8	35.4	34.2
헝가리		44.1	44.5	44.3	44.3
아이슬란드	45.2	53.4	48.5	50.0	51.5
아일랜드	44.3	38.6	42.5	41.0	40.6
이스라엘		49.4	46.1	46.3	45.6
이탈리아	41.7	36.9	40.0	39.8	40.0
일본	50.6	52.7	50.5	52.0	51.9
한국	42.6	41.0	42.4	42.8	43.5
룩셈부르크	46.4	45.6	49.9	48.7	49.0
멕시코	28.0	29.7	27.6	27.1	27.0
네덜란드	52.0	50.3	49.2	49.5	50.5
뉴질랜드	43.7	40.7	44.5		
노르웨이	48.3	43.1	45.1	44.6	44.9
폴란드		41.3	37.6	36.9	37.0
포르투갈	46.6	48.1	47.2	46.3	44.9
슬로바키아		40.2	37.1	37.1	37.2
슬로베니아		50.5	52.5	51.3	51.3
스페인	47.7	48.5	50.1	49.5	47.6
스웨덴	49.5	45.0	45.5	46.3	47.8
스위스	56.0	55.6	56.5	57.6	58.5
영국	52.9	52.3	52.4	51.2	51.3
미국	55.9	57.0	53.3	53.3	53.3

주: 피용자보수율 = 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100.
 자료: OECD.Stat(2014년 12월 9일 추출).

- 연도별.기간별 추이(<표 5>)를 살펴보니, 임금인상 정도가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 이어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4년 임금보고서(국제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2015.2.12.
 3) 한국은행(성병목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가계와 기업소득간 격차확대의 원인 분석, 2015.1.7.

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7.4%인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5.6%로 매년 1.8%p 덜 올랐다.⁴⁾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계산한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4.5%로 매년 2.9%p 덜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분배구조의 악화로 연결된다.

-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5%이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로 3.3%p 못 미쳤고,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3.4%로 3.1%p 덜 올랐다.
-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피용자보수개선율(3.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그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합계를 실질 임금인상의 최저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 몫이 낮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인상 수준은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예상치=5.3%」 보다 높아야 하고, 소득분배율 개선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표 5] 연도별 주요 지표 추이

연도	주요 경제지표(%)			명목임금 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경제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계	상용직 (5인 이상)	피용자 1인당보수	1인당 국민총소득	노동소득 분배율	취업자대비 피용자비율
1990	9.3	8.6	17.9		16.6	19.6	57.0	60.5
1991	9.7	9.3	19.0		16.6	19.7	58.0	62.7
1992	5.8	6.2	12.0		11.7	12.7	57.9	62.7
1993	6.3	4.8	11.1		13.1	12.0	58.2	62.1
1994	8.8	6.3	15.1		12.2	16.0	58.4	62.9
1995	8.9	4.5	13.4		15.0	15.7	60.4	63.2
1996	7.2	4.9	12.1		12.3	11.3	62.6	63.3
1997	5.8	4.4	10.2		4.4	8.6	61.4	63.2
1998	-5.7	7.5	1.8		4.1	2.7	60.6	61.7
1999	10.7	0.8	11.5		3.1	9.3	59.0	62.4
2000	8.8	2.3	11.1	8.0	4.7	15.4	57.8	63.1
2001	4.5	4.1	8.6	5.1	7.2	7.5	58.9	63.3
2002	7.4	2.8	10.2	11.2	6.3	10.5	58.2	64.0
2003	2.9	3.5	6.4	9.2	7.3	5.9	59.6	65.1
2004	4.9	3.6	8.5	6.0	4.8	7.8	59.1	66.0
2005	3.9	2.8	6.7	6.6	5.8	4.2	61.2	66.4
2006	5.2	2.2	7.4	5.7	3.7	5.0	61.8	67.2
2007	5.5	2.5	8.0	6.9	4.6	7.5	61.2	68.2
2008	2.8	4.7	7.5	3.1	3.9	5.4	61.9	68.7
2009	0.7	2.8	3.5	2.2	2.1	3.5	61.9	70.0
2010	6.5	3.0	9.5	6.4	3.8	9.7	59.4	71.2
2011	3.7	4.0	7.7	-0.9	3.7	5.1	59.9	71.8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05

2012	2.3	2.2	4.5	5.3	3.2	3.3	60.9	71.8
2013	3.0	1.3	4.3	3.8	1.4	3.1	61.4	72.6
2014	3.3	1.3	4.6					
2000-2013	4.4	3.0	7.4	5.7	5.6	4.5	6.7	60.2
1993-1997	7.4	5.0	12.4		11.4	12.7	60.2	62.9
1998-2002	5.1	3.5	8.6		5.1	8.0	58.9	62.9
2003-2007	4.5	2.9	7.4	6.9	5.2	6.1	60.6	66.6
2008-2012	3.2	3.3	6.5	3.2	3.4	5.4	60.8	70.7

*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05

- 참고로 2007~2014년 금속노조 임금요구안을 정리해놓은 [표 6]을 보면 그간 금속노조가 새해 경제전망수치나 노동소득분배율,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조합원 요구수준 등을 임금인상요구기준으로 고려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금속노조 연도별 임금요구안 (2007-2014년)

년도	표준생계비 대비 충족률	기본급 요구액	요구율	임금인상요구기준
2007	70.60%	128,805원	9.16%	민주노총이 표준생계비의 70.5%에 해당하는 인상을 9.0%, 즉 126,631원을 요구. 이는 최저수준의 요구안인 만큼 금속노조는 이를 상회하는 9.16%를 기본급 인상률로 채택함
2008	81.20%	134,690원	8.00%	예상 경제성장률 4.7% + 물가인상률 3.3%
2009	82.90%	87,709원	4.90%	예상 물가인상률 3.0% + 노동소득분배개선을 1.9%
2010	77.50%	130,730원	8.30%	현실적인 요구수준과 타결액수 등을 고려하여 표준생계비의 77.50%인 기본급 130,730원 인상을 요구
2011	71.95%	150,611원	9.00%	예상 경제성장률 4.3%, 물가인상률(상반기) 3.7%, 노동소득분배개선을 2.0%을 고려함
2012	72.84%	151,696원	8.70%	예상 물가인상률 3.3%, 노동소득분배개선치 1.7%(2010년 노동소득분배개선을 3.4%), 예상 경제성장률 3.7%을 고려
2013	73.32%	130,498원	7.10%	예상 물가인상률 2.5%, 노동소득분배개선치 1.8%(2011년 노동소득분배개선을 3.6%), 예상 경제성장률 2.8%, 전년도 임금타결현황 등을 고려
2014	77.07%	159,614원	8.36%	예상 물가인상률 2.3%, 노동소득분배개선치 2.26%(2012년 노동소득분배개선을 2.9%), 예상 경제성장률 3.8% 등 고려

4) 2015년 표준생계비 확보

○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요구수준과 △2015년 예상 물가상승률(연간) 1.9% △2015년 예상 경제성장률(연간) 3.4% △소득분배율 개선치 등을 고려하여 2015년 기본급인상액으로 월 159,902원을 요구한다. 또한 표준생계비 79.73%의 온전한 확보를 위해 임금평균으로는 월 346,258원을 인상해야 한다.

- 금속노조는 2015년 임금인상요구 수준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작년 11월 24일 38차 정기대회에서 『2015년 요구안 및 투쟁방침 금속노조 대의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의원들에게 ‘금속노조 2015년 임금요구안으로 기본급 월평균 ○○만원(호봉·자동승급분 제외) 인상을 제시해야하는지’를 물었다.
- 그 결과 기본급 인상요구액의 평균값⁵⁾을 계산해보니 15만 9천9백 원으로 나타났고, 중위값⁶⁾과 최빈값⁷⁾은 모두 15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년도 임금타결정도⁸⁾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요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응답 중에서 동결(인상액 0원)이나 20만 원 이상의 응답을 제외한 다음, 평균값을 계산해보니 132,300원으로 나타났다. 중위수와 최빈값은 모두 15만원이다.
-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의 요구수준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2015년 예상 물가상승률(연간) 1.9% △2015년 예상 경제성장률(연간) 3.4% △소득분배율 개선치 등을 고려하여 2015년 표준생계비 충족률을 79.7345%로 결정한다([표 7]).
- 이에 따라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5,816,430원)의 79.7345%는 4,637,701원이며, 2015년 기본급(승급분 제외)인상요구액은 월 159,902원이다.

[표 7]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충족률별 임금인상요구액 (단위 : 원, %)

표준생계비		임금평균 인상 요구액(원)	기본급 인상 요구액(원)	요구율 (%)	비고
충족률(%)	금액(원)				
100.00%	①5,816,430	③1,524,987	④704,239	⑤35.54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79.98%	4,651,981	360,538	166,496	8.40	경제성장률(예상) 3.4 + 물가상승률(예상) 1.9 + 08'~12'년 피용자1인당보수개선율 3.1% = 8.4%
79.7345%	4,637,701	346,258	159,902	8.07	설문조사 결과① 159,900원
78.707%	4,577,938	286,495	132,303	6.68	설문조사 결과② 132,300원
77.69%	4,518,784	227,341	104,986	5.30	경제성장률 예상치 3.4 + 물가상승률 예상치 1.9
73.781%	②4,291,443				금속노조 2014년 임금평균(고정급여)

- 또한 앞서 보았듯이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와 그 충족률을 산출하는 데 ‘임금평균(기본급+제수당+고정상여 월할)’을 가장 기본수치로 사용했다. 따라서 표준생계비 79.73%를 온전히 확보하고 고정급 비중 저하를 막기 위해 기본급을 비롯한 제수당·고정상여금 등 고정급(임금평균) 전체 인상정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고정급여 기준으로 월 346,258원을 인상시켜야 한다.

5) 평균값 : 산술평균. 응답 금액의 전체 합을 응답자수로 나눈 값
 6) 중위수 : 중앙값. 통계에서 중심경향 측정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전체 응답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값
 7) 최빈값 : 최빈수. 전체 응답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값
 8) 2014년 조합원 기본급 인상액(승급분 제외) 평균 58,901원(2014/10/31 기준, 114개 사업장/조합원 124,724명)

○ 위 [표 7]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 '임금평균'인상요구액(③)은 2015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3.7인 가구) 5,816,430원(①)과 2014년 금속노조 조합원 임금평균 4,291,443원(②)의 차액을 뜻한다. 즉, 3.7인 가구의 2015년 표준생계비를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평균 1,524,987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 (인상)요구율 35.54%(⑤)은 '임금평균'인상요구액(③)의 2014년 조합원 임금평균(②)에 대한 비율로 「1,524,987원(③) ÷ 4,291,443원(②)×100=35.54%」이다.
- [표 1]에 따르면 2014년 조합원 임금평균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46.18%다. 기본급인상요구액(④)은 임금평균인상요구액(③)의 46.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참고로 예상 물가상승률(1.9%)과 예상 경제성장률(3.4%)의 합은 5.3%로, 이에 해당하는 2015년 표준생계비 충족률은 77.69%(인상요구율 5.3%)이며 기본급인상요구액으로는 104,986원이다.
- 앞서 확인한 '2015년 요구안 및 투쟁방향 금속노조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실적인 요구 수준을 알아보고 최근 임금인상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 인상요구액 응답 중에서 동결(인상액 0 원)이나 20만 원 이상의 응답을 제외한 다음, 평균값을 계산해보니 132,3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표준생계비의 76% (인상요구율 6.68%)에 해당한다.
- 또한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1.9%) △예상 경제성장률(3.4%)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 피용자 1인당 보수 개선율(3.1%) 이 세 가지 수치를 모두 합산하면 8.4%이며, 2015년 표준생계비 충족률 79.98%(기본급인상요구액 166,496원)에 해당한다.

2. 공동요구안

1) 사회공헌기금

- ① 회사는 사회적 책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 ② 회사는 소외계층 지원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해당 사업장 조합원 1인당 (3만원)의 금액을 분담한다. - 매년 1회
- ③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운영한다.

<해설>

- 전년도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중 '노조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과 함께 해야한다.' 는 요구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올해 설문결과도 유사함.
- 그에 따른 단협위, 집행위, 운영위의 평가 및 토론과정에서 사회공헌기금 요구가 제기됨.
- 세부 운영방안(지원대상, 지원기준,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주체 등) 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참고 : 2013년 대구/포항지부 합의내용

사회적 책무	대구지 부	2. 지역복지기금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회사와 조합(대구지부) 지역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회사와(지회)조합원 1인당 월 2.5대 1의 비율로 부담한다. 단 시행시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
	포항지 부	1) 사회복지기금구성 ①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포항지역 관계사용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한다. ②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포항지역 관계사용자는 해당사업장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월 실지금액)에서 1,000원 및 1,000원 미만단위 금액에 대해 일괄 공제하여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고,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추가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다. ③ 사회복지기금은 노사 협의하여 운영한다.

※ 참고 : 각 지부별 사회공헌 및 사회적 책무 관련 합의내용

경기지부	<p>【지역보육시설 운영】경기지부는 지역노동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조성과 자녀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지역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팀을 구성하여 2011년 3월 31일 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필요 시 월 3개사가 유급으로 각 1인씩 교대로 1회에 한하여 16시간/인을 기준으로 사전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하며 그에 따른 경비 지원을 50,000/인. 회를 지원 한다.(2010년)</p> <p>【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 1) 경기지부와 경기지부 관계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과 자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공동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노사는 각 3인의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조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조사범위, 대상) 등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2011년)</p> <p>【사회공헌기금】 회사는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2012년)</p>
인천지부	<p>【사회 공헌적 기금】① 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사용자와 인천지부는 인천지역 실업자, 비정규직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 공헌적 기금을 조성한다. ② 기금조성은 사업장 종업원 수를 감안하여 50인 이하 사업장은 년/150만원(월/12만5천원), 51인~100인 사업장은 년/420만원(월/35만원), 101인~200인 사업장은 년/840만원(월/70만원), 201인~500인 사업장은 년/1,500만원(월/125만원), 501인~1,000인 사업장은 년/2,000만원(월/166만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000만원(월/250만원)을 인천지역 관계사용자가 출연한다. 단, 사업장 종업원 수는 2012년 8월 30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③ 출연방법은 2)항의 기금액을 12월로 분할하여 월별 또는 선납으로 출연한다. ④ 적용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까지로 한다.</p> <p>【 사회복지기금 】인천지부와 지부의 관계사용자는 사회복지기금 조성 과 관련 재단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추후 논의한다.</p> <p>【친환경 무상급식 제안】인천지부와 인천지부 관계사용자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서는 노사공동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별도 논의한다.</p>
경주지부	<p>【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① 경주지역관련사용자는 지역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한다. ② 사회공헌기금은 종업원 200인미만 사업장은 연 150만원, 200인이상 500인미만 사업장은 연 500만원, 500인이상 사업장은 연 1,000만원을 출연한다. ③ 사회공헌기금 마련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며, 노사공동운영위를 구성하여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의 세부안을 2012년 12월말까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2012년)</p>
서울지부	<p>【사회공헌기금】회사와 조합은 서울지역(경기북부지역 포함)을 비롯한 사회 각 지역, 각 계층의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등 사회적 공헌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분기 1회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논의한다.(2012년)</p>
포항지부	<p>【기업의 사회적 책무】1)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p>

	<p>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2)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08년)</p> <p>【사회복지기금】1.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포항지역관계 사용자는 사회작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한다. 2.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포항지역관계사용자는 해당사업장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려 급여(월 실 지급액)의 1,000원 미만단위 금액에 대해 일괄 공제하여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며,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추가로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다. 3. 사회복지기금은 노사 협의하여 운영한다.(2010년)</p>
전북지부	<p>【사회공헌기금】 1) 전북지부 관계사용자와 전북지부는 전북지역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한다. 2) 사회공헌기금은 전북지역 관계사용자가 월 620만원을 출원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의 인원으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장은 조합측에서 맡는다.</p> <p>【지역경제 활성화】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재래시장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해당지회(분회)와 합의 하여야 한다.</p> <p>【급식】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친환경 농, 축, 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p>
대구지부	<p>【기업의 사회적 책무】①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권력층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회사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부식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다.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002년)</p> <p>【지역복지기금】 1. 회사와 조합(대구지부)은 지역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전제로 회사는 조합(지회)이 지역복지기금으로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한다. (2) 기금운용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시행방안은 2010년 12월말까지 조합(대구지부)과 협의한다.(2010년)</p>
울산지부	<p>【초등학생 학교급식비 지원】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울산지역 소속회사 및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울산지역 초등학생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유관기관에 관련 조례제정을 노사 공동으로 요구한다.(2009년)</p> <p>【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 조성】1. 울산지부 소속사업장 조합원(인당 1천원/월)은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자측은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납부 액수와 동일하게 기금을 조성한다. 2. 지역소외계층지원 노사기금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며, 세부 운영방안(지원대상, 지원기준, 기금조성관리 및 운영주체 등)은 2011년 12월말까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011년)</p>
경남지부	<p>【기업의 사회적 책무】① 관계사용자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가능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다. ② 관계사용자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계사용자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한다.</p> <p>【지역경제 활성화】관계사용자는 관계사용자가 지급하는 각종 선물 및 상품권으로 지역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지급기준 가. 전사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선물 및 상품권에 한하여 지급형태 및 단체협약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나. 연간 2회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은 가장 높은 금액으로 1회 이상 다. 연간 1회 지급하는 사업장은 총금액의 반액 이상 라. (통합)창원시 전지역에 적용한다. ② 그외 구체적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리한다.</p>

2) 취업규칙 및 제 규정 개정 절차

- ①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 변경시 기존합의(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 및 집단교섭 합의서 등)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합의하여야 하며, 개별동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없다.

<해설>

- 개별동의를 통해 불이익 변경도 가능토록 하겠다는게 개악법의 취지.(노조무력화)

※ 참고

○현행: 취업규칙 변경절차 - 적용대상자 과반수 의견청취, 불이익 변경시 - 과반수 동의필요.

○비정규 종합대책(노동법개악):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과반수 동의 없어도 개정 가능.
근로조건, 임금, 기타 인사권 등 사용자 의도대로 개정 가능.

3) 확대간부 수련회

경기지부 관계사용자는 년1회(1박2일) 확대간부 수련회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해설>

- 매년 임단협 준비(토론)를 위한 확대간부 수련회를 진행, 시간부족으로 충분한 토론이나 각 사업장 상황이 공유되지 못함.(당일 오후3~4시간)

- 사업장 확대간부 인원수 (집단교섭군 244명)

: 두원46, 우창15, 주연5, 에스제이엠44, 케피코45, 대원안산23, 대원평택18, 계양25, 신한23

※ 참고 - 타 지부(7개) 합의내용

: 충남(지회간부 - 임원,상집,노조/지부대의원 : 분기별 1인당 16시간 부여)

: 인천(지부 확간 - 년10시간)

: 전북(비상근 간부 - 회의,수련회 참가시 유급)

: 대구(확간 - 년 2일 유급, 휴일진행시 특근처리)

: 대전충북(노조/지부 주관 회의, 교육시 해당간부 - 분기8시간)

: 부양(지회 집행간부 - 월4시간, 사업장 단협과 별도)

: 울산(지회 집행간부 - 월4시간, 사업장 단협과 별도)

별첨> 요구안 논의 경과

<1>3차 단협위원회 토론결과(2/4)

<3차 단협위 토론결과>

○ 사회공헌기금

-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사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금규모는 집단교섭군을 중심으로 논의 되는 만큼, 해당사업장 1인당 (3만원) 분담은 너무 왜소한 것 아닌가?
- 신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고민하자. 내년 단협시 대각선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케피코: 지역지원사업, 계양: 재단 학교장학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구체적인 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사례들을 취합하는게 필요하다.
- 연간 7,200만원(2,400명×30,000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 정도 비용으로 온갖 생색은 다 낼텐데... 세부적인 분담액은 의견을 좀더 받아서 정리하자.

○ 취업규칙 및 제 규정 개정 절차

-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과반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 의도대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계약안 상정됨
- 집단교섭 사업장 정도면 이런 내용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 소수노조의 경우 법이 바뀔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집단교섭에서 확보하면 좋겠다.
- 각 사업장 단협 내용 등을 확인해서 가져갈지 말지 차기회의때 판단하자.

○ 확대간부 수련회

- 매년 1회정도 지부 확대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참석인원을 제한하거나 토론이 원활하지 진행되지 못했다. 꼭 확보했으면 한다.
- 지금도 활동시간 많이 쓴다고 난리인데, 회사 죽는소리 하겠네...
- 타 지부(7개)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서 명분은 있다. 한번 해보자.

○ 기타

- 현장 제출안은 설문조사, 간담회 등에서 제안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판단하기로 하고, 차기회의 시 추가 여부를 판단하자.

<2>지부운영위 토론결과(2/9)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중납세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고려가 필요.

- 사회공헌기금 관련 집단교섭 사업장만 출연한다면 문제가 있을 듯.
 - 회사의 돈을 받아 후원하는 것 부정적. 오히려 사회봉사활동 형식처럼 돈보다 실천이 중요한 듯.
 - 이런 일은 지역밀착형으로 진행해야. 지부나 노사간의 협의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
 - 기업 이미지 개선은 우리 일 아님. 사회적 책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실무위원회도 별도구성 방식 말고, 명칭과 팀 구성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 요구에 관해 오해가 있는 듯. 사회봉사활동과 다르다. 지역사업을 한다고 하면 김장해서 어려운 이웃 나누고 그런 활동 하는데, 그런 활동과 성격 다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조. 안산은 이 주노동자가 많고 그들의 노동환경과 삶이 열악하다. 그런데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다.
 - 기존에도 안 내거나, 사업장 상황이 열악한 경우 어떻게 끌어낼지 고민이다.
 - 사업장 별 조건이 다른데 전체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역효과 우려된다.
 - 조합원 당 3만원도 적다. 그러나 좀 더 소액으로 해서 틀을 만드는데 주력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금액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 듯. 집단교섭에서 포문을 열고 대각선 교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 노동조합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만 주력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국민적 공감을 얻는 투쟁 이렇게 가능할까? 장학금 준다면 명칭 뭘로 할까? 금속노조 경기지부 장학금으로 하고, 지원을 받는 학생이 사회적 인식을 갖는 예비노동자로서의 인식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 그런데 노사공동으로 하면 노동조합 이미지나 정신,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나. 그럼 목표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고민이다.
 - 현대케피코지회는 매년 노사협의회에서 추진. 노조에서 진행하는 것은 노조명의 포함 공동명의로 전달. 시민사회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도. 경기권 전체로 한다면 방안을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
- (토론 오늘 결론 낼 필요는 없음. 간담회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많이 나온다. 집행위에서 집약해서 수련회 가서 토론할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하겠다.)

<3> 4차 단협위원회 토론결과(2/13)

- 사회공헌기금
 - 노조 이미지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에스제이엠의 경우 내부 토론을 했는데 적용범위를 조합원으로 하지말고 해당사업장 전 종업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두원은 내부토론은 못했다. 조합원들은 회사 이미지만 홍보하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노조자체적으로 하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 구체적인 지원기준, 기금납부일, 집행시기, 기금운영 사례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 운영위 수련회, 현장토론시 의견을 좀 더 받아서 정리했으면 한다.
- 취업규칙 및 제 규정 개정 절차
 -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과반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 의도대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개

악안 상정됨

- 취업규칙 등 제 규정 개,폐 관련 단협내용 : 두원(조합과 합의), 대원(협약), 에스제이엠(사전협약), 우창(합의), 주연(협약), 현대케피코(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경우엔 합의)
- 단협위 의견은 원안을 가져가는 것으로 함.

○ 확대간부 수련회

- 원안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각 사업장 확대간부 인원수를 파악한다.
(두원46, 우창15, 주연5, 에스제이엠44, 케피코45, 대원안산23, 대원평택18) 계양, 신한 별도확인.

○ 기타

- 너무 많은 요구안이 제시되면 교섭과정에서 사측에 의해 희석되거나 집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임금 포함)을 중심으로 운영위에서 판단했으면 한다.

<4> 노조 단협실 - 검토 의견(2/25)

2) 취업규칙 및 제 규정 개정 절차

① 회사는...

②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합의하여야 하며, 개별 동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없다.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없다.' -> '개별 동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없다.' 로 수정

별첨> 조합원 설문 결과

2015년 경기도지부 임단협 설문지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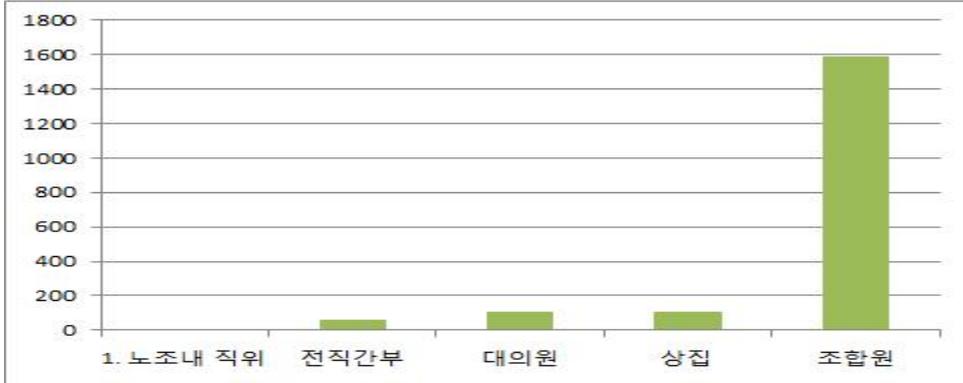
1. 설문지 배포현황

지회	조합원 수	설문지 배포	수거 수량 (2/23현재)
계양전기	186	190	160
대경티엘에스	3	-	-
대원안산	180	179	141
대원평택	149	149	84
두원정공	466	458	415
르그랑코리아	12	12	7
우창정기	53	51	45
에스제이엠	270	200	184
주연테크	11	9	9
현대케피코	897	890	513
포레시아	20	20	15
하이디스	198	200	
한라비스테온공조평택	392	-	-
인지컨트롤스안산	97	100	
우리지회	16	20	
삼성지회	8	8	
현대위아비정규평택	98	100	
한국쓰리엠(화성)	37	40	
경기금속지역지회	15	-	
동아공업	6	6	4
대한솔루션	53	70	51
신한발브	231	230	114
이젠텍	7	-	-
파카한일유압	16	6	
승림카본	6	3	2
분회			
신흥	12	12	7
시그네틱스	51	25	25
중앙바이오텍	12	12	12
안산시흥일반	65	15	
오스람코리아	115	120	89
지성테크	26	26	
계	3,708	3,151	1,877 (59.56%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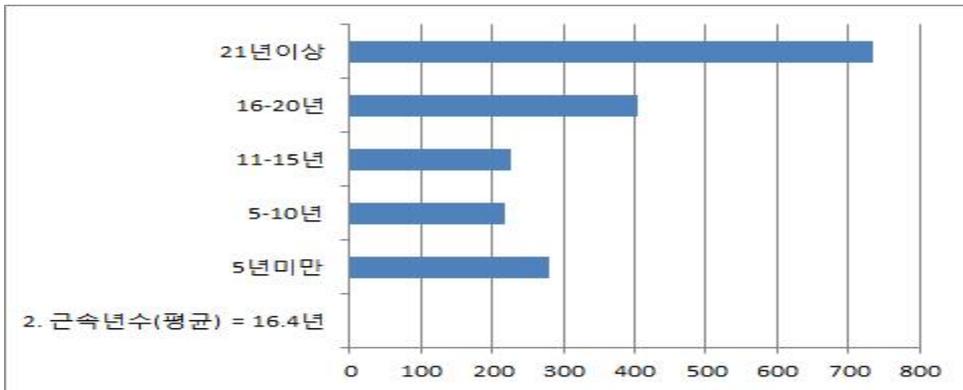
* 미 배포 : 대경TSL, 이젠텍, 한라평택

2. 설문지 통계 현황

1. 동지의 현재 노동조합내 지위는 어떠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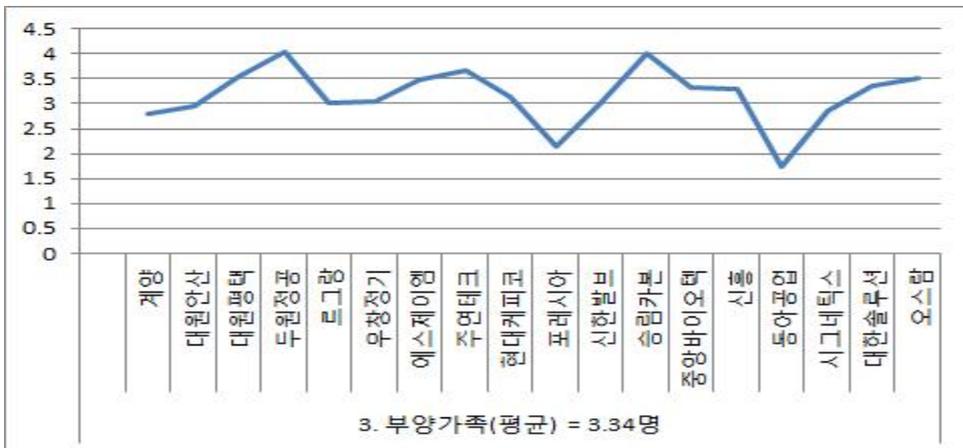


2. 동지의 근속 년수는? = 평균 1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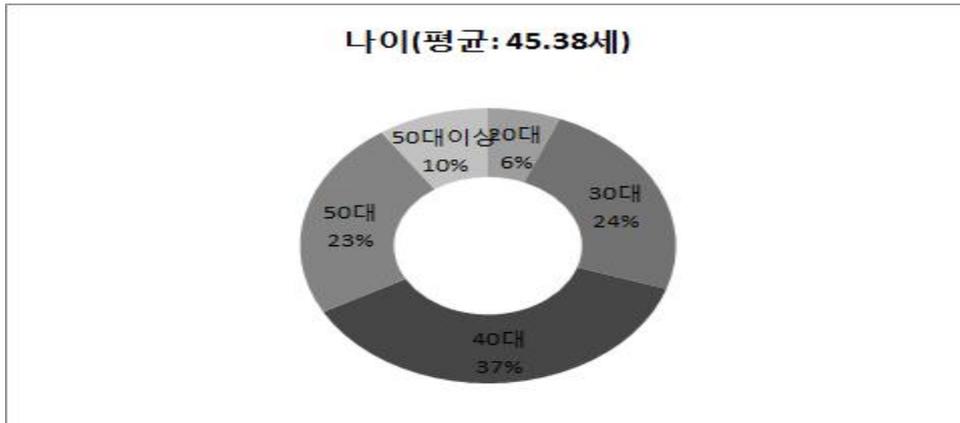
<참고> 5년미만(2.5년), 5-10년(7.5년), 11-15년(12.5년), 16-20년(17.5년), 21년이상(25년) 기준임.

3. 부양 가족은 (본인 포함)? = 3.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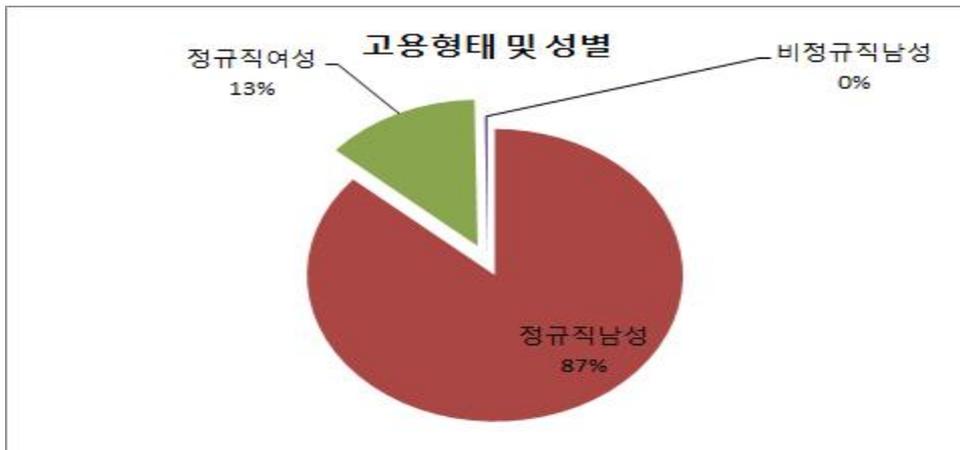
<참고> 대부분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요구한 평균치를 보내와서 합산후 나눈 숫자임.

4. 동지의 나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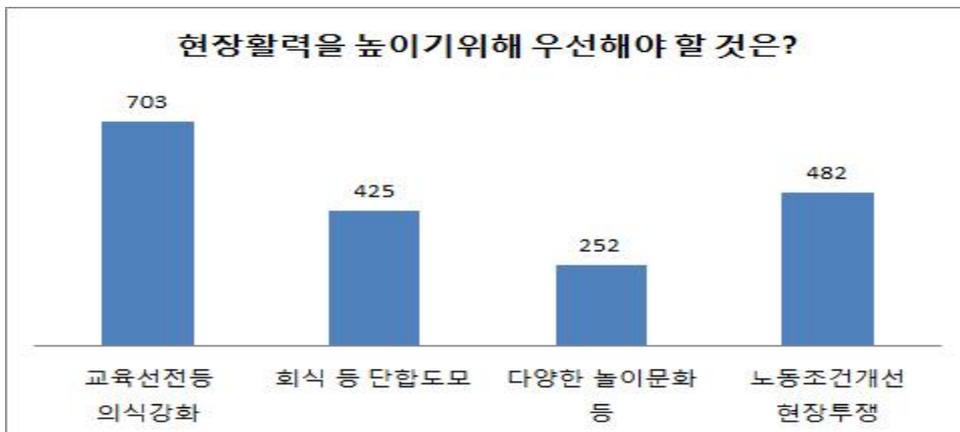


<참고> 20대(25세), 30대(35세), 40대(45세), 50대(55세), 50대 이상(62.5세)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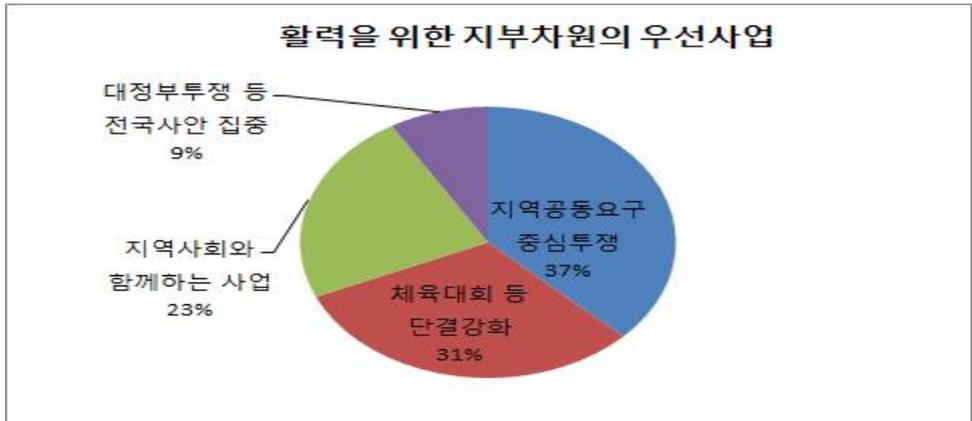
5. 동지의 고용형태 및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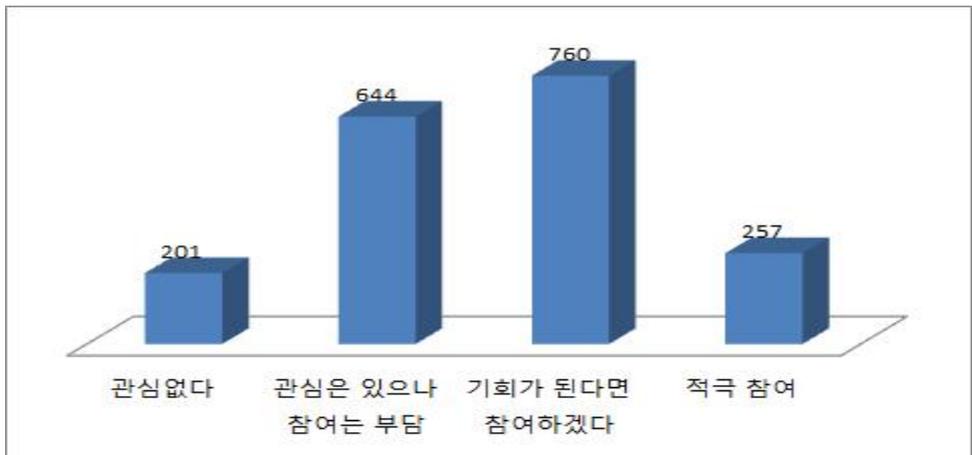
6. 경기지부는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논의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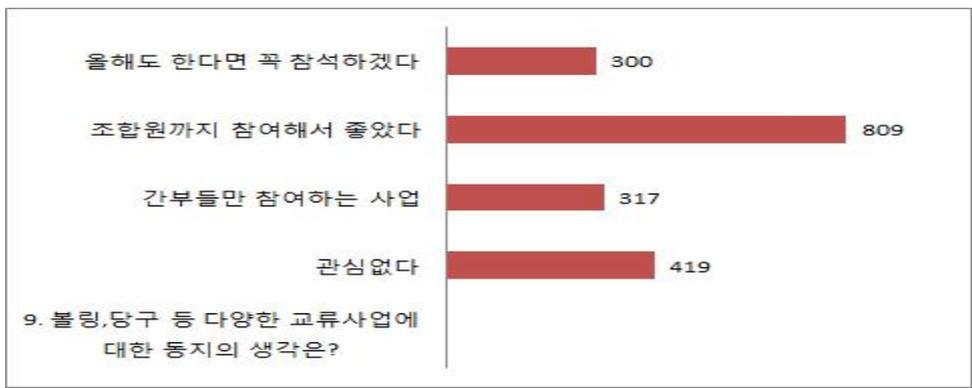
7. 현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지부 차원의 우선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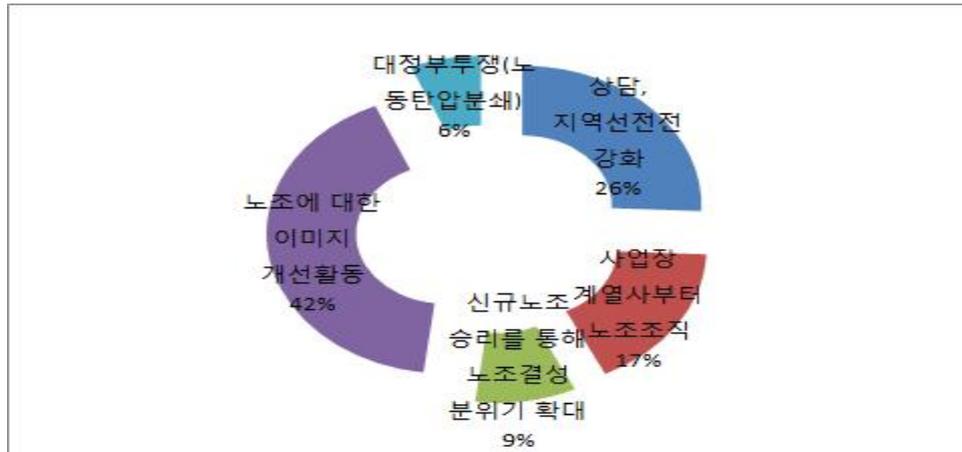
8. 권역별 문화제, 경기노동시민 한마당(체육대회) 등 지역과 함께 추진한 사업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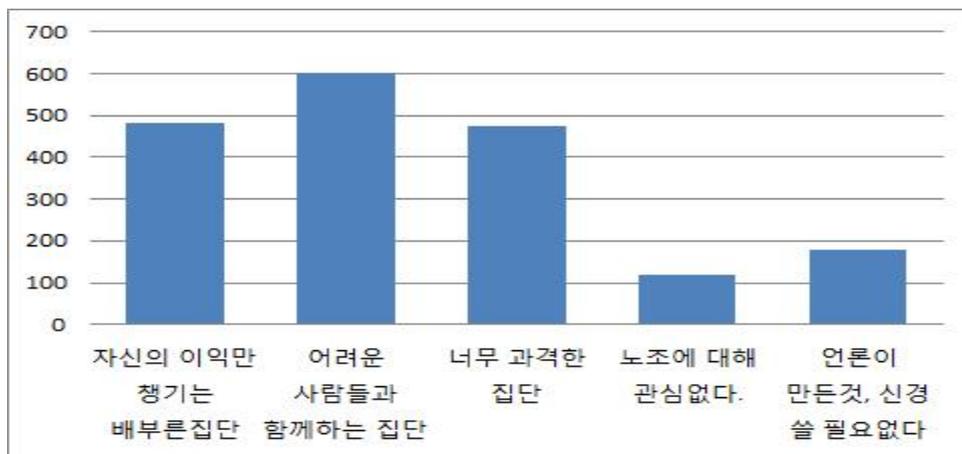
9. 경기지부에서는 그동안 볼링, 당구, 탁구, 윗놀이, 딱지치기, 테니스, 알까기, 장기대회 등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놀이문화를 교류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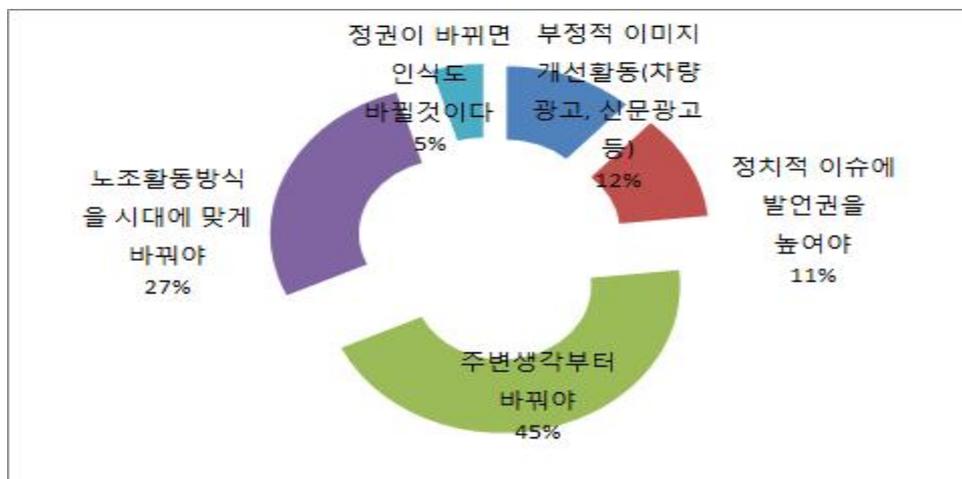
10.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우선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1. 전년도 설문조사결과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동지는 노조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보시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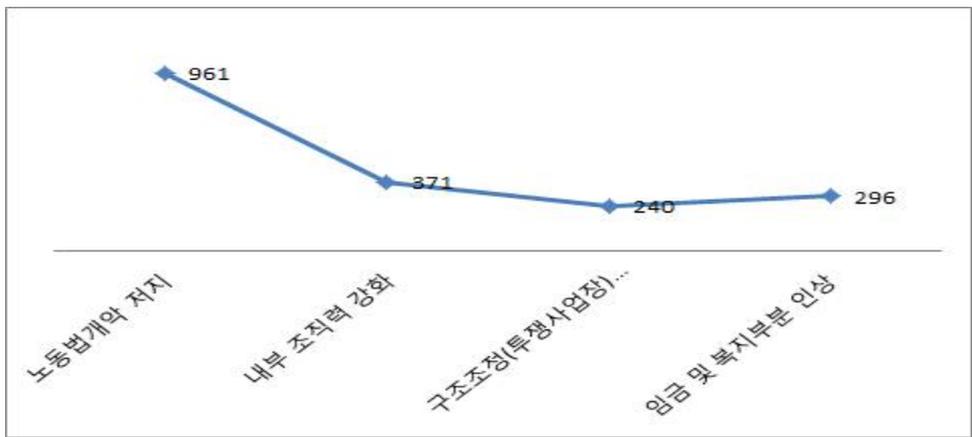
12. 노조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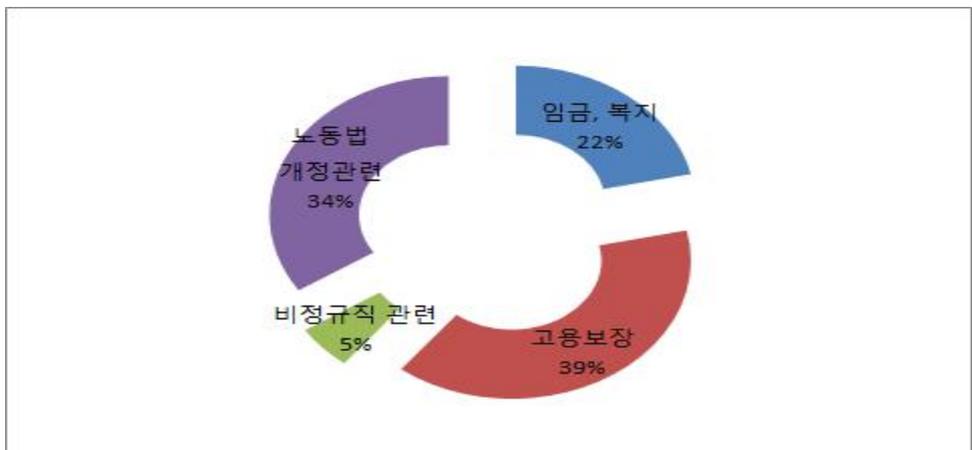
13. 정권은 반대세력을 ‘중복’으로 내몰고 전교조 탄압,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정규직 과보호론’을 근거로 근기법을 개악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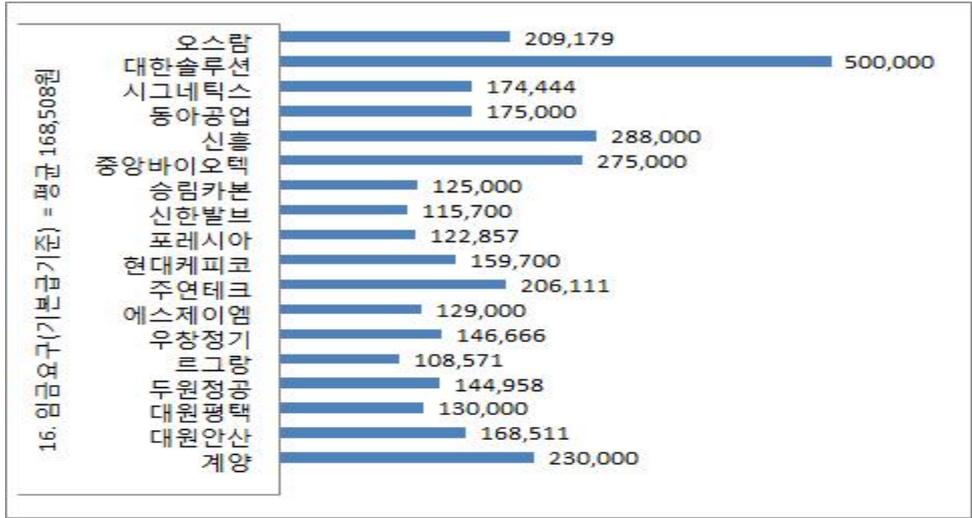
14. 2015년 경기지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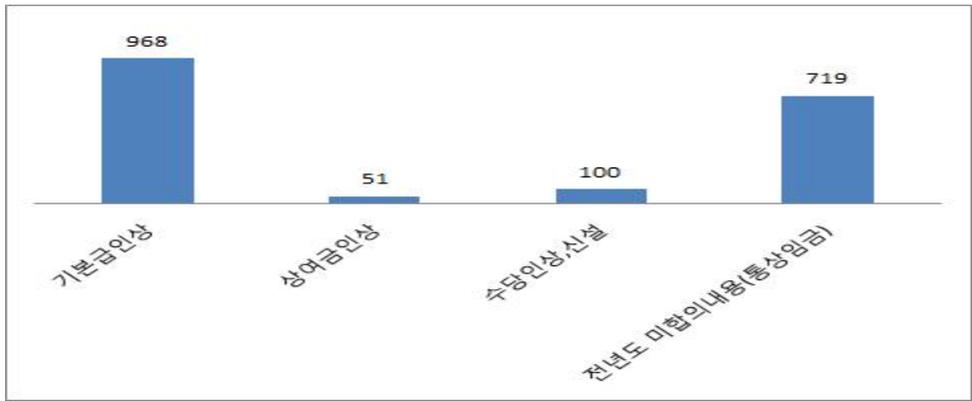
15. 올해 집단교섭 요구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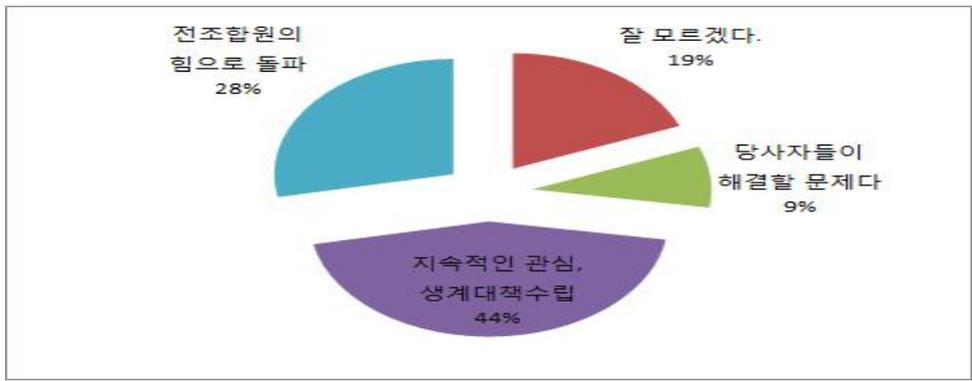
16. 2015년 임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7. 2015년 임금인상 방법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꼽는다면?



18. 경기지부에는 신규노조 오스람코리아분회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투쟁중이며, 하이디스(공장폐쇄), 삼성전자서비스 서수원센터(폐업) 등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연대방안이 있다면?



19. 설문지 내용 외 구체적인 요구내용이나 경기지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래에 써 주십시오.

<계양전기>

- 조직력 강화를 통해 노조 결속력 강화
- 함께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초심, 단결투쟁
- 투쟁보단 대화가 우선, 특히 정치투쟁은 하지 말고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쟁을 한다.
- 설문지를 통해 나온 많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경기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귀 귀울 일 수 있는 경기지부가 되었음 합니다.
- 기본급 인상을 내걸고 전면 투쟁해야 한다.
- 조합원 단합대회 및 간부 단합대회를 지속적으로 하자.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연근시간 단축
- 좀더 확고한 투쟁의식을 비취졌으면 좋겠다.(총파업 관련)
- 교육 및 선전을 통해 조합원의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집회 및 노동절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 설문지에 보듯 노조자체의 활동에 대해 옳은 것인지 특히 사회적으로 노조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필요해 보임
- 더욱 전진해 주십시오! 투쟁!
- 파이팅 투쟁
- 금속노조 이미지 개선에 좀더 집중, 대중에게 인기를 모으는 투쟁을 하였음 함.
- 집회시 강렬한 발언보다 친근감 있는 부드러운 언어를 구사하였음 함.
- 민주노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개인적 목표를 위해 정치적 싸움은 이젠 그만.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주세요.

<대원안산>

-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영향으로 각종 sns와 태형포털사이트가 활발하게 늘어남으로써 젊은세대들의 인식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좋게 추진하였음 하는 바램입니다.
- 조합원들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지부에서 해야 할 일을 지회로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 어려운 조건이지만 힘내서 함께 돌파합시다.
- 정치적 투쟁은 삼가고, 조합원들 수준에 맞는 사업을 해야한다.(현장중심의 사업)
- 투쟁은 확실하게
-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는 더욱 단결, 단합하여 조금더 뭉칠수 있는 지부,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친근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고용안정쟁취하고 구조조정 박살
- 조합원들만위한 금속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 미조직 사업장 조직사업강화에 최선을...
- 조합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의 쟁점사항이나 공동목표를위해 투쟁합시다.
- 물질에 젖지말고 양심있는 노동운동하자.
- 노동법 개악저지
- 지부가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투쟁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대원평택>

- 1)금속노조 발전을 위해서 단결된 조합원 교육필요, 조합원 하나하나 뚝뚝 뭉쳐 하나가 된다면 큰 힘이 된다.
- 2)지도부와 조합원들 간의 소통이 더욱 많았으면 합니다.
- 3)2015년 현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교육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도를 높여야한다.
- 4)올해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느해보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가열찬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일심단결하는 경기지부가 되길 바란다.
- 5)단결된 집행부 투쟁으로 승리하자.
- 6)박근혜 정권 이후 잔머리식 노동법 개악이 성행하는 추세이다.이를 가만히 두고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노동자는 이 나라의 초석이다. 초석을 약하게 만들면 집안이 무너진다. 경기지부가 선봉에 나서서 개혁과 투쟁을 해주기 바란다.
- 7)집단교섭은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 올해도 화이팅!

<두원정공>

- 15년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힘을 합쳐 투쟁승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수고 많이 하세요. -투쟁-
- 2015년 임단투 하나된 마음으로 꼭 승리하자
- 각 지부와 조합원이 하나되는 투쟁을 열어 나갑시다
- 거만한 태도 개선해라
- 건강 챙기면서 하십시오
- 경기지부 총 단결의 힘을 이끌어 내야한다
- 경기지역 노동자의 중심에서 힘차게 투쟁!
- 고생 하세요
- 고생하십니다
- 고용불안으로 인한 해소 복지향상 추진
-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로 노동조합 단결 및 정부의 노동완화, 유연화작업을 저지하고 앞으로 정년까지 고용보장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너무 정치적 투쟁 반대
- 노고가 많으십니다

- 노동운동이 너무 힘든 현실이지만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날이 올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또한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 노동자 투쟁을 시민 및 국민들이 멀리하고 외면하고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그것에 대한 집중 토론과 대응방안 마련하여 국민과 노동자 서민이 함께하는 집회를 조직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 단결 투쟁
 - 단결투쟁
 - 단결 투쟁으로 정세를 돌파하자
 - 더욱 더 선전하시고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 두원정공 내부 문제도 좀 다루었으면 한다.
 - 무조건적 투쟁방향보다 일반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해서 합리적 노선
 - 민주주의 대한민국
 - 비정규직 저지 투쟁
 - 사외로 나가는 투쟁 하지말고 임금부분에 힘써라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수고하십시요
 - 실속있는 투쟁을 하였으면 한다
 - 연말정산 개정요구
 - 열심히 노력하는 경기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 열심히 하세요
 - 올 한해는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올해 총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 올해도 열심히 합시다 "투쟁"
 - 올해도 열심히 투쟁합시다
 - 올해도 이기는 투쟁
 -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 전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이었으면 좋겠다.
 - 정권을 타지기 전에 진보정당이나 노조가 지지 받지 못하는 이유부터 성찰해야 한다.
- 정치적투쟁이나 정부 반대투쟁 이런 것은 관심없다. 금년도 연말정산 결과 세금 토해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런것들을 토대로 투쟁했으면 한다
- 정치적 파업 조합원 동원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 조직화된 투쟁! 잘 실행하고있지만 더욱 지도부가 현장참여 강화하여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더욱 더 강력하게 보이시라
 - 지부 조합원이 총단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 초심을 잃지마라. 지회 지부 간부(상집) 그리고 리더들은 군림하려하지 마라. 늘 낮은 자세로 더 그 늘진 곳을 헤아리고 보살피고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 투쟁
 - 투쟁으로 돌파바랍니다. 투쟁
 - 투쟁 일변도 탈피. 화합하자
 - 하나된 투쟁으로 2015년 임단투 승리합시다. 구조조정 고용안정

-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경기지부의 조직적 단결을 만들어갑시다. 투쟁!
- 항상 매년 임금인상 % 많이 잡지만 막상 타결시에 낮은%로 협상이 완료된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요구로 타당성있는 협상으로 좋은 결과를 갖길바란다
- 현실감 있는 투쟁합시다. 예) 연말정산
- 화이팅

<크랑코리아>

- 올해에도 투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는 한사업장이라도 도발하면 즉각 대응해서 자본들이 경기에서 그런 도발이 없도록 운영위 단위부터 결의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우창정기>

- 사용자들 보다 더욱 강한 힘이 필요하다.
- 노동자들이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지부가 되길 바랍니다.
- 사회 취약계층(독거노인,고아원)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서 이미지 개선하자.
- 보여주기 위한 파업보다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경기지부의 총파업으로 투쟁하자.
-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생각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 강력한 리더쉽!

<에스제이엠>

- 힘든 주변 상황이지만 꾸준히 연대 사업을 통해 단결된 민주 경기지부 간부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 지역의 무직자들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함. 일자리 나누기 등.
- 노동법 개악저지등 사외 정치적 대정부 투쟁은 대중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봄. 노조 혐오등 대중의 이미지 및 의식 변화에 노력이 필요함.
- 지역이 함께하고 시민들과 공감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습니다. 우리만 고립되는 투쟁을 하지 맙시다.
- 조합원 스스로도 이기적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기획, 교육, 설문조사 등 방법을 선택해 시도해 보자.
-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기지부가 될수 있으면 합니다.
- 경기지부 동지들과 함께 할수 있는 문화 투쟁을 전개했으면 함.
- 통상임금 관련해서 노조든 지부든 요구가 분명하지 않고 각 지회 실정에 맞게 내리다보니 어느 사업장은 상여금 포함해서 타결하고 또 다른 사업장은 상여금을 없애고, 고정급하는 결과가 나타나 현장이 혼란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산별노조다운 투쟁이 아닌 책임을 면피하는 모습이 비쳐지기도 합니다. 임금이나 단협은 산별노조다운 요구와 투쟁을 배치해 전체조합원의 이해와 요구가 하나로 되었으면 함.
- 2015년 투쟁 요구안중에 전체와 관련된 요구는 전체가 함께 해결하려는 기풍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관련해서 사업장에 맡겨 놓는게 아니라 전체가 통일성있는 요구안을 가지고 협

상에 임할수 있도록 지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됨.

<주연테크>

- 2015년 열심히 고민해가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 4월이 아니라 3월로 노동법 개악이 앞당겨진 듯 합니다. 조합원들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합니다. 투쟁!
- 오스람코리아 등 신규노조가 튼튼하게 지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지역지회는 해체하는게 좋겠다. (몇개의 피같은 조합을 말아 먹었는가? 이제 더는 안 된다. 이원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없애고 총력으로 조합을 지켜냅시다!)

<현대케피코>

- 각 사업장별로 조직력 점검 후 결속필요
- 구 집권세력의 행태 반성해야함
- 국민 공감할 수 있는 방향 가져야함
-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대정부 투쟁 실시하자
- 노동법 재개투쟁 필요성
- 노란봉투에 대한 일반직, 연구직의 보호대책이 필요
- 노사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 필요
- 노조원들의 의식고취가 우선되어야 한다
- 대외적인 활동보다 내실을 다질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었음 함
- 무념무상 한길만 파기를 바란다
- 문제들을 구체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필요
- 반국가적인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민 공감할 수 있는 사업
- 분열말고 단결하자
- 비노조 인원들의 근무환경개선 필요
- 사내 사무직 처우 개선부터 점검 및 개선 요청
- 사무직 매니저급 이상의 고용 보장
- 사무직도 노동조합의 보호 필요 및 고용 보장필요
- 상급단체 정치참여 개혁필요
- 생산 1부에 더욱 집중바람
- 설문지예시가 너무 막연함
- 세대간의 극복을 할 수 있는 노조활동방식이 필요
-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다
- 신입사원 채용과 퇴직 강요하는 문제개선 지속적으로 요구바람
- 실생활의 지원이나 개선요구
- 언론에 노출되는 연설시 발언 순화할 필요
- 연구직,사무직을 위한 교섭 필요
- 연말정산의 부조리를 회사를 통해 기본금 인상으로 돌려받아야함

- 올바른 판단으로 단결된 조직 보여주기
- 일을 해보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 일 좀 제대로 하고 투쟁하기를
- 장기투쟁사업장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대국민 총파업을 강력하게 앞장서야함
- 경기도지부 내부조직 강화 및 주변 노동시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
-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 노동자를 생각해주기를 바람
- 조직강화와 전 조합원의 투쟁
- 조합원 관심도와 참여도 너무 낮다
- 조합원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 많이 주어져야함
- 조합원의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함
- 지도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 지도부의 솔선수범과 낮은 자세로 조합원을 이끄는 리더십필요
- 지역사회활동 강화 정치사업 강화
- 참 진보세력 지지해야함
- 책임의식 및 현장 근무시의 의식구조 개선 필요
- 출장시 교통비 식비관련 지급규정 변경 후에 별 대응 없다
- 케피코 내부 연구직군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환경 개선 신경바람
- 투쟁기금 더 크게 마련 필요하고 노동자투쟁에 대한 사회인식전환 요구
- 투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장애, 아동 등을 바라볼수 있는 조합되기를
- 파벌싸움 조성하지 말고 정파들을 해체하자
- 항상 투쟁이나 억압은 뭔가 이상하다
- 현장과 사무직 조합원간 괴리
- 현장방문하며 직접 조합원들과 의견 전달 필요

<포레시아>

- 화이팅 하세요.
- 초심을 잊지말자. 수고하십시오.
- 지금까지 잘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신한발브>

1. 수고하십시오.
2. 과격한 이미지 탈피 필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조(양로원 또는 고아원 지원사업), 너무 지나친 정치적 편향, 양보할때는 양보하는 노조, 노조간부들의 겸손한 자세, 등... 고생하세요.
3. 설문내용을 보면 한 문장 다음 그다음 문항에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방식이란 느낌을 받음....
4. 올해 투쟁도 승리로 귀결되면 좋겠습니다.
5. 2014년 수고많으셨구요..2015년에도 투쟁하고 우리의 것을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6. 전 사업장 주간연속2교대제를 하루 빨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심야노동 철폐를 희망합니

다.

7. 선거할 때 후보등록 하신분 실제로 얼굴과 향후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8. 고생 많으십니다.

9. 열심히 도모해서 임단협을 잘하고 큰 성과 냈으면 좋겠네요.

10. 올해도 14년도 같이 단결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투쟁으로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11. 15년에도 힘찬 투쟁!!

12.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승림카본>

- 없음

<중앙바이오텍>

-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필요하다. 소통문제가 시급하다.

- 경기지부 파이팅

- 경기지부 금속노조 파이팅!!!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기지부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일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지부가 되었음합니다.

<신흥>

- 일반 조합원들은 경기지부에 속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별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경기지부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16번 같은 경우는 각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 달라는대로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너무 많다.

<동아공업>

- 없음

<시그네틱스>

- 경기지부 발전을 기원하고 앞으로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 열심히 하세요

<대한솔루션>

- 경기지부 동지들 사랑합니다. 투쟁

- 투쟁!

<오스람코리아>

- 힘써주세요
- 모든 것은 힘의 논리에서 비롯되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조합의 힘을 길러 진정 노동자, 근로자가 추구하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
- 현장 간부역량 강화 위한 교육사업
- 수고가 많으시네요
- 참석은 못하지만 항상 마음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 오스람코리아는 아직 초기 단계라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 투쟁!
- 노동조합이 기업과 개인 다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건데 언론이나 대중의 눈에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일부 대형노조는 그런면도 있음.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고 비정규직, 소규모 노조 등 더 소외된 곳을 챙겨야 될때 같음
- 짧고 굵게 나갑시다!
- 기본급 인상, 고용보장
-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투쟁 이갑시다
- 비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했으면 함
- 효과적인 집회를 위해서 구호나 노래 등의 연습이나 예시문이 필요한것 같다.
- 투쟁
- 투쟁!
- 정보공유 적극적. 구체적방안, 대책 계획을 좀 확실적이고 결정된 사항을 빠른 전달이 필요(밴드 이용 등), 노조활동 중 인신공격, 업무방해 등에 해당되는 사례나 그런 판례등의 교육 필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노조활동에 대한 설명, 노조란 무엇인가 활동을 어떻게 하나 등 기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측에서 협의를 계속하지 않는다면 노조원들 모두 끝까지 단결 & 하나 되도록 교육 및 의지를 계속 심어줘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음
-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가 법률적으로 만들어졌으면...(지금보다 더한 제재)
- 없음
- 동지들간에 결속력 강화, 조금 뒤떨어지는 동지라도 같이 끌고 가야한다!
- 1.지역및 사업장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 2.빈틈을 보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밀어붙여야 승리한다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3.경기지부가 수고가 많습니다.
- 끝까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지부였음 함.
- 신규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조직의 활력과 확산을 기조로 한다면 적극적인 연대사업을 통한 신규조직 사업장의 투쟁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 모든 조직원들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안

건

2

기타안건

- 의결주문

<첨부자료>

2015년 금속노조 투쟁방침

1. 세계 경제

○ 미국 : 달러의 위상약화속에서 미국패권은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있다.

- 4조 5천억달러의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일정정도 효과를 보았음은 분명하다. 경제성장률은 상승하였으며(3%대) 반면에 실업률은 하락(10→6%대로)하였으며 달러화 약세속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도 일정정도 회복되었다.
- 하지만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새로운 거품이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과열되어있다. 또한 달러캐리트레이드를 통해 특히 신흥국 시장으로 달러가 대거유입되면서 신흥국 주식시장 또한 과열되어 있다.
- 달러화 약세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약화와 함께 미국의 패권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 최근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한 이유는 경제활성화 효과보다는 자산가격 상승등 새로운 거품이 가져올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 아베노믹스를 통해 만성적 불황을 탈출하고자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아베노믹스는 첫째, 양적완화를 통해 일본의 만성적 경제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도 함과 함께 둘째, 재정정책으로 대규모 공공사업과 기업지원으로 기업활성화와 함께 실업해소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을 유도하였다.
- 양적 완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엔화 약세를 불러왔지만 예상만큼 기업이 활성화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수출이 증가하지도 않았다. 양적 완화를 통한 자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등 자산시장에 투입되었으며 해외공장 비중이 높은 제조업 특성상 엔저가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왔고 여기에 덧붙여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하여 취해진 소비세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목표로 하였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 못했다.

○ 유럽 :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우크라이나 위기와 연동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무역감소로 이어지면서 유럽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 높은 실업률등으로 2015년에도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IMF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특히 남유럽 경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중국 : 과잉투자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7%대로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 제조업을 중심으로 평균 10%의 성장을 했지만 전세계적인 만성적 불황으로 인하여 과잉생산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7%대로 저하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중심 경제구조의 강화와 함께 제조업을 넘어 첨단산업, 서비스업의 강화라고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과잉부채, 부동산 거품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 신흥국 :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금리인상에 따라 급격한 외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경제 위기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 인도 : 8%대의 높은 물가와 고금리 정책으로 성장을 둔화
- 인도네시아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외환위기 가능성
- 브라질 : 투자와 소비 저하 및 원자재 수출 부진으로 1%대의 낮은 성장률 예상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안 요인이 경제에 반영되면서 거의 0%대의 성장률 예상

2. 세계 정치

1)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이라크전과 2009년 공황을 거친 이후 미국의 패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 지역동맹 강화전략 : 천문학적 군사비에 따른 재정적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 중동 :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라크에 친미정권 수립을 통해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의 친미 정권은 시아파로서 수니파 중심의 ISIL과의 내란 형태로 발전하면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 유럽 :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나토를 전면내세워 대러 경제봉쇄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봉쇄는 만성적 불황을 겪고 있는 유럽경제를 더욱 위축되게 만드는 악효과를 초래했으며 러시아는 동진하여 중국, 북한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출구를 찾고 있다.
- 동북아 :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면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대중 봉쇄전략을 통해 지역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은 중러북 동맹을 강화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다.

○ 냉전의 부활 : 대중, 대러봉쇄전략

- 현재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핵심적인 전략이다. 세계공황이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진장하면서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동반자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한정하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대중 봉쇄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탈아시아 전략을 통해 미국과 맞서나가고 있다.
- 군사적으로 동북아(남한-일본)-필리핀-호주 - 중동을 잇는 틀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어 왔다면 대중봉쇄전략을 명확히 한 이후에는 동북아(남한-일본) - 대만 - 필리핀 - 동남아시아 - 인도 - 중동을 잇는 촘촘한 봉쇄망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 경제적으로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공동체(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상하이 협력기구(SOC), 동아시아 정상회의등으로 맞서가고 있다.

○ 원유의 무기화 :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의 부활

- 미국이 셰일가스 및 원유를 수출하면서 세계적인 유가가 50달러선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해서 OPEC은 원유생산량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원유가는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국가는 석유수출이 주요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이루고 있는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국익에 맞서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유조차 무기로 활용하

고 있는 상황이다.

2)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민중투쟁

- 이라크에서 시아파 정권의 수립과 지원을 통해 이라크를 간접지배하고 있지만 수니파 무장세력에 의한 투쟁등 친미정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세력의 영향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개입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에 대한 개입력 부재등 중동에서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다.
-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이외의 영역에서 핵보유가 현실화되면서 핵패권에 있어서도 심대한 손상을 입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러시아의 개입력에 대하여 나토를 내세운 경제봉쇄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유연화에 맞선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총파업, 에어프랑스사 노동자들의 파업,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에 맞선 퍼거슨시 주민들의 시위, 독일철도 기관사 파업, 독일 항공조종사 노조 파업, 라이베리아 보건의로 노동자들의 파업, 월드컵에 반대하는 브라질 노동자들의 파업등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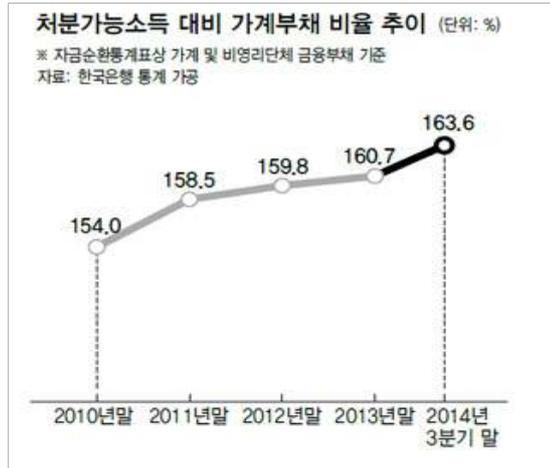
3) 동북아 정세 : 한미일 삼각동맹강화에 따른 긴장 고조

- 군사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면서 자위대의 중무장화를 축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여 대중봉쇄전략과 함께 북한을 고립화하고자 한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발맞춰 일본 아베정부는 자국 내의 심각한 경제위기, 게다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를 대외적으로 돌리기 위하여 대외지향적이고 팽창적인 외교군사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화에 맞서기 위하여 남한을 미사일방어체계(MD)의 우산아래로 편입시켰으며 고고도 요격미사일시스템(THAAD)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이에 맞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경제제재로 인해 동방으로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이해와 맞물려 경제적으로 중러의 교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으며 정치군사적으로도 중러북 삼각동맹을 강화하여 한미일 삼각동맹과 대립하면서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 북한은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잦은 미사일발사 실험등을 통해 군사적으로 미국의 대북 고립화전략에 맞서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해 러시아, 중국과의 공동사업기반을 넓혀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미국 및 남한정권에 대해 광복 70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치적으로 공세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3. 한국경제 : 경제위기 심화 속 민생피탄 가속화

1) 106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불황이 계속될 것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 중국의 연착륙 하강, 일본의 엔화약세 지속, 유럽의 만성적 불황, 신흥국 경제의 정체현상으로 인하여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 역시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높은 가계부채로 인하여 소비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불황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 역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 저유가와 연동되어 저물가(2014년 소비자 물가 1.7%)와 저성장이 결합된 디플레이션 가능성조차 예견되는 상황이다.



※ 현대경제 연구원 2015년 산업동향 전망

- 회복되고 있는 산업 : 건설업, 해운업, 기계산업**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등에 의한 민간건축부문 경기회복 및 SOC예산 확대에 따른 공공토목부문 발주확대등으로 경기전반의 회복가능성 있음
 해운업은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회복예상
 기계산업은 대내외 설비투자 수요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개선될 전망
- 후퇴 : 자동차, IT**
 자동차는 수출부문에서 제한적 증가요인이 있지만 수입차에 대한 국내소비가 증가하면서 내수시장에서는 고전이 예상
 IT산업은 반도체는 성장이 예상되지만 스마트기기와 가전을 중심으로 고전이 예상
- 불황 : 철강, 화학, 조선**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문제로 불황이 심화될 가능성 있음
 화학은 동북아 과잉공급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조선은 글로벌 시장 수요부진과 중국의 공급능력 급증에 따른 시장잠식으로 인해 고전이 예상

2) 최경환노믹스는 상대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 이자율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는 제조업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이기보다 주식시장으로 표현되는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워서 단기적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서민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장기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가계부채 1060조, 2014년 9월말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
- 공공부문, 서비스의 전면적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재벌에로 부의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는 시간제등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목표로 하는 내수 활성화에 역으로 가고 있는 방향일 뿐이다.
- 불안정 고용의 증가속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1996년 62.4%대에서 2013년 59.7%로 떨어졌다. 특히나 500대 기업의 경우 53%에 불과하다.
- 공공부문, 서비스의 전면적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재벌에로 부의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3) 구조적 불황을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 한다.

- 만성적 불황이 지속되면서 주요 산업의 이윤율의 하락과 함께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 공공부문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공기업의 영업이익도 하락하고 있다.
- 부실기업이 속출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한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들과 한국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단위:%



자료 : OECD 홈페이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4. 한국 정치

1) 안보는 박근혜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할 대국민 지배전략이다.

- ‘안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근거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복무하면서 대북우위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함께 박근혜 정권의 내적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대국민 통치전략으로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 비핵화 - 신뢰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협력 선순환구조를 표면적으로 주창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확실한 군사적 우위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흡수통일 프로젝트(통일은 대박)속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고립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대북선전선동 전단지 살포와 한미군사훈련등 긴장강화전술은 내부의 보수층을 결집하여 취약한 박근혜 정권의 지지기반을 지탱해주는 실질적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2)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파괴할 정도로 박근혜 정권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 보수 야당의 대안적 이념과 정체성의 부재, 진보정당의 취약성 때문에 초기에는 제도정치권 포섭전략을 구사하였지만 경제위기의 심화와 함께 정윤희 사건등 권력층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파괴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소송과 현재확정과정, 일베등 극우집단의 출현은 박근혜 정권이 제도정치 권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일뿐이다.

3) 경제위기와 연동하여 ‘성장’ 논리를 중심으로 대노동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특히 세월호에 대한 여야 합의이후 대노동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임시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안을 중심으로 집중적 공세가 예상된다.

5. 노동 정세

1) 박근혜 정권 3년차 노동정책의 핵심은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론이다.

- 2014년 12월 22일 제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우리경제 도약의 제약요인'으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산성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것처럼 경제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노동측 특히 정규직에게 돌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경제활성화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2014년 11월 24일 최경환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강변하였듯이 기업활동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정규직 노동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비정규종합대책안은 노동·임금·고용 유연화로 요약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다.

- "2015년 경제정책방향"이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책임론 특히 정규직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 포괄적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라면 "비정규 종합대책안"은 대안으로서 노동, 임금, 고용유연화의 세부 내용과 실행계획까지를 담고 있다.
- 고용 유연화의 내용으로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상의 위기상황이 아닌 일상적 시기에든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교정기회부여와 함께 직무-배치전환으로도 안될 경우 공정한 절차와 내부규정에 따라 해고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법개약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동자에 대하여 일상적 고용불안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이다.
- 임금유연화의 내용으로 직무, 능력, 성과중심의 성과 연봉제의 도입과 함께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조치 피해가기 위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 내용의 법개약추진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다.
- 노동유연화의 내용으로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하여 전면파견을 허용하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 파견규제를 전면 완화하고자 한다. 기간제와 파견제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장하고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단기 2주에서 1개월로 장기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

3) 노사정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적 전술이다.

- 2014년 7월 24일 박근혜 정권은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 대화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2014년 9월 19일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가 발족되었다. 한국노총, 경총 노사단체 부대표 및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 12월 말까지 3개월간 22차례의 공식회의를 진행하였다.
-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노사정 합의를 하였으며 '노사정 동반자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허울좋은 명분하에 5대의제와 14개 세부과제를 합의하였다.
- 핵심내용으로 우회 표현되었던 '노동이동성'은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며 '노동시장 활성화'는 말그대로 고용, 임금, 근무방식의 유연화를 의미한다.

4)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 행정지침 등 다양한 공세가 예상된다.

- 박근혜 정권은 3월 31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할 수 없을지라도 정부안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제출하였던 “비정규 종합대책안”에서는 법개악사안과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마련 등의 사안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포함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아니다.

6. 주체정세와 과제

1) 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2년차 투쟁을 전개한다.

- 8기 1년차 2.25총파업 불발에서 드러났듯이 지도집행력과 조직력, 간부 및 조합원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 통상임금 중심의 임단투에서 한차례의 시기집중 총파업에 그쳤던 것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즉 조합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제와 함께 지도부의 공동투쟁에 대한 결의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 시기집중을 중심으로 한 15만 공동투쟁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올해 예상되는 노동법 개악저지 및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수준으로 지도부 및 간부결의와 함께 조합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 통상임금과 연동된 자본의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하고 월급제 쟁취로 나아간다.

- 2014년 임단투의 주요한 과제가 통상임금 쟁취였으나 조합을 포함하여 단위사업장에서도 완전한 내용으로 쟁취하지 못한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통상임금에 한정된 요구만으로는 자본이 획책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악등에 맞설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노동시간단축 및 월급제 쟁취와 결합하여 종합적인 내용과 요구로 성안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노동법 개정과 연동하여 법개정 투쟁으로 상승 발전시켜야 한다.

3) 비정규직 확대 저지의 기초하에 불법파견 철폐투쟁과 간접고용 철폐 투쟁을 전면화한다.

- 박근혜 정권이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획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기아등 완성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하여 완성차자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법원에서 불법판결을 내린 것에 근거하여 전원 정규직화 요구로 나아가야 하며 완성차를 넘어 조선, 철강등 제조업 전반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서비스, 공공등에 만연해있는 간접고용 자체를 철폐시키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나 투쟁을 통해 비정규 주체의 조직화로 진전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4) 조직강화 및 혁신에 대하여 전조직적 결의와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혁신에 대하여 단일한 안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조직전체적으로 조직발전전망에 대하여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임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조직적 토론과 결의를 조직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임대이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산별노조의 발전된 상을 풍부화해야 한다.

5) 구조조정 및 투쟁사업장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강화한다.

- 만성적 경제불황이 경제위기로 치달으면서 부실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기업들의 휴폐업, 도산등이 예상되며 자본은 모든 희생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들 것이다. 정리해고를 포함하여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공세가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합차원의 종합적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복수노조와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하여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투쟁사업장에 대한 대응력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6)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투쟁을 조직화한다.

-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통하여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투쟁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것은 올해 투쟁전선 구축을 위해 유리한 지형이다.
- 정권의 연금 개악에 맞선 공무원 노조의 투쟁, 헌재판결이 조기에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교조의 투쟁등이 2015년 상반기에 점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개정쟁취에 집중해야 하는 조합에 힘찬 우군으로 공동연대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지형이다.
-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과 맞물린 진보정치운동의 약화속에서 정치적 엄호세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지형이다.

7) 총노동전선 구축을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을 사수한다.

-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가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법 개악 공세가 궁극적으로 노조활동의 무력화로 칼끝이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노동법 개악 기도외에 단협무력화, 취업규칙변경 조건완화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측 공세에 대하여 단위사업장 차원의 단협등으로는 결코 막아낼수 없으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노동법 개정쟁취 투쟁이라는 총노동전선의 구축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7. 2015년 투쟁계획

가. 기조와 방향 :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유연화 공세 분쇄!

-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포함 가이드라인, 행정지침등 모든 유연화공세에 대응하여 4월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며 동일한 정세가 지속될 경우 6월 총파업투쟁으로 저지한다.
- 임단협 일정과 결합하여 6말7초 총파업포함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1)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공세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시수한다.

-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연화하고자 한다. 일반해고 요건을 도입하여 경영상의 위기가 아닌 일상적 시기에도 포괄적인 규정만을 갖고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법개악이 없더라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고용유연화를 분쇄하고 안정된 일터를 쟁취해야 한다.
- 정권과 자본은 통상임금 대법판결조차 무력화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개악과 함께 성과 연봉제의 도입, 정년연장과 연동된 임금피크제도입등을 통해 임금을 유연화하고자 한다. 임금유연화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통한 가계 수입의 저하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다. 임금유연화 공세를 분쇄하고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월급제를 쟁취해야 한다
- 정권과 자본은 기간제 연장과 파견업종 전면 확대를 통해 노동을 최대로 유연화하고자 한다.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내수의 축소로 이어져 위기의 한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려는 노동유연화를 분쇄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철폐를 목표로 파견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분쇄하고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실현한다.

-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의 책임이 마치 정규직에게 있는 것인양 호들갑을 떨어대며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이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과보호론의 결론은 더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질 뿐이다. 정규직 과보호론을 분쇄, 무력화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단결과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정규직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 5인이하 사업장 근기법보장, 단협효력확장의 요구를 전면내세우고 비정규직과 계급적 단결을 통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3) 노동법 개악 저지와 개정쟁취투쟁을 결합하여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한다.

-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 고용유연화기조는 노동법 개악으로 집약되어 파상적으로 공세를 가해올 것이다. 올해 2월,4월,6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파견법확대에서부터 일반하고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원활한 재생산을 촉진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통과시키고자 할 것이다.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통해 저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나아가 노동법 개정요구를 공세적으로 내걸고 투쟁을 전개해야만 민주노조 운동의 사수에서 한발 나아가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경제위기 상황과 결합하여 횡행하는 노사협조주의를 분쇄하고 '노동자 서민살리기' 기조하에 2015년 투쟁을 전개한다.

-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횡행하였던 노사협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는 결국 노동자 민중 죽이기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을 저지, 무력화해야한다. 이외에도 벌써부터 노동조합의 '선제적 양보론'이 민주노조의 사수라는 포장하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보는 또다른 양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노동자,서민 살리기' 기조하에 2015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나. 투쟁목표와 요구

1) 목표

-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박근혜 정권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 임금체계 개악저지! 월급제 쟁취
- 구조조정 저지! 투쟁사업장 승리

2) 요구

- 1) 모든해고금지, 총고용보장
- 2) 파견법폐지, 간접고용철폐
- 3) 실노동시간단축, 좋은 일자리 확대
- 4) 통상임금확대, 생활임금보장, 최저임금 일만원보장
- 5) 재벌특혜 중단 및 서민증세 철회등 민생파탄 정책 중단
- 6)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7) 공무원 연금개악중단 및 사회공공성 강화

다. 투쟁의 성과 흐름

1) 전략

- 15만 총단결을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투쟁으로 확대
- 민주노조 사수에서 한발 나아가 미조직, 비정규 노동기본권 전선으로 확대
- 민생파탄, 민주주의 수호와 결합하여 사회연대전략으로 확대

2) 전술 : 총파업 총력투쟁

(1) 1차 총파업투쟁 (4월)

방침 :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등을 공식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민주노총 4/24 투쟁방침에 복무하고 세부전술은 투쟁본부에 위임한다.

- 박근혜 정권은 3월 노사정위 합의를 토대로 4월에 관련 법안을 개악하고자 한다. 4월 총파업은 노동법 개악안을 포함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등 온갖 종류의 유연화공세에 맞선 선제파업이다.

○ 세부실행계획

- 임대 결의 : 노동법개악저지, 개정쟁취 총파업투쟁 결의
- 투본에서 세부전술 결정
- 총연맹 중심 총노동전선 구축에 복무
- 총파업 찬반투표(3말)

※민주노총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전조합원 찬반투표

○ 배경 및 취지

- △실질적인 쟁의 태세 구축 △총파업 돌입 명령의 집행력-지도력 제고 △사업장 파업 조직화의 주요 경로로 작동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
- 총파업 총투표 과정 자체가 조직화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선전 사업을 집중
- 총파업 투쟁기금 모금 및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 등 적극 병행

○ 방식

- 전조합원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 ※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투표 및 산별-사업장별 요구 포함
- 투표 : 각 사업장(또는 산별조직) 관장 아래 거소투표, 인터넷투표, ARS투표 등, 사업장별 방식을 통해 진행
- 개표 및 발표 :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에서 투표함을 모아 개표를 진행하며, 광역별로 일정을 정해 해당 지역 개표 결과를 릴레이식으로 발표해 투쟁 분위기를 고조
 - ※ '투쟁 조직화를 위한 총투표' 취지에 부합도록 사업장별 개표가 아닌 '지역별 개표 방식' 원칙을 채택.
 - ※ 거소투표함은 지역본부로 이동해 개표하며, 인터넷투표 및 ARS투표 등은 해당 산별연맹 및 산별 지역 조직 관장 아래 집계해 각 지역본부로 집계 결과를 이관하는 방식을 추진함.
 - ※ 16개 광역별 개표 순서 및 일정은 중앙집행위에서 협의해 결정함.

※ 민주노총 및 연맹, 산별노조 조기투쟁 준비상황

- 민주노총 4월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선제파업 결의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투쟁 대오가 4월 말 5월 초 파업을 준비.
-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공공부문 판본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공공운수노조가 4월 총력투쟁과 6월 쟁의행위 돌입을 각각 결의.
- 대학 청소·경비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역시 상반기 순차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전망됨.

(2) 2차 총파업투쟁(6월-7초)

방침 :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등을 공식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임단협과 결합하여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한다.

○ 개요 : 1차 투쟁의 역동성에 조응하여 2차 투쟁 전개

- 강력한 총파업전선의 구축속에서 정권의 노동법개악기도를 무력화하고 2차 투쟁을 준비 한다. 박근혜 정권은 4월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행정부나 노동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설정, 취업규칙 개악등의 기도를 통해 다양한 양상의 공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하여 노동법 개

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노동법 개악강행시 총파업 투쟁으로 저지한다는 기조하에 대정부 대자본 투쟁을 전개한다.

-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정부, 대자본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임단협투쟁의 흐름과 결합한 쟁의권 확보를 통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세부실행계획 :

- 1)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등을 공식발표할 경우 투본결의로 총파업투쟁 전개
- 2) 임단협 투쟁과 결합한 실행계획
 -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의 시기를 6말 7초로 일치시킬 것을 투본에서 결의
 - 역순하여 전체 조정신청 날짜를 통일(6월 10일), 6월 말 쟁의권 확보
 - ※ 타 가맹조직이 시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총연맹차원의 계획과 일정 현실화 요구

(3) 3차 총력투쟁(하반기)

방침 : 민주노총 총력투쟁 방침에 복무한다.

3) 투쟁체계구축

- 금속노조 :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년 임단협 승리! 총파업 투쟁본부(가칭)
- 제조업 : 제조업 공동 투쟁본부(가칭)
- (비정규 : 비정규 총파업 투쟁본부)
- 사회연대 :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칭)
- ※ 민주노총 2월중 총파업투쟁본부 구성예정

4) 주요흐름도

- 3월 대타협저지 노사정위 투쟁
- 4월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총파업투쟁(1차투쟁)
- 5월 노동절 총결집, 유연화 분쇄 대정부 대자본투쟁
- 6월-7초 노동법 개악저지 최저 개정쟁취 총파업투쟁(2차투쟁), 최저임금쟁취 총력투쟁, 비정규 시기집중 파업
- 하반기 금속노조 9기 임원선거 및 노동법 개정 총력투쟁(3차 투쟁)

라. 시기별 세부사업계획

1) 3월 : 노사정위 집중대응 대타협 무력화

- 제조노조 공동회의 대응 : 제조노조 공동회의 차원의 공동투쟁 및 집회(3월 11일)
- 조합 임대(3월 3일) 및 지부지회 임대
- 지회장 결의대회
- 대국민 선전여론전 집중
- ※ 제조노조 공동투쟁은 민주노총의 한국노총 압박 및 견인전술과 연동하여 진행

2) 4월 :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

-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등을 공식발표할 경우 총파업투쟁 전개
- 대국회 투쟁(국회앞 농성 포함)
- 대정부투쟁(노동부 및 새누리당 타격투쟁)
- 사업장별, 지부별 총력결의대회
- 중앙교섭돌입(4월 7일)

3) 5월 : 노동절 총결집, 대정부 대자본투쟁 집중

- 노동절 : 위력적 집회와 가두행진 전개
- 박근혜 정권 유연화공세 각종 시행령 및 지침 무력화투쟁 전개
- 지역 현장전선강화 : 취업규칙개악, 단협무력화 대응 현장투쟁 전개
- 임단협 집중교섭 돌입
- ※ 노동절 : 민주노총 계획과 연동하여 서울 총결집 검토

4) 6월 : 총파업 및 영역별 집중투쟁

-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등을 공식발표할 경우 총파업투쟁 전개
- 최저임금 일만원 쟁취 총력투쟁
- 비정규시기집중파업(6말7초)
- 구조조정 대응 집중투쟁
- 제조업 공동투쟁
- 조정신청(6월 10일)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5) 6말7초 : 임단협 결합 노동법 개정 총력 투쟁

-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 시기집중 총력투쟁
- 대정부, 대국회 집중투쟁

※ 민주노총 계획하에 타산별노조 및 연맹 시기집중 총력투쟁 조직요구

6) 하반기 : 총력투쟁

- 금속노조 임원 선거(9월) 이후 하반기 총력투쟁

8. 2015년 임단투

1) 기조와 방향 : 노동법 개악 저지-개정쟁취투쟁과 결합하여 진행

- 총력투쟁시기와 그에 따른 조정신청시기를 일치시켜 노동법 개악 저지! 개정투쟁에 실질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와 긴밀히 연동된 내용을 요구안으로 집약한다.

2) 사업흐름 및 내용

가. 준비기(3-4월)

(1) 기조와 방향

- 4월 총파업 투쟁 조직화와 결합하여 현장토론 및 조합원 교육등을 통해 2015년 임단투 계획과 방침을 결의한다.
- 4월 총파업 돌입시 전일정 중단하고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도록 한다.

(2) 사업내용

- ① 조합원 교육 -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사업과 연동하여 2-3월중에 집중
 - ② 요구안 발송(3월 13일)
 - ③ 중앙교섭(4월 7일),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 순차적 돌입
- ※ 총파업 돌입시 전일정 재검토

나. 쟁점화 투쟁기(5-6월)

(1) 기조와 방향

- 노동절 총결집을 통해 대정부 대자본 투쟁전선을 확고히 구축한다.
- 영역별 집중 투쟁을 통해 사회쟁점화와 함께 투쟁동력을 끌어올린다.

-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위해 조정신청시기를 일치시킨다.
- 요구안 쟁점화

(2) 사업내용

① 노동절 총결집

-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복무하는 내용을 기조로 제조업 결집 적극 검토

② 비정규 시기집중 파업

- 취지 : 법원 불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거부하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압박강화와 자본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위해 파견업종과 대상 전면확대하려는 박근혜 정권 규탄
- 일시 : 6말 7초
- 방식 : 금속 비정규 사업장 불파근절 및 파견법 철폐등 요구하에 시기집중 공동파업돌입
- ※ 민주노총 차원에서 간접고용 총결기 검토

③ 최저임금 현실화 총력투쟁

- 취지
 - ; 경제살리기와 연동하여 최저임금 대폭인상 사회적 쟁점화
 - ; 상징적 의미로 1만원 걸고 현실화 투쟁전개
- 방식
 - ;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계획에 복무

④ 구조조정 대응 집중투쟁

- 취지
 - ; 경제위기하에 다수의 구조조정사업장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동하여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등 전반적으로 해고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 ; 조합차원에서 총고용보장의 요구하에 정리해고뿐 아니라 일반해고요건 도입등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
- 시기 : 6월에 집중
- 방식 : 사업장 차원의 대응을 넘어 조합차원의 대정부 투쟁 포함 집중대응 조직화

⑤ 제조업 공동투쟁

- 취지
 - ; 민주노총 화섬노조 및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섬유노련과 노동법 개악저지 공동사업 추진
 - ; 전조직적 차원에서 연대투쟁으로 확대 가능성 모색해야 함
 - ; 공동으로 노사정위에 대한 공동대응과 함께 4월 총파업을 엄호지원하기 위한 연대투쟁 모색
- 방식 : 각종 선전 및 여론전의 낮은 수위에서부터 공동집회 및 총파업 연대투쟁등 다각적 내용 검토

⑥ 쟁의조정신청

- 6월 10일 전사업장 동시신청

다.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기(6말7초)

(1) 기조와 방향

- 임단투와 노동법 개정투쟁을 결합하여 6월말7월초(6월 22일- 7월초) 시기집중 총력투쟁 전개

(2) 사업내용

- 총파업포함 총력투쟁 전개

3) 사업계획표

	조합	지부,지회	민주노총
3월	임대(3.3) 및 지회장 결의대회 제 조업 공동회의 대응, 노사정위 대응, 대국민 집중선전.	임대, 조합원교육 집중, 지회장 결의대회 조직	노사정위 집중대응,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4월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총파업 투쟁, 중앙교섭돌입(4월7일)	지부,지회 결의대회,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총파업조직	노동법개악저지 개정쟁취 총파업투쟁 공무원노조, 전교조 연금개악저지투쟁
5월	노동절 투쟁 집중, 유연화 저지 대정부 대자본투쟁	노동절 투쟁 조직,지부지회 집중교섭, 취업규칙개악저지 및 단협무력화저지 현장투쟁	노동절 투쟁, 유연화저지 대정부대자본투쟁
6월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총파업투쟁, 영역별 집중투쟁(최저임금, 비정규, 제조업), 조정신청(6월10일)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총파업 조직화, 조정신청(6월10일)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임시국회 대응 및 노동법 개정쟁취 파상파업,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응투쟁,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6월 7초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시기집중 총력투쟁	노동법 개정 시기집중 총력투쟁	노동법 개악저지 개정쟁취 파상파업투쟁
하반기	금속노조 9기 임원선거(9월)	지부,지회 임원선거(9월)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살리기 총력투쟁

9. 2015년 금속노조 임단협 방침

가. 주요 기조 및 방향

- 중앙교섭 참석-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금속노조 소속 모든 교섭단위는 <중앙교섭 요구안>을 제출하고 시기집중 및 공통투쟁을 벌여 공동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업종별 별도 요구는 업종분과 논의를 통해 제출하며 업종교섭은 교섭진행 과정속에서 분과차원에서 논의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열어 놓.
- 조합원 기본급 인상 의제는 지부(집단)교섭 및 지부대각선교섭에서 진행함.
- 지부교섭 통일 의제는 지부에서 반드시 쟁취 할 수 있도록 하며 권고안은 지부차원에서 논의를 하여 요구안으로 성안하는 것으로 함.
- 사업장 금속노조 통일요구안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통일단협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으로 사업장 단협이 통일단협보다 후퇴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쟁취하는 것으로 함.
- 각 단위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요구를 최소화하여 사업장 단체협약을 금속노조 통일단협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출범 이래 전략을 유지함.

1) 중앙교섭단위

조합 차원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제출하고, 중앙교섭 타결을 추진함.

2) 중앙교섭 불참단위

- (1)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을 각 교섭단위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담고, 2015년에 임금협상만 하는 곳은 보충협약 또는 특별협약 요구안으로 재구성해 개별 사용자에게 반드시 제출함.
- (2) 조합이 결정한 본격적인 단체교섭 돌입 전까지 2015년 교섭 및 체결권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위임 등을 담은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 쟁취에 집중함. 2015년 중앙교섭 참가를 확보할 경우 개별 사용자에게 제출했던 <중앙교섭 요구안>을 철회하고 중앙교섭에 집중함.

나.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

[금속산별협약의 우선적용] 회사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금속산별협약을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적용한

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단체 가입] 회사는 금속산업사용자협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기 확보단위는 제출하지 않음).

다. 2015년 중앙교섭 요구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안

- ① 요구액은 시급 일만원으로 인상한다.
-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④ 매년 노사공동위 주관으로 적용실태를 조사하여 차기년도 중앙교섭에 보고한다.

2) 고용안정 등

-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수정)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을 승계한다.(수정)

3) 위험성평가

-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년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② 노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노, 사 공동 실행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조합측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 ③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정한다.

4) 비정규직 정규직화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사용한다.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는 2015년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라. 업종별 별도요구안

1) 자동차업종 별도 요구(권고안)

* 자동차 완성사 및 부품사 전체 단위에 해당

* 사업장단위별 단협 개정 유무와 사업장별 조건의 차이를 반영해 자동차업종 요구안은 권고안으로 제출하며 사업장 단위별로 아래 권고안 취지에 맞게 재구성해 요구안으로 제출함

[월급제 실현방안]

- ① 회사는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 ② 회사는 실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및 교대제도를 개선하며 기존 총액임금 보전을 취지로 기본보전수당을 신설한다.
- ③ 회사는 기본급, 통상수당 및 비통상수당(제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고정성 급여 총계가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④ 회사는 ③을 위해 수당의 통폐합 및 기본급화 방안을 제출한다.

[총고용보장]

-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을 승계한다.

[정년연장]

회사는 정년을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보다 낮게 정하지 않으며 연령차별행위를 금한다.

2) 조선업종 별도 요구

(1) 대정부 요구안

[‘조선소 중대재해 근절’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 ①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중대재해예방 대책팀’을 구성 및 설치하여 조선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상시적 감독을 실시케 한다.
- ② ‘원청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 ③ 다단계 하도급 금지법안 및 재도급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 ④ 사내하청업체 안전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실시간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중형조선소 활성화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 ① 중형조선소에 대한 세제지원과 선박금융을 확대한다.
- ② 중형조선소 고용불안정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 ③ 자율협약 및 법정관리 중인 중형조선소를 조선경기 불황을 빌미삼아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 및 합병시키지 않는다.

- ④ 중형조선소 선박수주를 위한 경영지원, 물량배정, 기술전수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⑤ 중형조선소 조선소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역민 고용보호와 조선소 유치지속에 이바지한다.

[조선소 해외매각 및 해외이전 규제]

정부는 한국 조선산업의 독보적 기술력(방위사업부문 포함)이 해외로 유출되고, 세계1위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내 조선소들의 해외매각 및 해외 이전을 규제한다. 특히 조선산업 후발국인 중국·러시아 등과 사모펀드·투자은행 등 해외투기자본이 국내 조선소의 경영권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사업장 공동요구안

[고용안정 및 총고용 보장]

- ① 회사는 물량변동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식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며, 사내하청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업체 변경 시 해당노동자들의 고용, 근속, 단체협약 등의 제반사항을 승계한다.

[위험성 평가]

-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년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② 노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조합 측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 ③ “위험성 평가 노사 공동 실행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정한다.

마. 지부(집단)교섭 요구 통일안

○ 2015년 임금요구안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9,9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 인상한다.

사. 교섭방침

1) 핵심개요

- 중앙교섭 돌입 후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 대각선 교섭단위의 보충협약 및 특별협약 교섭순차적으로 돌입하되 각 단위 교섭 개시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역지부의 중앙교섭 불참단위는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지역지부 임원이 결합하는 대각선교섭으로 단체교섭을 펼침.
- 중앙교섭 불참단위 가운데 규약 상 노조 위원장의 교섭 및 체결권 위임이 불가능한 기업단위 교섭은 노조 임원이 직접 결합하는 대각선 교섭으로 단체교섭을 펼침.
- 전조직적인 임금인상 협상 개시 시점은 중앙교섭 진행속도에 따라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함.

2) 세부 교섭방침

- ① 모든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지역지부의 경우에만 교섭권 위임가능하며 모든 교섭단위 교섭 및 체결은 위원장을 대표로 명기해 진행한다.
- ② 노조 중앙교섭단은 조합임원, 상집간부 약간 명과 각 지부의 지부장 등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지부집단교섭단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구성하되 교섭위원에 노조 위원장을 명기한다. 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교섭단은 사업(장) 교섭단위 자체로 구성하되 노조 위원장을 명기한다. 업종교섭의 교섭단 구성은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2015년 각 교섭단위 요구안은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이 각 단위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및 특별(보충)협약 요구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각 단위 교섭위원에 노조 위원장이 명기돼 있는지를 최소 기준으로 하여 지부에서 승인한 뒤 조합에 보고한다.
- ④ 요구안은 중앙교섭 요구, 지부집단교섭 요구, 사업장 보충협약 및 특별협약 요구를 포함한 지회 교섭 요구를 일괄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및 사후에 요구안 발송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⑤ 임금, 단체협약,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 노조와 합의한 사항,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등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 ⑥ 중앙교섭 불참단위는 사용자의 중앙교섭 참석 확보를 취지로 한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 쟁취를 위한 사업배치를 우선 과제로 실천한다.
- ⑦ 전조직적 임금협상 개시는 중앙교섭 진전에 따라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⑧ 중앙교섭 돌입 후 순차적으로 지부집단교섭, 각 교섭단위 보충협약 및 특별협약 교섭에 돌입하며, 교섭요일은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로 하고, 여타 교섭은 중앙교섭 일정을 피하여 정한다.
- ⑨ 모든 쟁의조정신청은 노조위원장 이름으로 하며 2015년 임단협 교섭돌입 사업장은 노조 중앙위원회가 정한 조합지침에 따라 일제히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구조조정 및 현안투쟁으로 불가피하게 사전 쟁의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뒤 노조 중앙위에 보고한다. 2015년 임단협 돌입 교섭단위는 노조 중앙위원회가 정한 조합지침에 따라 일제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한다.
- ⑩ 2015년 새로 금속노조에 가입한 신규지회의 2015년 금속노조 단체교섭 세부 방침 적용여부는 지부에서 판단하여 조합에 보고한다.

경기지부 운영규칙

제정 2001년 3월 27일

개정 2007년 5월 14일

제1조 (제정근거)

본규칙은 규약 제47조(지부운영) 제③항 지부규정 부칙 제2조(내규)에 근거하여 제정한다.(2007. 5. 14. 임시대대 개정)

[참조] 규약 제47조(지부 운영) ③항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지부규정 부칙 제 2조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명칭)

본 지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지부 사무실은 경기지역 내에 둔다.

제4조 (구성)

본 지부는 경기 남부지역(부천, 광명시를 제외한 한강 이남지역) 에 속한 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제5조(대의원 배정기준)

본 지부 대의원은 지회별로 25명당 1명씩을 배정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기업지부 소속사업장은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2007. 5. 14. 임시대대 개정)

제 6조(운영위원회)

본 지부는 지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07. 5. 14. 임시대대 개정)

1. 지부장
2. 지부임원
3. 지회장
4. 기업지부의 지역대표자

제7조 (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2007. 5. 14. 임시대대 개정)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약간명)
4. 사무국장
5. 감사위원(5명 이내)

제8조(부서의 설치) 상집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2007. 5. 14. 임시대대 개정)

1. 조직부(쟁의)
2. 미조직비정규직부
3. 교육선전부
4. 총무부
5. 노동안전보건부
6. 여성부
7. 문화체육부
8. 복지후생부
9. 조사통계부
10. 기타

제9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별 임무는 조합의 처무규정에 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속노조 경기지역 사업장 연락처

<2015. 3.>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4번지 골든프라자5층, 전화: 251-7095, 7096, 전송: 256-4397, 참세상: 경기금속

경기 지부	지부	이름	손전화		지부	이름	손전화
	지부장	정규전	010-3264-1821		교선부장	조건준	010-8992-9177
	수석부지부장	박주문	010-7343-9491		노안부장	김성학	010-3208-0459
	사무국장	유상기	010-9034-3694		조직부장	박동진	010-9852-3634
	부지부장	원용훈	010-3775-4131		총무부장	김유진	010-7470-1911
부지부장	엄미야	010-9080-9207					
순번	소속	지회장	전화(031)	전송(031)	손전화	주소	
1	계양전기	이용열	494-0671	490-5374	010-3371-6272	안산시 원시동 823-2번지	
2	대경티엘에스	최용준			011-755-3433	단원구 성곡동710 시화공단 4라601호	
4	대원안산	이승현	494-0528	494-0528	010-8999-9902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18	
5	대원시화	김현종			010-9547-3869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668-2	
6	대원평택	이지현	683-2308	683-2308	019-383-1193	평택시 청북면 고령리 98-2	
3	두산인프라코어안산	유준모			010-6244-9825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85-1	
8	두원정공	이용섭	670-6431	670-6433	010-2031-5881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180번지	
9	르그랑코리아	문경복	650-9550	650-9552	010-2226-8619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1215-1번지	
20	삼성	박원우	320-9139	320-9139	010-4509-1444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310번지	
10	에스제이엠	김영호	490-3875	490-3876	010-8538-3875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1-5	
19	우리	이준규			010-9947-0180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205-1	
11	우창정기	윤상선	495-1403	495-1409	010-6230-8216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2-7	
12	인지컨트롤스안산	김영훈	496-7683	498-3883	010-5113-7009	시흥시 정왕동 1267-3(2다-504호)	
13	주연테크	김영신	070-7600-3678	445-1912	010-4775-8278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5-3	
15	포레시아	송기웅			010-6304-6632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918-1번지	
16	하이디스	이상목	639-8490~2	639-8493	010-4781-8446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번지	
17	한라공조평택	장태균	680-7990	681-8141	010-2735-6151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44-1번지	
21	현대위아비정규직	서광수			010-2287-8546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7	
14	현대케피코	진규형	450-9400	463-1578~9	010-5210-9169	군포시 당정동 410	
18	쓰리엠(화성)	오형탁			011-9620-5597	화성시 장안면 금이리 577번지	
23	경기금속지역	이규선	491-7097	493-7093	010-2391-9266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9	
	분회	분회장	전화(031)	전송(031)	손전화	주소	
	대한솔루션	정재황	683-7637	683-7639	010-5540-7820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1250-9	
	동아공업	서원구			010-9028-0791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9-6	
	승림카본	이중배			010-3242-0558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7-2	
	시그네틱스	윤민례	493-6623		010-5234-3174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9	
	신한발브	하용수	355-3946		010-4903-5920	화성시 북양동 450-2	
	신흥	신우철	491-9824		010-2708-4563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4	
	안산시흥일반분회	정현철	432-5954	431-9490	010-2077-6504	시흥시 정왕동 1728-17번지 402호	
	오스람코리아분회	조동윤			010-9015-7928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25번 길 4	
	이수엑사보드	임종만			010-6257-464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4-2	
	이젠텍	최상호			010-5751-0383	평택시 칠괴동 577-6	
	중앙바이오텍	이복길			010-9048-8730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77번지	
	지성테크분회	김종우			010-6400-5125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553-3	
파카한일유압	권오진		431-2760	010-2441-9570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나 407호		
기업 지부 (지회)	기아화성	송규현	359-6481	359-6499	010-4334-8906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	
	만도평택	신성목(수석)	680-5400~8	680-5409	010-3277-9726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3-1	
	쌍용자동차	김득중	651-4472	654-4472	010-9077-6299	평택시 칠괴동 588-2 상가A동 104호	
	현자남양	박영학	368-6310	368-6309		화성시 장덕동 772-1번지	
	삼성전자서비스 경인	박성주			010-7334-0619		

8기 회계감사 : 정상철(두원정공) 010-2413-4970, 이재근(현대케피코) 010-4616-3609, 임무철(에스제이엠) 010-5270-6357

8기 선관위원 : 이주일(선관위원장.에스제이엠) 010-7581-3378, 오진환(두원정공) 010-3769-4158)

유기순(주연테크) 010-7703-0506, 김성학(지부) 010-3208-0459

경기지부 27차 임시대의원대회

발 행 : 금속노조 경기지부

발행일 : 2015년 3월 9일

발행인 : 경기지부 지부장 정규전

전 화 : 031) 251-7095

팩 스 : 031) 256-439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 골든프라자 5층
통신ID:(참) 경기금속 / 홈페이지 <http://metalunion.nodong.org>